

일본의 초기불교 및 남방상좌부 불교 연구의 역사와 현황

正 圓(金宰晟)

〈目 次〉

- | | |
|-----------------------|------------------|
| 1. 들어가는 말 | 연구의 중심적인 인물과 論著 |
| 2. 일본 근대 불교학의 성립 | 5. 서구의 연구 |
| 3. 초기불교 및 팔리불교 연구의 전개 | 6. 맺는 말 |
| 4. 초기불교 및 남방상좌부 불교 | 부록: 各 章의 보충 참고자료 |

1. 들어가는 말

한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 일본에 와서 인도학·불교학을 배우며, 자기 연구분야에 대한 일본에서의 연구 성과를 검토하는 일은 배우며 연구하는 학생의 입장에서서는 당연한 작업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은 불교의 다른 면은 차치하더라도 불교학 분야에서는 한국에 비해 앞서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연구 성과의 축적에서도, 연구의 양에서도, 연구의 질적인 면에서도 우리는 배워야 할 점이 있다. 어떤 점을 배우고 어떤 점을 비판적으로 보면서 우리의 인도학·불교학을 발전시켜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문제의식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한 전초작업으로 먼저 일본의 연구 성과를 객관적으로 개관해 보고자 한다.

현재 일본에서 인도학·불교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의 전체적

인 학회인 「日本印度學佛教學會」의 회원(정회원의 자격은 석사 학위 소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전문 연구자임)은 약 2400명 정도이며, 이들은 전국의 국립대학, 사립대학, 단과대학과 불교종단에서 세운 대학¹⁾ 그리고 각종 연구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들 일본의 전문 연구원에 의한 연구성과는, 일단 양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일본 이외의 세계의 인도학·불교학 연구자들의 연구성과를 능가하고 있으며, 몇몇의 뛰어난 학자들의 연구 성과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일본에서의 연구 성과는 연구 분야가 너무 세분되어 있어 폭넓은 시야가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도 있지만, 이른바 원전 또는 사본 연구 등에 의거한, 역사적이며 정확한 문헌고증적인 연구방법은 불교의 학문적 연구의 기초로써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언제부터 일본에서 이처럼 인도학·불교학이 발전하게 되었는가?

일본에서의 새로운 인도학·불교학 즉, 문헌(이 경우의 문헌이란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漢譯 경전보다는 주로 팔리어나 산스크리트어 등의 원전과 티베트어로 번역되거나 저술된 문헌을 가리킨다)에 의거한 역사적인 연구법은 메이지(明治) 시대(1868~1912)부터 시작되었다. 메이지 초기부터 일본은 서양의 자연 과학의 수입과 근대 학문의 수입과 연구에 힘을 기울였다. 근대적인 인도학·불교학의 태동은 이러한 메이지 시대의 분위기에서 짙어 퇴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열매들을 거두어 왔다.

本論에서는 일본의 불교학 가운데 주로 초기불교 및 남방 상좌부불교에 대한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일본의 연구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소개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메이지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학자들이 끊임없이 留學이나 연구활동을 통해, 인도학·불교학을 배워오고 있는 유럽의 연구성과를 간과해서는 일본 학계에 대한 이해조차

1) 주요 불교계 대학으로는 고마자와(駒澤)대학, 다이쇼(大正)대학, 도요(東洋)대학, 릿쇼(立正)대학(이상 東京 所在), 아이치가쿠인(愛知學院)대학, 도보(同朋)대학(나고야 所在), 오오타니(大谷)대학, 슈치인(種智院)대학, 하나조노(花園)대학, 붓교(佛敎)대학, 류코쿠(龍谷)대학(이상 京都 所在), 시텐노지고쿠사이부교(四天王寺國際佛敎)대학(大阪 所在), 고야산(高野山)대학(和歌山縣 所在) 등의 13개교가 있으며, 이외에 60여 개교 이상의 중립(宗立)단과대학, 여자대학 등이 있다. 『佛敎系大學の魅力と案内』『大法輪』1994年 4月號, 東京, 大法輪閣, pp.122~163. 참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따라서 서구에서의 연구사 전체에 대한 정리는 논을 달리하여 정리해보고자 하며, 본론에서는 현재 구미에서 활약 중인 학자 몇 몇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정리해 보고자 한다.

2. 일본 근대 불교학의 성립

근·현대 일본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 메이지維新 초기에, 정부는 幕府의 비호 속에서 지내오던 일본 불교계에 廢佛이라는 철퇴를 내리쳤다. 이에 대응해서 불교계에서는 여러 가지 자각의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러한 움직임의 하나로 일본의 근대 불교학의 역사가 막을 올렸다.

메이지 이전까지 漢譯 佛典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방법²⁾에 의해 진행되어 오던 불교학은, 서구 특히 유럽의 근대적인 학문의 방법론의 수입에 의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되었다. 일본의 불교 종단에서는 宗派的인 차원에서 유학승들을 파견하였고, 국립대학에서도 전문 연구가의 해외에서의 연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이들의 귀국 후의 활동에 의해 역사적이며 문헌 비평적(Text critical)인 근대 불교학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2) 불교연구의 방법에 대해서 미즈노 고겐(水野弘元) 박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른바 메이지 이전의 전통적인 방법과 메이지 이후의 서양류의 과학적인 연구법이 그 두 가지이다. 전자에 의하면 大小乘의 일체의 경전은 모두 釋尊 一代의 敎說이며 설법의 순서는 중국의 화엄학이나 천태학의 敎相判釋에 의해 華嚴-阿含-方等-般若-法華涅槃의 五時로 나누어지지만, 후자에 의하면 이러한 전통적인 교상판석은 역사적인 사실에 어긋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대승경전 등은 釋尊의 설법이 아니라, 佛滅 5백년 이후에 차례 차례 성립된 것이 드러났다. 이러한 新舊의 연구법은 입장이 달라서, 새로운 서양류의 연구법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려고 하는 데 대해, 전통적인 연구법은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오히려 신앙이나 실천적인 문제인 내면적인 종교적 가치를 중시했다. 따라서 이 양자를 혼동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도, 이 양자는 동일 대상을 문제로 하기 때문에 혼동되기 쉽고, 불가분의 면조차 있다고 말하고 있다. (『佛敎の眞髓』東京, 春秋社, 1986, pp.17~22)

2.1. 메이지 시대와 그 後의 해외 유학자들

메이지 시대의 해외 유학은 유럽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영국과 독일 그리고 프랑스가 그 주요 대상국이며, 스리랑카나 인도 등에 유학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유학은 개인적이 아니라 종파적인 차원 혹은 대학에서 인물을 선정해서 파견하는 양식으로 진행되었다. 일본 근대불교학에 기여한 학자들 가운데 유학의 경험이 없는 이는 없을 정도로 일본불교학계는 활발하게 유럽의 근대 학문의 방법을 배워왔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은 다음과 같다.

| | | |
|-------|-----------------------|---------------------|
| 南條文雄 | 明治9年~17年(1876~1884) | 영국(불교학 방면의 최초의 유학자) |
| 高楠順次郎 | 明治23年~30年(1890~1897) | 영국, 독일, 프랑스 |
| 荻原雲來 | 明治32年~38年(1899~1905) | 독일 |
| 姉崎正治 | 明治32年~37年(1899~1904) | 독일, 영국, 인도 |
| 渡邊海旭 | 明治33年~大正1年(1900~1912) | 독일 |
| 立花俊道 | 明治36年~41年(1903~1908) | 스리랑카, 영국 |
| 宇井伯壽 | 大正 2年~ 6 年(1913~1917) | 독일, 영국 |
| 赤沼智善 | 大正 4年~ 8 年(1915~1919) | 인도, 스리랑카, 영국 |
| 木村泰賢 | 大正 8年~11 年(1919~1922) | 영국 |
| 山口 益 | 昭和 2年~ 4 年(1927~1929) | 프랑스 |
| 等等 | | |

이 가운데 초기불교 및 팔리불교 연구에 공헌한 학자로는 高楠順次郎, 荻原雲來, 姉崎正治, 立花俊道, 宇井伯壽, 赤沼智善, 木村泰賢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이 시기 이후에도 일본의 인도학·불교학자들은 구미 유학을 통해 끊임없이 서구의 학문적인 성과를 익히고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전개해 가고 있음도 주지하는 바와 같다.

3. 초기불교 및 팔리불교 연구의 전개

메이지 이후의 일본에서의 팔리어 원전에 의한 초기불교 및 남방상좌부 불교의 연구는, 크게 나누어 東京大를 중심으로 한 關東 계열과 京都의 大谷大學 중심의 關西계열로 나눌 수 있다.³⁾

關東 계열은, 7년간의 유럽 유학을 마치고 1897년에 귀국한 다카쿠스 준지로(高楠順次郎) 박사에 의해 주도되어, 東京대학을 중심으로 하여 大正대학, 東洋대학, 駒澤대학, 그리고 센다이(仙台)의 東北대학 등에서 다음의 학자들에 의해 연구가 이어져 오고 있다. 즉, 姉崎正治, 立花俊道, 長井眞琴, 木村泰賢, 宇井伯壽, 宮本正尊, 荻原雲來, 渡邊照宏, 西義雄, 水野弘元, 佐藤密雄, 増谷文雄, 中村元, 早島鏡正, 平川彰, 玉城康四郎, 前田惠學, 藤田宏達, 三枝充恵, 奈良康明, 塚本啓祥, 石上善應, 森祖道, 森章司, 田中教照, 片山一良, 羽矢辰夫 등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연구의 맥이 이어져 오고 있다.⁴⁾

關西 계열은, 일찍이 난조 분유(南條文雄) 박사에 의해 시작된 梵語學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던, 大谷大學의 아카누마 지젠(赤沼智善) 교수에 의해 본격적으로 팔리어 원전의 연구가 시작되었다. 大正8年(1919), 스리랑카, 영국 등지에서의 유학을 마치고 34세에 귀국하자마자 大谷大學의 교수로 임명되면서 원시불교와 팔리어를 담당하여, 舟橋一哉, 雲井昭善, 櫻部建, 長崎法潤, 吉元信行, 浪花宣明 등으로 이어지는 大谷大學 계열의 원시불교 및 아비달마불교 연구의 흐름을 형성했으며, 京都大 철학과 출신으로 大谷대학에서 교편을 잡은 사사키 겐준(佐佐木現順) 박사도 초기불

3) 여기서 말하는 關東계열과 關西계열의 구분은 실제로 학파적인 의미에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두 계열로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필자가 편의상 이름을 붙여본 것이다.

4) 메이지 이후의 초기불교 연구는 東京대학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어 왔음을 여기 열거한 학자들의 이름만 보아도 알 수 있다. 關東 계열의 학자의 거의 대부분은 東京대학 출신이며, 東京대학 출신이 아닌 이들도 東京대학 출신의 학자들의 지도와 영향을 받은 이들이다.

교 및 아비달마불교 연구에 공헌하였으며, 최근의 京都大 출신의 아라마키 노리토시(荒牧典俊) 교수의 스타니파타를 중심으로 한 연구와 에노모토 후미오(榎本文雄) 교수의 한역 아함경과 산스크리트어로 남아있는 아함경 단편을 중심으로 한 연구 등이 참고할만하다.

關東 계열과 關西 계열의 초창기 연구의 특색을 간단하게 말하면, 기본적으로는 문헌 비평적인 연구 방법에 의해 원시불전을 연구하더라도 다카쿠스 준지로 박사를 태두로 우이 하쿠쥬 박사를 중심으로 한 關東 계열의 학자들이 유럽 학문의 방법론에 의거해서 불전의 성립사적인 연구에 바탕을 두고 연구를 해왔던 점에 대해 아카누마 지젠 교수를 태두로 하는 關西 계열의 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상좌부불교의 해석법에 의거해서 연구를 해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서는 이러한 연구 시각의 지역적·계열적인 차이는 없어져 가고 있다.

3.1. 연구방법론

독일 함부르크대학의 세계적인 불교학자인 슈미트하우젠 교수에 의하면, 초기불교를 연구하는 데에는 세 가지 입장이 있다고 한다.⁵⁾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첫번째 입장. 영국의 학자(K.R. Norman, R. Gombrich 등)들의 입장으로 최소한 팔리 니카야 자료의 상당한 부분에 대하여 근본적인 동질성과 실질적인 신뢰성을 강조하는 입장. 즉, 팔리어 경전의 연구를 통해서 붓다의 가르침을 성공적으로 드러내거나 再建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 두번째 입장. 첫번째 입장에 대한 반대의 입장으로, 일부의 학자는 최초의 불교의 가르침을 재건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극도로 회의적인 입장을 취한다. 현재 우리에게 전해져 있는 팔리어 문헌들은, 기원 전 1세기 경에 비로소 문자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기록되기 이전에, 심지어는 기록되어 전승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개정 과정을 거쳤는지 알 수

5) L. Schmithausen, *Panels of the VIIth World Sanskrit Conference Vol. II, Earliest Buddhism and Madhyamaka*, Leiden, E.J.Brill, 1990, pp.1~4.

없다는 이유로 현존하는 팔리 문헌이 붓다 자신의 가르침이라는 점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에 서 있다.

3. 세번째의 입장. 슈미트하우젠 교수 자신을 포함해서 일부의 학자들은 고도의 원전 비평의 방법을 통해서 팔리 경전 내부의 신·고층을 가려내고, 보다 古層의 경전을 연구해서 붓다 자신의 언어를 찾아 내려는 입장에 서서 초기불교를 연구하고 있다고 한다.

세번째 입장에서 초기불교를 연구하는 학자로 아라마키 노리토시(荒牧典俊) 교수와 페터(T. Vetter) 교수 등이 있다고 하고 있다.⁶⁾

위의 세 가지의 연구 입장은, 기본적으로 모두 철저한 문헌학(Philology)에 기초를 두고 있다. 크게 원전비평과 원전해석이라는 두 가지의 방법으로 구별되는 문헌적인 연구 방법론⁷⁾이 이른바 서구에서 비롯된 근대적인 학문방법이며, 슈미트하우젠 교수는 이에 입각해서 초기불교 자료를 다루는 시각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일본에서의 초기불교 연구자들도 각각 자료를 다루는 방법론을 제시하면서 연구 업적을 발표해 왔다.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논문들을 들 수 있다.

1. 기무라 다이켄(木村泰賢) 박사의 『原始佛教思想論』(1921)의 제1장 「원시불교의 취급방법과 본서의 방침」.
2. 우이 하쿠쥬(宇井伯壽) 박사의 「原始佛教資料論」(1925)과 「阿含의 성립에 관한 고찰」(1926), 「阿含연구의 후예」(1927) 등의 논문.
3. 와츠지 데츠로(和辻哲郎) 박사의 『原始佛教の實踐哲學』(1927)의 서론 「근본자료의 취급 방법에 대하여」.

6) 1993년 일본을 방문해서 東京대학에서 다음의 제목으로 강연을 한 드 용 박사도 두번째의 회의적인 입장이 어느 입장에서는 옳다고 하면서도(p.15:Strictly speaking, the sceptics are certainly right) 결국은 초기불교의 권위는 초기경전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특히 당시의 대표적인 사문 집단인 자이나교와의 비교연구와 팔리어 자료 漢譯 자료, 산스크리트 단편 등을 통하는 것이 초기불교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는 최상의 안내서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J.W.de Jong, *The Beginnings of Buddhism*, p.20, 1993. 10.19. 東京大學講演資料. (『法華文化研究』第20號, 東京, 立正大學法華經文化研究所, 1994, pp.1~18, 재록)

7) 長崎法潤 「海外における佛教研究者の視點-方法論を中心として」 『海外における佛教研究の方法と課題』 京都, 大谷大學眞宗綜合研究所, 1993, p.1.

4. 니시 기유(西義雄) 박사의 『原始佛教に於ける般若の研究』(1953)의 서론 「원시불교 자료의 재검토」.

5. 나카무라 하지메(中村元) 박사의 『原始佛教の成立』(1992)의 부록인 「원시불교성전성립사 연구의 기준에 대하여」.

6. 히라카와 아키라(平川彰) 박사의 『律藏の研究』(1960)의 제1장 「율장의 자료론적 의의」.

7. 마에다 에카쿠(前田惠學) 박사의 『原始佛教聖典の成立史的研究』(1964).

8. 사이구사 미츠요시(三枝充恵) 박사의 『初期佛教の思想』(1978)의 서론 제2의 「초기불교사상 연구의 방법론」.

슈미트하우젠 교수의 분류법에 의하면, 대부분의 학자들의 연구방법론과 자료의 취급방법은 첫번째 입장과 세번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서구에서의 불교연구 방법론에 대해서는 나가사키 호준(長崎法潤) 교수의 「海外における佛教研究者の視點—方法論を中心として」(1993)에서, 1.사회학·문화인류학 방법에 의한 연구, 2.불교해석학의 방법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3.2. 초기불교의 정의의 문제

— 초기불교, 원시불교, 근본불교, 최초기불교, 팔리불교, 상좌부 불교 —

‘초기불교’에 대한 정의가 문제될 때, 연구 영역이 문제로 되는 경우와 단순한 명칭이 문제가 되는 경우의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연구의 영역의 문제란, 명칭에 따라서 그 명칭이 지칭하는 시기가 달라서 연구의 대상이 되는 영역이 구분되는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명칭의 문제란, 둘 이상의 명칭이 지시하는 영역은 같지만 단지 학자들에 따라 명칭만이 다른 경우를 말한다.

먼저 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명칭으로는 ‘원시불교’와 ‘초기불교’ 그리고 ‘팔리불교’와 ‘상좌부불교’ 또는 ‘남방상좌부불교’가 있으며, 약간은 의

미가 다르다 하더라도 ‘근본불교’와 ‘최초기불교’도 명칭은 다르지만 지시하는 영역은 유사한 경우에 해당한다.

전자의 경우는 학자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근본불교’ 내지는 ‘최초기불교’와 ‘원시불교’, ‘초기불교’에 시간적인 차이를 둘 경우에, 그 대상으로 삼는 영역이 달라지게 된다. ‘원시불교’(내지는 ‘초기불교’)와 ‘팔리불교’(내지는 ‘상좌부불교’)는 자료적으로는 전자가 후자에 포함되는 관계이다. 즉 ‘원시불교’(내지는 ‘초기불교’)의 자료에 이른바 상좌부의 독특한 교리적 해석이 제시되어 있는 論藏이나 주석 문헌까지 포함시킬 경우에 ‘팔리불교’ 내지 ‘상좌부불교’의 영역이 된다. 이제 하나하나의 명칭들에 대해서 서로 유사한 것들과 비교해 가며 간단하게 그 의미를 살펴보자.

3.2.1. 원시불교와 초기불교

대부분의 학자들은 ‘원시불교’와 ‘초기불교’를, 명칭은 다르더라도 내용적으로는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메이지 이후에는 ‘원시불교’ 쪽이 보다 많이 사용되어 왔으며, 지금은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정착한 용어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⁸⁾(본 논문에서는 ‘원시불교’와 ‘초기불교’라는 두 용어를 똑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이처럼 정착된 ‘원시불교’라는 용어에 의해 지칭되는 시기는, 팔리 성전 가운데에서는 經藏과 律藏, 그리고 한역에서는 阿含經과 諸部派의 율장, 그리고 단편적으로 발견되어 학계에 발표되고 있는 산스크리트어의 斷片 아가마(Āgama, 阿含經)와 율장들을 중심으로 하여 알려진 시기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불교이다. 시기적으로는 붓다 생존 시대부터 입멸 후 100년, 부파의 근본 분열이 일어나기까지의 약 150년 간의 불교를 말한다.

이러한 ‘원시불교’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면서 ‘초기불교’라는 명칭을 써야 한다고 주장한 이가 사이구사 미츠요시(三枝充恵) 박사이다. 사이구사 박사는 그의 저술 『初期佛教の研究』(1978)에서 이러한 개칭의 뜻을 밝히고, 「〈原始佛教〉について」(1986)라는 논문에서 더욱 자

8) 藤田宏達 「原始佛教・初期佛教・根本佛教」 『印度哲學佛教學』 第2號, 北海道印度哲學佛教學會, 1987, p.20.

세한 의견을 주장하고 있다.

결국 현재는 '원시불교'와 '초기불교'가 거의 같은 의미로, 위에서 정의한 시기의 불교를 의미하는 용어로 학자들 사이에 병용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3.2.2. 근본불교와 초기불교

근본불교라는 용어가 책의 제목으로 처음 사용된 것은 아네자키 마사하루(姉崎正治) 박사의 『根本佛教』(1910)이다. 하지만 아네자키 박사가 사용한 '근본불교'라는 용어는 위에서 설명한 '원시불교'나 '초기불교'와 거의 같은 분야를 가리키고 있어 별로 문제 삼을 바가 안된다. 하지만, 아네자키 박사의 제자인 마스타니 후미오(増谷文雄) 박사는 '원시'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근본'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그 이유로는 '근본' 또는 '뿌리'를 의미하는 산스크리트어 혹은 팔리어의 mūla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예를 들어 불교의 근저를 가리키는 의미에서 '근본불교'라는 명칭을 사용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⁹⁾ 하지만 결국 자료에 있어서는 원시불교의 자료와 공통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신앙적인 의미에서 '근본불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다음으로 '근본불교'라는 명칭을 사용한 학자는 우이 하쿠쥬(宇井伯壽) 박사이다. 우이 박사는 넓은 의미에서 원시불교를 두 시기로 나누고 있다. 즉, 고타마 붓다 및 그 직제자가 생존하여 활동하던 시기까지를 '근본불교', 그리고 그 이후부터 근본분열이 일어나기 직전인 아쇼카 왕 즉위까지를 좁은 의미에서의 '원시불교'로 분명하게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¹⁰⁾ 이와 같은 우이 박사의 說은 아카누마 지젠(赤沼智善) 교수, 니시 기유(西義雄) 박사 등에게 받아들여졌다.¹¹⁾

'근본불교'라는 명칭을 시대 구분의 의미에서 사용하지 않고 사상적인 입장에서만 사용한 학자로서는 미야모토 쇼손(宮本正尊) 박사를 들 수 있

9) 増谷文雄 『根本佛教と大乘佛教』(東京, 僑成出版社, 1989) p.16.

10) 宇井伯壽 「原始佛教資料論」 『印度哲學研究』 第二, (1925) p.117.

11) 赤沼智善 『原始佛教之研究』 (1939) p.1.

西 義 雄 『原始佛教に於ける般若の研究』 (1953) p.107.

다. 간단히 말하자면, 석존의 中道の 방법·입장에서 고찰되는 불교가 근본불교라는 주장¹²⁾이지만, 미야모토 박사의 학설은 별로 호소력이 없어 이 학설을 따르는 학자는 거의 없다.

현재에는 우이 박사가 말한 '근본불교' 조차 역사적인 의미에서 자료의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엄밀하게 넓은 의미의 원시불교에서 근본불교의 특징을 가려내는 것은 무리라고 하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통설로 되어 있다.

하지만 나카무라 하지메(中村元) 박사의 이른바 초기불교에 대한 일련의 연구 성과 등을 통해서 우이 박사가 말하는 '근본불교'와 비슷한 개념으로 '최초기불교'라는 용어도 최근 자주 사용되고 있다. 최초기불교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나카무라 박사의 저술(1992, 1993)에 대한 소개 부분을 참조하기 바란다.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점은, 이른바 최초기불교의 모습을 전해주는 경전들에 보이는 승단의 모습이나 교리가, 이른바 우이 박사가 말하는 '근본불교'의 전체적인 양상을 전부 대변해 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언어학적·문헌성립사적인 연구에 의해 밝혀낸, 나카무라 박사가 말하는 최초기 불교의 모습이 석존 在世時의 불교 교단의 최초기의 일면을 말해주는 것이라면 설득력이 있겠지만, 최초기의 불교의 특징에서 벗어난 것이 부파불교 교단에 의해 증광된 부분이라고 하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여겨진다. 초기경전의 성립사적인 연구에 의해 드러난 최초기불교의 모습이 이른바 원시불교 내지는 초기불교의 모습과는 다르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하더라도 그것이 우이 박사가 말하는 '근본불교'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이 아직 남아 있다. 아직 연구해야 할 여지가 많은 부분이 바로 '최초기불교'의 모습이다. 최근 아라마키 노리토시(荒牧典俊) 박사의 연구와 다나카 교쇼(田中教照) 박사의 연구¹³⁾도 최초

12) 『根本中と空』(1943) p.13.

13) 荒牧典俊 「Suttanipāta 1032-1039: Ajitamānavapucchāについて」(1975), A text-strata-analytical Interpretation of the Concept Pañcaskandhas(1980)

「Suttanipāta Atthakavaggaにみられる論争批判について」(1983)

「原始佛教經典の成立について-韻文經典から散文經典へ」(1984)

「Attadāṇḍasutta(Sn 935-954)は「釋尊の言葉」であり得るか」(1985) 등

田中教照 『初期佛教の修行道論』 第一章 最初期佛教における修行道, pp.7~110.

기불교의 모습을 드러내려는 연구의 일련의 작업이라 할 수 있다.¹⁴⁾

3.2.3. 팔리불교와 상좌부불교

‘팔리불교’라는 명칭은, 팔리어 三藏 및 기타 팔리어 문헌에 의해 알려진 불교를 가리키는 용어로서, 남방상좌부불교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고 보아도 좋다. 스리랑카·미얀마·태국·캄보디아·라오스 등의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전해져온, 이른바 상좌부불교의 典籍은 팔리어로 쓰여진 문헌들이므로, 팔리불교라 할 때는 부파불교 가운데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입장에서 서 있으면서 가장 정통적이라고 주장해온 상좌부불교와 같은 의미로 이해해도 무리가 없다. 본 논문에서도 팔리불교와 상좌부불교 내지는 남방상좌부불교는 모두 같은 의미로 사용했다.

3.3. 언어 및 문헌의 연구

3.3.1. 팔리어 문법 및 강독

다카쿠스 준지로 박사에게 의한 본격적인 팔리어 문법 및 강독서인 『巴利語佛敎文學講本』¹⁵⁾ (1900)이 출판된 것을 효시로 일본에서의 팔리어 연구

- 14) 최초기불교에 대한 일련의 연구가 서구의 학자들에 의해 발표되었다. 주요 논저로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L. Schmithausen, On some Aspects of Descriptions or Theories of
<Liberating Insight> and <Enlightenment>, in *Early Buddhism*, In:
Studien zum Jainismus und Buddhismus, Wiesbaden, Steiner,
1981, pp.199~250.
Tilman Vetter, *Recent Research on the Most Ancient Form of
Buddhism: A Possible Approach and its Results*,
雲井昭善博士古稀記念『佛敎と異宗教』京都, 平樂寺書店, pp.85~67.
Tilman Vetter, *The Ideas and Meditative Practices of Early
Buddhism*, Leiden, E.J. Brill, 1988.
Tilman Vetter, Some remarks on older parts of the Suttanipata,
*Panels of the VIIth World Sanskrit Conference Vol.II, Earliest
Buddhism and Madhyamaka*, Leiden, E.J.Brill, 1990, pp.36~56.
Grace G. Burford, *Desire, Death and Goodness the Conflict of Ultimate
Values in Theravāda Buddhism*, New York, Peter Lang, 1991.

는 막을 올리게 되었다. 이어서 다치바나 순도 박사의 『巴利語文典』(1907)이 팔리어 학습의 지침서가 되었으며, 나가이 마코토 박사의 『獨習巴利語文法』(1930)은 간단한 문법서로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 가장 정평있는 문법서는 위의 세 박사에게서 팔리어를 배운 미즈노 고겐 박사의 『パーリ語文法』(1955)이다. 이 책은 팔리어 문법서로서는 가장 자세하며, 팔리어 뿐만 아니라 中期 인도어(Middle indic) 연구의 참고서로도 유용하다. 부록인 『パーリ語およびパーリ佛敎研究の歴史』(pp.190~220)에는 이 책이 쓰여질 1955년까지의 서구와 南方諸國, 그리고 일본에서의 팔리 불교에 대한 연구사가 정리되어 있음도 참고할만 하다. 이외 최근의 간편한 문법서로 사사키 겐준 박사의 『基本パーリ語文法』(1977)¹⁶⁾도 있다.

강독용 서적¹⁷⁾으로는 미즈노 고겐 박사의 『パーリ語佛敎讀本』(1956)이 있다. 이 책은 1955년에 출판한 『パーリ語文法』에 이어지는 저자의 편저

- 15) 본서는 강독을 위한 본문과 字書 외에 팔리 경전과 상응하는 한역 불전을 대조하고 있어서, 漢譯 불전과 팔리 경전과의 대조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대조 연구는 일본의 초기불교 연구에서의 한 장점이 되었으며, 현재에도 이러한 연구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16) 팔리어 문법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책은 Wilhelm Geiger의 *Pali Literature und Sprache*(1916)이다. 이 책은 Batakrisna Ghosh에 의해 영역되어 *Pali Literature and Language*라는 제목으로 인도에서 1943년 출판되었으며, 1994년 영국 Pali Text Society에서 K.R. Norman 교수에 의해 문법 부분만 개정되어 *A Pali Grammar by Wilhelm Geiger*란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노만 교수에 의해 개정 출판된 가이거의 팔리문법서는 팔리어를 처음 배우고자 하는 이들과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이 있는 이들에게 좋은 참고서가 될 것이다.
새로 개정 출판된 팔리문법서에 대한 정보와 함께 책을 보내 준, 영국 옥스포드에서 팔리 불교를 연구하고 있는 賢光스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17) 팔리어 강독용으로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교재는 앤더슨씨의 다음의 저술이다.
Dines Andersen, *A Pali Reader with Notes and Glossary*, 2 parts, Copenhagen, London and Leipzig, 1901~1907. Reprinted in 1 vol., Kyoto, Rinsen Book Company, 1979.
이 책은 132쪽의 원문(part 1)과 282쪽에 달하는 字書(part 2)로 구성되어 출판 당시의 팔리어 사전의 역할도 담당했으며, 특히 Dhammapada(『法句經』)의 모든 어휘가 수록되어 있어서 『법구경』을 읽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이외에 초보자를 위한, 간단하면서도 문법적인 설명이 자세한 책으로는 요한슨 박사의 다음의 저술이 있다.
Rune E. A. Johansson, *Pali Buddhist Texts Explained to the Beginner*, Copenhagen, Scandinavian Institute of Asian Studies, 1973, 1977(2nd ed.), 1981 (3rd ed.).

로, 초기불교의 기본교리, 佛傳, 주요 경전의 구절과 자타카의 내용 그리고 부록의 어휘로 엮여져 있다.

3.3.2. 팔리어 사전 및 漢·팔리 비교 연구

팔리어 사전¹⁸⁾으로는 구모이 쇼젠 박사의 『巴利小辭典』(1959~1964)과 미즈노 고젠 박사의 『パ-リ語辭典』(1968)이 있다. 팔리어를 배우는 학생들은 대부분 후자에 의거해서 기본적으로 일본어에 의한 팔리어 학습의 관문을 통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팔리어 사전은 아니나 인도불교 고유명사 사전으로서 팔리 자료를 널리 이용한 아카누마 지젠 교수의 『印度佛教固有有名詞辭典』(1931)도 있다.

漢·팔리 비교 연구의 효시는 앞에서 언급한 타카쿠스 준지로 박사의 『巴利語佛教文學講本』(1900)이며, 이어서 아네자키 마사하루 박사의 *The Four Buddhist Āgamas in Chinese, A Concordance of Their Parts and the Corresponding counterparts in the Pali Nikāyas*(1908)가 본격적인 비교 연구의 성과라 할 수 있고,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 가장 체계적인 연구서는 아카누마 지젠 교수의

18) 서양에서 출판된 팔리어 사전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가 있다.

1. R.C. Childers, *A Dictionary of the Pali Language*, London, 1875.
2. T.W. Rhis Davids and W. Stede, *Pali-English Dictionary*, London, PTS, 1921~1925.
3. D.Andersen and H. Smith, *A Critical Pali Dictionary*, Copenhagen, Vol. I, 1924~1948, Vol. II, 1960~1990, Vol. III, 1992~.

이 가운데 가장 널리 사용되어 온 사전은 2의 PTS의 사전이며(이 사전의 개정판이 지금 준비 중에 있다), 3의 *A Critical Pali Dictionary*(CPD)는 현재 1,2권에서 모음 부분에 대한 정리가 마무리되고, 3권의 분책이 세 권 출판되어 있는 형편이지만 주석서류를 포함한 팔리 문헌을 폭넓게 다루고 있는 가장 세밀하고 광범위한 사전으로 정평이 나 있다. 현재의 출판 상황을 보면, 1년에 70여 쪽에 달하는 분책이 한 권씩 출판되고 있는 실정이다.

위의 세 가지 사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의 두 논문을 참조바람.

K.R.Norman 「三つのパ-リ語辭典」(Three Pali Dictionaries, 山崎守一 譯註) 『中央學術研究所紀要』第17號, 東京, 中央學術研究所, 1988, pp.90~116.

雲井昭善, 「パ-リ語辭典の編纂」 『パ-リ文化學の世界』 水野弘元博士米壽記念論集, 東京, 春秋社, 1990, pp.3~24.

우리말 팔리어 사전 및 문법서로는 『빠알리語辭典』 ①語彙篇 ②文法篇(全在星編著 서울:한국불교대학출판부, 1994)이 있다.

『漢巴四部四阿含互照錄』(1929)이다.

3.3.3. 원전의 번역¹⁹⁾

여기서 소개하는 것들은 주로 팔리어 원전을 번역한 것들이다. 『南傳大藏經』이 번역된 후 60여 년이 지난 요즘 다시금 새로운 현대어역들이 시도되고 있으며, 『南傳大藏經』에 번역되지 않은 주석서도 많지는 않지만 번역 및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4장의 저술 소개와 중복되고 있지만, 원전 번역 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정리해보았다.

• 『南傳大藏經』 65卷, 70冊, 1935~1941. 1970~1974, 再刊.

日譯 남전대장경은, 律藏 5卷(1卷~5卷), 經藏39卷 42冊(6卷~44卷), 論藏14卷 15冊(45卷~58卷) 藏外7卷 8冊(59卷~65卷)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편집인 9명, 번역자 50여명에 이르는 역사적인 번역사업의 결실이었다고 할 수 있다.²⁰⁾

• 『原始佛典』 시리즈

全10卷, 東京, 講談社, 1985~1986.

編集委員: 梶山雄一, 櫻部建, 早島鏡正, 藤田宏達.

1. 『ブッダの生涯』(내용:增支部經典3-38, 聖求經, 律藏·大品1-24, 大般涅槃經, 해설:早島鏡正)
2. 『ブッダの前身』(내용:니다나카타[因緣譚], 『자타카』, 해설:櫻部建)
3. 『ブッダのこゝろ』 I (내용:『長部經典』 가운데 9經-1.梵網經 DN.1, 2.沙門果經 DN.2, 3.쿠타단다經 DN.5, 4.三明經 DN.13, 5.大本緣經 DN.14, 6.大緣經 DN.15, 7. 우둠바리카獅子吼經 DN.25, 8.起源經 DN.27, 9.教誡싱가라經 DN.31, 해설:藤田宏達)

19) 팔리어 문헌의 번역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

石上善應 「パ-リ語文獻の翻譯」 『パ-リ文化學の世界』 水野弘元博士米壽記念論集, 東京, 春秋社, 1990, pp.25~44.

20) 여러 학자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영국의 PTS를 중심으로 한 팔리 문헌의 영역과 일본의 남전대장경은 새로운, 비판적인 번역이 필요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일본에서는 다음의 번역 작업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영국의 PTS에서도 조금씩이나마 K.R. Norman 교수 등에 의해 새로운 번역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4. 『ブッダのことは II』(내용:『中部經典』 가운데 12經-1.法嗣經 MN.3, 2.恐怖經 MN.4, 3.念處經 MN.10, 4.獅子吼小經 MN.11, 5.雙考經 MN.19, 6.鋸喩經 MN.21, 7.蛇喩經 MN.22, 8.象跡喩小經 MN.27, 9.삿차카大經 MN.36, 10.愛盡大經 MN.38, 11.앗싸푸라大經 MN.39, 12.우팔리經 MN.56, 해설:藤田宏達 他)
5. 『ブッダのことは III』(내용:『中部經典』 가운데 16經, MN.63, 74, 77, 82, 86, 89, 93, 99, 115, 117, 121, 122, 130, 131, 141, 145. 해설:藤田宏達 他)
6. 『ブッダのことは IV』(내용:『相應部經典』 가운데 19經, 『增支部經典』 가운데 11經, 해설:櫻部建)
7. 『ブッダの詩 I』(내용:『小部經典』 가운데 『담마파다』(法句經)와 『숫타니파타』(經集), 해설:藤田宏達)
8. 『ブッダの詩 II』(내용:『小部經典』 가운데 『우다나』(無問自說經)와 『이티붓타카』(如是語經), 해설:櫻部建)
9. 『佛弟子の詩』(내용:『小部經典』 가운데 『테라가타』(長老偈)와 『테리가타』(長老尼偈), 해설:早島鏡正)
10. 『ブッダチャリタ』(내용:아슈바고사(馬鳴)의 『Buddhacarita』, 해설:梶山雄一)

위의 원시불전 시리즈 10권은 팔리경전에서 직접 번역한 것들인데 『南傳大藏經』이 문어적·한문투의 번역인 데 대해 이 번역들은 구어적이며 현대어적인 번역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팔리경전 가운데 사상적으로 중요한 경전들을 편집자들이 선정해서 여러 명의 학자들이 분담해서 번역을 하였다. 경전 번역의 새로운 시도 가운데 하나이다. 마지막 10권은 팔리어 불전이 아니라 산스크리트어로 쓰여진 佛傳이다. 이 시리즈의 제1권 팔리어 佛傳과 비교해서 읽으면 흥미롭다.

• 나카무라 하지메(中村元) 박사의 번역서

1958

『ブッダのことは-スッタニパータ』(Suttanipāṭa) 岩波文庫, 東京, 岩波書店. 1984, 増訂版·大型版.

1963~1964

『ミリンダ王の問い-インドとギリシアの対決』 全3卷(Milinda-pañha) (早島鏡

正 共譯) 東京, 平凡社.

1978

『ブッダの眞理のことは-感興のことは』(Dhammapada·Udanavarga) 岩波文庫, 東京, 岩波書店. 1984, 大型版.

1980

『ブッダの最後の旅』(Mahāparinibbāna-suttanta) 岩波文庫, 東京, 岩波書店. 1982

『佛弟子の告白-테-라가-타-』(Theragāthā) 岩波文庫, 東京, 岩波書店.

『尼僧の告白-테-리-가-타-』(Therīgāthā) 岩波文庫, 東京, 岩波書店.

1986

『ブッダ, 神神との對話-산유평타·니카-야 I』(Samyutta-nikāya, Sagāthavagga i-iii) 岩波文庫, 東京, 岩波書店.

『ブッダ 惡魔との對話-산유평타·니카-야 II』(Samyutta-nikāya, Sagāthavagga iv-xi) 岩波文庫, 東京, 岩波書店.

1982~1991

『ジャータカ 全集』 全10卷(Jātaka)(監修·補註) 東京, 春秋社.

나카무라 하지메 박사의 팔리 경전 번역은, 박사가 말하는 초기불교의 모습을 전해 주는 경전이 위주가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박사의 초기불교 및 원시불교 연구의 한 성과라 할 수 있다.

• 무라카미 신칸(村上眞完)·오이카와 신카이(及川眞介) 박사의 번역

『佛のことは註(一)-파라마త్타·조-테이카-』 東京, 春秋社. 1985.

『佛のことは註(二)-파라마త్타·조-테이카-』 東京, 春秋社. 1986.

『佛のことは註(三)-파라마త్타·조-테이카-』 東京, 春秋社. 1988.

『佛のことは註(四)-파라마త్타·조-테이카-』 東京, 春秋社. 1989.

본 번역은 5세기 경의 대주석가, 붓다고사의 숫타니파타(Sutta-nipāṭa, 經集)에 대한 주석서인 파라마타조티카(Paramatthajotikā, 第一義解明)의 完譯이다. 팔리불교 연구·번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작품으로, 팔리 주석서 번역의 효시적인 업적이다.

• 가타야마 이치로(片山一良) 교수의 번역.

1991-2

『長部(Dīgha-Nikāya) 第一 梵網經(Brahmajāla-sutta)』『原始佛教』1, 東京, 中山書房佛書林, pp.2-74.

1991-3

『長部(Dīgha-Nikāya) 第二 沙門果經(Sāmaññaphala-sutta)』『原始佛教』2, 東京, 中山書房佛書林, pp.2-71.

1991-4

『長部(Dīgha-Nikāya) 第三 アンバツタ經(Ambaṭṭha-sutta)·第四 ソーナダング經(Sonadaṅga-sutta)』『原始佛教』3, 東京, 中山書房佛書林, pp.2-90.

1992

『長部(Dīgha-Nikāya) 第五 クタダಂತ經(Kūṭadanta-sutta)·第六 마ハリ經(Mahāli-sutta)·第七 ジャーリヤ經(Jāliya-sutta)』『原始佛教』4, 東京, 中山書房佛書林, pp.2-90.

1993-1

『長部(Dīgha-Nikāya) 第八 大獅子吼經(Mahāsīhanāda-sutta)·第九 ポッタパダ經(Poṭṭhapāda-sutta)·第十 스바經(Subha-sutta)』『原始佛教』5, 東京, 中山書房佛書林, pp.2-128.

1993-2

『長部(Dīgha-Nikāya) 第十一 케ヴァッタ經(Kevaṭṭa-sutta)·第十二 로히ッチャ經(Lohicca-sutta)·第十三 三明經(Tevijja-sutta)』『原始佛教』6, 東京, 中山書房佛書林, pp.2-117.

1994

『長部(Dīgha-Nikāya) 第十四 大譬喻經(Mahāpadāna-sutta)·第十五 大因緣經(Mahānidāna-sutta)』『原始佛教』7, 東京, 中山書房佛書林, pp.4-150.

가타야마 이치로 교수는 계속해서 『長部』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번역을 해나갈 예정이다. 현대어적인 표현과 주석서를 참고로 하여 주석을 달고 있다는 점이 참고삼을만 하다.

• 『長阿含經』에 대한 註記

다음의 『장아함경』에 대한 註記는, 한역 아함경에 대한 번역에, 자세한 註記를 부가하여 새로이 시도하고 있는 한역 경전의 번역작업의 성과이

다. 현대 일본어 번역은 아니지만 註와 補註는 본문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1권의 모리 쇼지(森章司) 교수의 장아함경을 중심으로 한 초기경전에 대한 해제도 아함경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長阿含經 I』 三枝充惠, 森章司, 菅野博史, 金子芳夫 校註, 東京, 大藏出版, 1993.

장아함경 全30經 가운데 12경에 대한 校註, 수록된 경전은 다음과 같다.

1. 『大本經』, 2. 『遊行經』, 3. 『典尊經』, 4. 『閼尼沙經』, 5. 『小緣經』, 6. 『轉輪聖王修行經』, 7. 『弊宿經』, 8. 『散陀那經』, 9. 『衆集經』, 10. 『十上經』, 11. 『增一經』, 12. 『三聚經』.

『長阿含經 II』 菅野博史 校註, 東京, 大藏出版, 1994.

『長阿含經 I』에 이어지는 작업으로 수록된 경전은 다음과 같다.

13. 『大緣方便經』, 14. 『釋提桓因問經』, 15. 『阿菟夷經』, 16. 『善生經』, 17. 『清淨經』, 18. 『自歡喜經』, 19. 『大會經』, 20. 『阿摩晝經』, 21. 『梵動經』, 22. 『種德經』, 23. 『究羅檀頭經』, 24. 『堅固經』, 25. 『偈形梵志經』, 26. 『三明經』, 27. 『沙門果經』, 28. 『布吒婆樓經』.

3.4. 초기불교 및 팔리불교 연구의 전개

초기불교 및 상좌부불교의 교리에 대한 연구는 주요 연구자들의 주요 저작을 통해 살펴 보려고 한다.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현재 일본 불교학계에서는 조금 침체되어 있는 듯하다. 그러나 지금도 계속 새로운 해석과 번역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그런 연유로 일본의 근대 불교학의 성립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교리 연구 전체를 망라해서 소개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따라서 연구기를 대략 3기²¹⁾로 나누어 각 시기의 주요 학

21) 여기서 제시하는 시기의 구분은, 필자가 각 시기의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분류해 본 것이다. 제1기에 활동하던 미즈노 고겐(水野弘元) 박사와 사토 미츠오(佐藤密雄) 박

자들에 의한 중요 논저를 중심으로 알아 보려고 한다.²²⁾

3.4.1. 제1기. 원전번역 및 교학 연구의 定礎

— 明治·大正·昭和初期(1900~1930년대)

영국과 독일에서 7년 간의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다카쿠스 준지로(高楠順次郎) 박사는, 팔리어학과 율장 연구 등의 초석을 다지며 많은 유수한 제자들을 양성해내었다. 다카쿠스 박사의 팔리불교연구의 선구자적인 공적을 기념하기 위해 기획된 『南傳大藏經』의 번역은 일단 제1기를 대표하는 연구 성과라 할 수 있다.

초기불교 및 상좌부 불교 교리 연구의 최초의 연구 성과는 아네자키 마사하루(姉崎正治) 박사의 『現身佛과 法身佛』(1904), 『根本佛教』(1910)의 두 저술이다. 전자는 인간 고타마 붓다의 인격에 대한 해명에, 후자는 四聖諦의 교설에 대한 해명에 중점을 둔 연구이다. 이 두 저술은 메이지 시대 교리 연구의 대표적인 성과이다.

이어서 초기불교 및 아비달마 연구에 공적을 남긴 학자는 기무라 타이켄(木村泰賢) 박사이다. 『阿毘達磨論의 研究』(1911), 『原始佛教思想論』(1921), 『小乘佛教思想論』(1927)으로 이어지는 박사의 연구는, 폭넓으면서도 직관적인 교리 해석 방법으로 유명하다.

기무라 타이켄(木村泰賢) 박사와 동기이며, 다카쿠스 문하의 대표적인 인도학·불교학자이자, 초기불교 교리 연구에도 획기적인 족적을 남긴 사람은 우이 하쿠쥬(宇井伯壽) 박사이다. 박사는 6권의 印度哲學研究라는 저술을 통해 인도철학과 불교학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 연구 업적을 남겼다. 그 가운데 초기불교에 대한 연구 업적은 『印度哲學研究』 2,3,4권에 실려 있다. 각 권에 실린 하나 하나의 논문들은 박사 이후의 연구에 지대

사 등은 현재도 연구·저술 활동을 계속하고 있어서 특별하게 어느 시기에 배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각 시기에 발표된 주요 연구 성과를 보면 어느 정도 시기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구분해 본다.

22) 간행서를 중심으로 한 원시불교 연구 성과에 대한 정리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였다. 中祖一誠 「わが國における原始佛教研究の成果-刊行書を中心として-」 『名著通信』 第20號, 東京, 名著普及社, 1978, pp.2~6.

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佛滅年代論, 원시불교자료론, 십이인연의 해석, 六師外道 및 六十二見에 대한 연구, 팔정도를 중심으로 한 수행도에 대한 연구, 근본불교에 대한 정의 및 연구, 아쇼카왕 碑文에 대한 연구 등은 이후 일본에서의 초기불교 연구의 주요 테마로 다루어지면서 주요한 연구 성과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우이 박사의 정밀한 문헌 고증적인 학문 방법은 이후의 일본 인도학·불교학계의 학적인 흐름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초기불교 연구에서 중요한 인물의 한 사람은 와츠지 데츠로(和辻哲郎) 박사이다. 철학자이며, 일본을 대표하는 윤리학자인 박사는 우이 하쿠쥬(宇井伯壽) 박사의 십이연기 해석을 더욱더 논리적으로 해명하려는 시도를 기울여 緣起說 이해에 뚜렷한 한 획을 그었다. 『原始佛教의 實踐哲學』(1927)이 대표적인 초기불교 연구 성과이다.

같은 시대에 大谷대학에서는 아카누마 지젠(赤沼智善) 교수가 연구 활동을 하며, 원시불교연구에 공헌을 하였다. 『阿含의 佛教』(1921), 『漢巴四部四阿含互照錄』(1929), 『原始佛教之研究』(1939) 등을 통한 연구 업적은 이후 大谷대학을 중심으로 한 초기불교 및 상좌부 불교 연구의 흐름을 형성하였다.

위의 와츠지 데츠로·우이 하쿠쥬, 기무라 타이켄, 아카누마 지젠 등의 학자들에 의한 연기설에 대한 해석을 둘러싼 논쟁은 일본에서의 초기불교 연구의 전개에 특기할만 한 사건으로 전해지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각 학자들의 저술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처럼 교리 연구에 중점을 두고 연구 업적을 남긴 학자 외에 팔리 삼장에 대한 연구를 통한 초기불교 및 상좌부 불교 연구에 공헌한 학자는 나가이 마코토(長井眞琴) 박사이다. 다카쿠스 준지로 박사의 팔리어 부문을 이은 나가이 박사는 善見律毘婆沙의 漢巴 비교연구, 漢譯 解脫道論과 팔리어의 淸淨道論의 비교연구 및 율장 부분에 대한 연구를 남긴다. 이러한 팔리 三藏에 대한 연구는 제자 미즈노 고겐(水野弘元) 박사로 이어졌다.

미즈노 박사는 팔리불교 연구에서 일본을 대표하는 연구자로서 초기의 연구 업적은 주로 팔리 논장을 중심으로 발표되었다. 『淸淨道論』 3卷(1937, 1938, 1940)을 비롯한 번역에 의한 연구 활동과 『南方上座部論書解

說』(1934)을 비롯한 팔리 문헌에 대한 해설적인 연구·소개가 중심적인 연구성과이다.

이외에 많은 학자들이 초기불교 및 상좌부 불교 연구에 활약하였는데, 이 시기에 일본 불교학의 역사적인 사업인 『南傳大藏經』 65권 70책의 번역(1935~1941)이 완성되었다. 이 시기에는 이른바 근대적인 불교연구 방법론에 대한 정초작업과, 그러한 방법론에 따른 연구 성과들이 제시되어 다음 시기의 불교학 연구의 발판을 다져 놓았다.

3.4.2. 제2기. 초기불교 연구의 전성기 — 1940~1960년대

제1기의 연구 성과에 이어 제2기에서는 본격적인 연구 성과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 시기의 연구 업적들 가운데에는 세계적인 연구 성과로 꼽히는 것들도 있다. 또한 당시의 연구자들이 아직도 연구 활동을 계속해 나가면서 일본의 초기불교 및 상좌부 불교 연구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시기를 대표하는 불교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미야모토 쇼손(宮本正尊) 박사는 中道사상에 대한 독특한 해석으로 자신의 불교학을 전개시켰다. 『根本中과 空』(1943), 『중도사상 및 그 발달』(1944) 등의 저술을 통해서 중도 사상을 중심으로 한 근본불교주의를 주장하였다.

기무라 다이켄 박사의 아비달마 연구의 뒤를 이은 니시 기유타(西義雄) 박사는 심성본정설(心性本淨說)을 바탕으로 하여 초기불교, 아비달마, 대승불교를 연구하였으며, 박사의 학위논문인 『원시불교에서의 반야의 연구』(1953)라는 초기불교에 대한 저술을 남겼다.

제1기에 이어서 제2기에서의 미즈노 고젠 박사의 연구활동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팔리 삼장에 대한 이어지는 연구와 교리 문제에 대한 연구, 팔리어 문법(1955) 및 남전대장경 총색인(1959) 그리고 1949년 제출한 미즈노 박사의 학위논문을 15년에 걸쳐 보충하여 발표한 『팔리불교를 중심으로 한 불교의 心識論』(1964)은 현재에 까지 이른바 심식론의 분야에서 팔리불교 교리 연구의 하나의 정점을 이루고 있다. 이어서 발표된 팔리어사전(1968)은, 팔리어 문법과 함께 현재 일본에서 팔리어를 공부하는 이들에게, 없어서는 안되는 기본적인 참고서적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사토 미즈유(佐藤密雄) 박사도 제1기에 남전대장경 번역 작업에서 『論事』(1933)의 붓다고사 주석을 번역하는 등 팔리불교를 연구해 왔으며, 제2기에 들어서서는 박사의 학위논문인 『원시불교 교단의 연구』(1963)를 발표, 초기불교교단 연구의 하나의 성과를 제시했다.

후나하시 잇사이(舟橋一哉) 박사의 『원시불교사상의 연구』(1952)는 아카누마 지젠 교수의 원시불교 연구를 잇는 연구 성과이다. 이어서 『업의 연구』(1954), 『구사론의 원전해명 世間品』(1955) 등의 구사론에 대한 연구가 야마구치 스스무(山口益) 박사의 지도 아래 이어졌다. 후나하시 잇사이 박사의 원시불교에 대한 이해는 기본적으로 아카누마 지젠 교수와 그 노선을 함께 한다. 하지만 연기설에 대한 부분에서는 약간 이해를 달리했다. 이른바 전통적인 입장에서 연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12연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약간 이해를 달리했다. 아카누마 교수가 연기를 「一切法因緣生の 緣起」와 「有情數緣起」의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이해하고 있는 데 대하여²³⁾, 후나하시 박사는 이 두 가지 범주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법칙인 「일체법인연생의 연기」가 구체적으로 有情의 생사에 관련될 때는 「有情數緣起」로 적용된다고 하면서 두 범주가 결국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²⁴⁾

나카무라 하지메(中村元) 박사의 원시불교에 대한 연구는 中村元選集 原始佛教 시리즈 5권(1969~1972)으로 일단 정리되어 발표된 후, 최근의 決定版選集에서 다시 연구를 보충하여, 원시불교 시리즈는 모두 8권으로 정리되어 발표되고 있다. 박사의 연구에 대해서는 저술 소개에서 어느 정도 다루고 있으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구모이 쇼젠(雲井昭善) 박사는 大谷대학과 東京대학에서 원시불교를 연구한 후, 일본어로서는 최초의 본격적인 팔리어사전(1961)을 집필하고, 학위논문으로 『불교흥기시대의 사상연구』(1967)를 발표했다. 본서는 원시불교 연구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연구성과로 불교발생의 사회적 사상적 배경에 대한 연구의 효시가 되었다.

히라카와 아키라(平川彰) 박사는 원시불교 연구에서의 律藏의 연구와

23) 赤沼智善 『佛教教理之研究』(1939) pp.30~40.

24) 舟橋一哉 『原始佛教思想の研究』(1952) pp.72~77.

교단사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율장을 중심으로 한 연구성과를 발표했다. 『율장의 연구』(1960), 『원시불교의 연구-교단조직의 원형』(1964) 등이 그 성과이며, 이 연구는 계속 이어져서 『平川彰著作集』 총 17권에서 율장에 대한 연구가 9권을 차지하게 된다. 다카쿠스 준지로 박사, 나가이 마코토 박사에 의해 이어지는 율장의 연구²⁵⁾가 히라카와 아키라 박사에게서 꽃을 피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大谷대학의 사사키 겐준(佐佐木現順) 박사는, 『아비달마사상 연구』(1958), 『불교심리학의 연구-아타살리니의 연구』(1960) 등의 南北傳 아비달마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하야시마 교쇼(早島鏡正) 박사는 이 시기에 학위논문인 『초기불교의 사회생활』(1964)이라는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본 연구는 팔리불교에서의 실천론을 중심으로 한 연구로 초기불교에서의 수행론에 대한 연구는 다나카 교쇼(田中教照) 박사에 의해 이어져 온다.

마에다 에카쿠(前田惠學) 박사는 이 시기를 대표할만한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원시불교성전의 성립사적 연구』(1964)가 바로 그 연구이다.

후지타 코타츠(藤田宏達) 박사는, 50년대 당시 東京대학에서 마에다 에카쿠 박사와 쌍벽을 이루던 초기불교 연구가이다. 박사의 초기불교 연구 성과가 정리되어 출판된 것은 없지만 50년대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발표된 박사의 논문은 한편 한편이 비중 있는 연구 성과로 알려져 있다. 초기불교 연구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연구 성과는 지금부터 초기불교를 연구하려는 이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초기불교 교단사 연구에 중요한 연구 업적을 남긴 학자의 한 사람으로 츠카모토 게이쇼(塚本啓祥) 박사를 들지 않을 수 없다. 『초기불교교단사의 연구』(1966)와 이어지는 초기불교 및 부파불교 교단사, 아쇼카왕에 대한 연구는 이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로 평가된다.

25) 붓다고사의 팔리 율장의 주석서 Samantapāsādikā(漢譯:善見毘婆沙. London, PTS 1924~1947)는 다카쿠스 준지로 박사, 나가이 마코토 박사, 미즈노 고겐 박사에 의해 原典 批評的 校訂本이 출판되었다. 하지만 율장에 실질적인 대한 연구는, 히라카와 아키라 박사에 의해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Samantapāsādikā에 대한 연구는 세계적으로 여전히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의 연구가 기대되는 분야의 하나이다.

이상 1940년대에서 1960년대에 이르는 30년 간의 초기불교 및 팔리불교 연구에 대표적인 연구 성과를 남긴 학자들의 연구 동향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실로 이 시기는, 명실상부하게 초기불교 및 팔리불교 연구의 전성기로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도 못한 연구 성과를 낸 시기이다. 이후, 70년대에 들어서서도 초기 및 팔리불교 연구는 이어지나 이 시기만큼의 연구 성과는 나오고 있지 않은 채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3.4.3. 제3기. 연구의 지속 및 새로운 방향의 모색

— 1970년대~현재

제1기와 제2기에 이어서 7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는 제3기에 이르러서도 초기불교 및 팔리불교 연구는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 분야에 대한 연구자의 숫적인 감소와 연구 영역에 대한 어느 정도의 연구 진척 등으로 일본의 초기불교 및 팔리불교 연구는 새로운 국면에 놓여 있다고 하겠다.

기본적인 초기정전에 대한 번역이 『남전대장경』의 번역 사업에 의해 일단 마무리가 되었고, 주요 교리에 대한 연구나 율장 및 교단사에 대한 연구도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 되었다. 이제 초기불교 및 팔리불교를 연구하려면, 새로운 방법론이나 기존에 연구되지 않은 새로운 분야에 대해 다루지 않으면 안되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이 시도되는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초기불교와 동 시대 沙門의 사상과의 비교연구. 특히 자이나교와 마하바라타와 같은 서사시 가운데에서 비교적 성립이 이른 부분(解脫法品 등)과의 비교 연구. 또는 비교사상적인 입장에서 현대의 사상과 불교와의 비교 연구.

2. 불교 내부 교리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불교가 전파되던 시대와 지역의 문화적인 배경을 밝힘으로써 초기불교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려는 시도와, 현재의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남방불교 국가에서의 불교에 대한 문화인류학 또는 불교인류학적인 연구.

3. 이른바 해석학적인 입장에서 불교교리를 현대적인 의미로 재음미하

려는 입장.

4. 기존의 번역에 대해 현대어적인 새로운 번역을 시도하는 연구와 기존의 교리이해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팔리 주석문헌에 대한 연구.

이상 필자 나름대로 서너 조목으로 나누어 70년대 이후의 초기불교 및 팔리불교 연구의 새로운 연구 경향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물론 위에 열거한 새로운 시도들을 한 학자가 함께 시도한 경우도 적지 않아, 각 방법에 대한 엄밀한 구분은 어려운 점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한다.

비교연구 또는 비교사상의 방법에 의한 연구 성과로 대표되는 학자로는 나카무라 하지메(中村元) 박사를 들 수 있다. 이미 60년대부터 비교사상의 방법을 도입하면서 불교뿐만 아니라 인도사상 전반에 걸친 연구를 해 온 나카무라 박사는 초기불교 연구에서도 베다와 우파니샤드 그리고 자이나교 등에 대한 연구 성과를 응용하면서 논문을 발표해왔다. 그 성과들이 엮여져서 『베다의 사상』(1989), 『우파니샤드의 사상』(1990), 『사상의 자유와 자이나교』(1991) 등이 출판 되었다. 나카무라 박사는 또한 초기불교 경전의 현대어 번역에도 주력하여 『붓다의 말씀-숫타니파타』(1958)와 『진리의 말씀-담마파다』(1978) 등의 주요 초기경전을 번역하였다. 자세한 번역상황은 박사의 저술 소개란을 참고하기 바란다.

비교사상의 관점에서 초기불교 내지 불교를 연구한 학자로는, 다마키 고시로(玉城康四郎) 박사와 사이구사 미츠요시(三枝充恵) 박사가 있다. 다마키 박사는 『비교사상논구』(1985)에서 원시불교와 기독교의 비교연구를 시도했다. 사이구사 박사도 비교사상논집 전3권(1982, 1983)에서 폭넓은 시야로 불교와 서양사상을 비교 연구하였다.

초기불교와 자이나교의 비교 연구로는 大谷대학의 나가사키 호준(長崎法潤) 박사의 논문들이 있다. 박사의 「팔리불교 연구와 자이나교 연구」(1990)는 이 분야의 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가 될 것이다. 또한 나가사키 박사는 「해외에서의 불교연구자의 시점-방법론을 중심으로」(1993)라는 논문에서 최신의 두 가지 연구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한 가지는 「사회학·문화인류학의 방법에 의한 불교연구」이고, 다른 한 가지는 불

교해석학의 방법이다. 서구와 일본의 최근 불교연구 경향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논문이다.

마에다 에카쿠(前田惠學) 박사의 경우, 『원시불교성전의 성립사적 연구』(1964)를 발표한 이래 주로 스리랑카를 중심으로 한 상좌부 불교 국가에 대한 문화적인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편저서인 『현대 스리랑카의 상좌불교』(1986)에 발표된 박사의 6편의 논문과 「팔리문화권의 전망」(1990) 등에서 볼 수 있는 박사의 연구 성과에서 70년대 이후 박사의 연구 경향을 엿볼 수 있다.

초기불교 및 팔리불교에 대한 문화사적인 연구의 대표적인 학자로는 駒澤대학의 나라 야스아키(奈良康明) 박사를 들 수 있다. 초기불교에 대한 박사의 논문 대부분은 인도불교문화의 바탕하에서 불교를 이해하려는 연구임을 알 수 있다. 主著인 『불교사 I 인도』(1979)도 이러한 입장에서 서술된 인도불교사이며, 공저인 『붓다의 세계』(1980)에서의 박사의 인도불교에 대한 서술 방법도 문화사적인 입장에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라 야스아키 박사의 지도로 작년에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한 金漢益 박사(梧震스님)의 『원시불교성전에 있어서 업, 윤회사상의 문화사적 연구』(1993)²⁶⁾도 원시불교에 대한 문화사적인 연구 성과 가운데 하나이다.

大谷대학의 사사키 교고(佐佐木教悟) 박사는 계율 및 상좌부불교에 대한 연구는, 『인도·동남아시아불교연구 I 계율과 승가』(1985), 『인도·동남아시아불교연구 II 상좌부불교』(1986), 『인도·동남아시아불교연구 III 인도 불교』(1987)의 세 권으로 정리되어 발표되었다. 계율연구를 바탕으로한 문화적인 연구 성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불교의 기원 문제에 대해서 문화사적인 연구 성과의 하나로 미야사카 유쇼(宮坂宥勝) 박사의 『불교의 기원』(1971)을 들 수 있다. 자세한 설명은 저술 소개를 참조하기 바란다.

駒澤대학의 가타야마 이치로(片山一良) 교수는 초기에는 주로 팔리 문법

26) 梧震스님(金漢益 박사)은 1993년, 『原始佛教における業, 輪廻思想の文化史的研究』로 駒澤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수여했다. 필자는 스님의 배려로 위 논문의 내용을 대략 살펴볼 수 있었고, 「박사학위논문 내용의 요지 및 심사결과의 요지」를 받아 참고할 수 있었다. 그 외에도 본 원고의 초고를 두 번에 걸쳐 자세히 검토해서 부족한 부분을 지도받을 수 있었다. 스님의 이러한 배려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학과 어학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다가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른바 불교 인류학이라는 새로운 연구방법에 의거해서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불교인류학-그 입장과 영역」(1990), 「불교인류학의 제창·교의와 의례는 모순되지 않는가」(1992)²⁷⁾의 두 논문을 참조하면 불교인류학이란 무엇인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초기불교 사상에 대한 연구에서 南北傳의 아비달마 교학은 무시할 수 없는 자료이다. 아비달마적인 해석 방식이, 모두 올바르게 초기경전의 내용을 해석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른바 아비달마 논서나 경전에 대한 주석서들이 저술되던 당시의 소속 부파의 사상을 통해, 초기불교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비달마 연구는 여전히 초기불교 연구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또한 중관사상이나 유식사상에 대한 기초학으로서의 아비달마(특히 北傳의 논서)는 필수 불가결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런 점에서 전통적으로는 북전의 有部 계통의 아비달마 강요서인 『俱舍論』에 대한 연구는 중국, 한국, 일본에서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구사론』의 산스크리트 원전이 1967년 인도의 프라단 교수에 의해 출판되자 일본에서의 구사론에 대한 문헌비평적인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본고에서는 아비달마 문헌은 남전 팔리문헌에 한정시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북전 아비달마에 대해서는 자세한 조사는 생략하지만 주요한 연구 성과 몇 가지만 든다면 다음과 같다.

후나하시 잇사이(舟橋一哉) 박사의 『업의 연구』(1954)와 『구사론의 원전 해명 세간품』(공저, 1955)에 이어지는 『구사론의 원전해명 업품』(1987).

사쿠라베 하지메(櫻部建) 박사의 『구사론의 연구 界·根品』(1969), 『존재의 분석』(1969).

히라카와 아키라(平川彰) 박사의 『구사론색인』(공저, 3부, 1973, 1977, 1978), 『原始佛教와 아비달마불교』(1991) 内の 제3편 「아비달마불교」(pp.365~525).

사사키 겐준(佐佐木現順) 박사의 『아비달마사상연구』(1958)에 이어지는

27) 본 논문은 다음 책에 실려 있다.

奈良康明監修 『ブッダから道元へ』 東京, 東京書籍株式會社, 1992, pp.389~394.

『업론의 연구-順正理論·업품의 해명』(1990).

남전의 아비달마 및 주석문헌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사사키 겐준(佐佐木現順) 박사의 『불교심리학의 연구』(1960, 1990)와 『사라상그라하』(ed. 1992).

사쿠라베 하지메(櫻部建) 박사의 「팔리아비달마 연구-그 과거와 현재」(1990).

東北대학의 무라카미 신칸(村上眞完) 박사와 오이카와 신카이(及川眞介) 박사의 공동 번역이며 연구 성과인 스타니파타 주석서 『파라마타타조티카』의 번역·연구(1985~1990).

모리 소토(森祖道) 박사의 『팔리불교 주석문헌의 연구』(1984), 같은 제목의 영문 논문집(1989) 이 외의 주석문헌에 대한 여러 연구는 이 분야에서의 문헌학적 연구의 선구적인 연구 성과이다.

나니와 센묘(浪花宣明) 박사의 팔리 주석서에 대한 논문들과 『재가불교의 연구』(1987).

아비달마에 대한 연구는 대개 남북전 아비달마에 대한 비교연구의 형태로 진행되어 오고 있다. 특히 초기불교와 초기 아비달마에서의 수행도론에 대한 연구로는 다나카 교쇼(田中教照) 박사의 『초기불교의 수행도론』(1993)이 있으며, 이 외에도 남북전 아비달마불교의 교리에 대한 비교 연구가 많이 있다.

초기불교 교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나 보다 심도있는 연구를 한 학자들도 많이 있어 초기불교 교리 이해에도 아직 남아 있는 과제가 많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히라카와 아키라(平川彰) 박사의 『법과 연기』(1988)는 박사가 계속해서 연구해온 두 개념에 대한 정리로써 「法」과 「緣起」라는 개념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내놓을 수 없는 연구 성과이다.

다마키 고시로(玉城康四郎) 박사의 『불교의 사상 1-원시불교』는 박사의 원시불교에 대한 주요 논문이 정리된 연구 성과이며, 이 외의 논문들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다마키 박사의 연구는 자신의 독특한 불교체험에 근거한 교리 해석이 많아서 일본 불교학자로서는 보기 드문 성격의 논문을 발표

해오고 있다. 「심해탈·해해탈에 관한 고찰」(1985), 「연기의 眞意-원형에의 복귀」(1993)라는 논문도 이러한 연구 성과의 하나이다.

하야시마 교쇼(早島鏡正) 박사의 초기불교의 실천론에 대한 논문이 『초기불교의 실천과 전개』(1992)에 정리되어 발표되었으며, 깨달음에 대한 연구논문들은 『초기불교의 깨달음』(1994)으로 정리되어 출판되었다.

사이구사 미츠요시(三枝充應) 박사의 『초기불교의 사상』(1978)과 연기설에 대한 일련의 연구(1981)는 엄밀한 문헌 고증에 입각하여, 경전성립사적인 연구의 배경하에 이루어낸 연구 성과이다. 연기설에 대한 이해의 방식에 차이가 있어 벌어진 誌上 논쟁에 대한 모음집인 『초기불교의 연기설을 둘러싼 논쟁』(1980)은 다시 한번 연기설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을 반증하는 자료가 될 것이다. 이점에 대해서 다마키 고시로(玉城康四郎) 박사는 「연기의 眞意-원형에의 복귀」(1993)라는 논문을 최근에 발표하면서 연기설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 할 것을 피력하고 있다.

후지타 고타츠(藤田宏達) 박사의 70년대 이후 발표된 초기불교에 관한 연구도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연구 성과들임은 말할 것도 없다.

大正대학의 이시가미 겐오(石上善應) 교수의 초기불교 및 초기경전에 대한 여러 논문들도 참고삼을만하다.

東北대학의 무라카미 신칸(村上眞完) 교수의 行에 대한 일련의 연구인 「諸行考 I-IV 원시불교의 心身觀」(1987~1990)은 行이라는 개념에 대한 중요한 연구 성과이다. 무라카미 박사는 「산스크리트 本城邑經-십이지연기와 십이지연기」(1971)에서 연기설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했다.

京都대학의 아라마키 노리토시(荒牧典俊) 교수의 초기경전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연구들은 이른바 고타마 붓다의 육성으로서의 가르침을 규명하려는 연구로써 평가받고 있다.

東洋대학의 모리 쇼지(森章司) 교수의 초기불교에 대한 연구는 차분한 자료정리와 정리된 자료에 입각한 세밀한 연구로 유명하다. 「無常·苦·無我」에 대한 일련의 논문들(1971, 1972-1, 1974, 1990)과 緣起에 대한 논문(1984, 1992), 四諦에 대한 논문(1972-2, 1978), 오온 및 인간관에 대한 논문(1972-3, 1988, 1989), 수행도에 대한 논문(1979) 그리고 최근의 계율에 대한 연구의 산물인 편저서 『계율의 연구』(1993) 등이 대표적인

연구 성과이다. 모리 교수의 기존의 연구 논문들이 『원시불교에서 아비달마불교에의 불교교리의 연구』(1995)라는 제목으로 정리되어 출판되었다.

하야 다츠오(羽矢辰夫) 교수의 「원시불교의 생멸법」(1982, 1984), 無記, 空, 無我(非我)에 대한 연구도 무아설이나 無記라는 개념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 의한 연구 성과이다.

끝으로 에노모토 후미오(榎本文雄) 교수의 三明에 대한 논문(1982), 漏에 대한 논문(1983)은 각각의 개념에 대한 중요한 연구 성과이며, 산스크리트 단편 자료를 이용한 초기불교 연구에도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3.5. 최근의 연구 동향

초기불교 및 팔리불교에 대한 최근의 연구 동향은 3.4.3.의 제3기 연구의 지속 및 새로운 방향의 모색 부분에서 대략적으로나마 최근의 연구 동향이 밝혀졌으리라 생각하여 자세히는 다루지 않겠으나,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초기불교와 동 시대 沙門의 사상과의 비교연구. 특히 자이나교와 마하바라타와 같은 서사시 가운데에서 비교적 성립이 이른 부분(해탈법품 등)과의 비교연구. 또는 비교사상적인 입장에서 현대의 사상과 불교와의 비교연구.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팔리어는 물론 산스크리트어와 자이나교 성전어인 아르다 마가디어 등의 프라크리트어에 대한 습득이 필요하다.

2. 불교 내부의 교리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불교가 전파되던 시대와 지역의 문화적인 배경을 밝힘으로써 초기불교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려는 시도와 현재의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남방불교 국가에서의 불교에 대한 문화인류학 또는 불교인류학적인 연구.

3. 기존의 번역에 대해서 현대어적인 새로운 번역을 시도하는 연구와 기존의 교리 이해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팔리 주석문헌에 대한 연구.

이러한 연구 동향 아래 일본에서의 초기불교 및 팔리불교 연구는 계속

이어져 나갈 것이다.

4. 초기불교 및 남방상좌부 불교 연구의 중심적인 인물과 論著²⁸⁾

4.1. 高楠順次郎(다카쿠스 준지로, 1866-1945)

淨土眞宗 本願寺派. 불교학자이며, 교육가. 明治23년(1890) 渡英, 옥스퍼드의 Max Müller에게 師事하여 인도학을 배움. 1897년 귀국, 東京帝國大學에서 梵文學을 강의.

난조 분유(南條文雄), 望月信亨 박사와 함께 『大日本佛教全書』 151冊, 『우파니샤드全書』 9권, 渡邊海旭 박사와 함께 『大正新修大藏經』 100권, 프랑스의 S. Levi 박사와 함께 『法寶義林』 4권, 그리고 『南傳大藏經』 65권 70책 등을 출간했다.

이외의 저술은 『高楠順次郎全集』 12권(東京, 教育新潮社, 1977-1978)에

28) 明治 이래 초기불교 및 남방상좌부 불교를 연구한 인물과 論著를 전부 망라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적은 수의 논저를 낸 인물도 있고, 자신의 주 전공이 초기불교 및 남방상좌부 불교가 아닌 인물의 연구도 적지 않아, 필자는 본논문의 주제인 연구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연구자와 그들의 연구 업적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본논문의 3장이나 여기 4장에 소개되지 않은 논저 가운데에도 초기불교 및 남방상좌부 불교 연구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은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연구사 이해에 중요하지만 본논문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인물이나 논저가 있다면, 그것은 그 연구 성과들이 가치가 적거나 없어서가 아니라, 필자의 건론의 부족함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독자들의 충고의 말씀을 바라며, 보다 충실한 보충판을 기약하고자 한다.

인물을 소개할 때 확인이 가능한 한, 각 인물의 소속 종파를 기입해두었다. 학문적인 전공이 초기불교 및 팔리불교라 하더라도 그가 속해 있는 종파의 연구도 병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며, 때로는 초기불교 연구와 관련해서 자신이 속한 종파의 입장을 세우려는 학자들도 있기 때문에 소속 종파가 무엇인지 아는 것은 그 학자의 기본적인 에토스를 아는 것과도 직결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다음에 소개하는 인물들의 논저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초기불교 및 팔리불교에 대한 연구 업적만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기 바란다.

초기불교 및 팔리불교에 대한 논문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목록을 참고하기 바람.

『佛教學關係雜誌論文分類目錄』(龍谷大學佛教學研究室編) II(京都, 百華苑, 1986 覆刻2版), pp.138~153, III(京都, 永田文昌堂, 1986 増補版), pp.93~107, pp.147~148, IV(京都, 永田文昌堂, 1986), pp.163~207.

수록되어 있다. 全集 제6권에 「明治佛教の大勢」와 「明治佛教に影響を與えた西洋の佛教學者」의 두 논문을 통해 메이지 불교를 조망해 볼 수가 있다. 東京帝大에서 『梵文學教科書』(1898)로 梵語를 가르칠 때 저술한 『巴利語佛敎文學講本』(東京, 金港堂書籍, 1900年)은 당시 팔리어 교과서로 쓰였으며, 1908년 이후의 팔리어 담당은 제자인 나가이 마코토 박사가 맡았다.

일본에서 이른바 문헌학적 연구에 바탕을 둔, 근대적인 학문 방법론에 의한 초기불교 연구는 다카쿠스 준지로 박사에 의해 비롯되었다. 다카쿠스 준지로 박사는 유학 초기에 영국의 옥스포드대학에서 막스 뮐러(F. Max Müller:1823~1900)의 지도하(1890~1894)에 산스크리트어를 중심으로 라틴어, 희랍어 등의 서양 고전어와 한역 불전의 영역(『佛說無量壽經』 『南海寄歸內法傳』) 등의 작업을 하였다. 당시는 영국을 중심으로 리스 데이비스(Rhys Davids:1843~1922)에 의해 1882년 창립된 Pali Text Society가 팔리 원전의 출판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을 때였으므로 다카쿠스 준지로 박사도 그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다카쿠스 준지로 박사의 팔리어 연구는 옥스포드 졸업 후, 독일의 킬(Kiel)대학으로 가서 헤르만 올덴베르크(Hermann Oldenberg:1854~1920)의 지도하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다카쿠스 준지로 박사의 당시의 연구과제는 붓다교사의 팔리 율장의 주석서 Samantapāsādikā(漢譯:善見律毘婆沙)의 번역이었으나 全譯은 하지 못하였다고 한다.(漢譯의 善見律毘婆沙는 후에 히라카와 아키라(平川彰) 박사와 인도 푸나대학의 바파트(P.V. Bapat)박사에 의해 영역됨. Shan-Chien-P'i-P'o-Sha: a Chinese Version by Sanghabhadra of Samanta-pāsādikā, Poona, 1970)

근대 일본 불교학계 최초의 유학자인 난조 분유(南條文雄:1845-1927) 박사가 막스 뮐러의 도움을 받아 한 작업 가운데 하나가, 당시에는 영국에 알려져 있지 않은 漢譯佛典의 목록인 『大明三藏聖教目錄』의 작성이었다. 이와 같이 난조 분유(南條文雄) 박사에 의해 시도된 한문불교권의 서구에의 소개에 다카쿠스 준지로 박사도 업적을 남겼는데, 그것은 당시에 팔리어에서 한역된 불전은 없다는 설에 대하여, 학계에 반증의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비롯되었다. 즉 팔리 율장의 주석서 Samantapāsādikā의 서

문이 漢譯되어 「善見律毘婆沙」라는 이름으로 남아있음을 밝힌 후, 남방상좌부 불교의 藏外 불전 가운데 하나인 『밀린다광하』도 『那先比丘經』으로 漢譯되어 있음을 알리는 작업을 했다.

이처럼 유럽의 불교학을 배우고, 또 한편으로는 한역 불전과 팔리 불전과의 관계를 밝히기도 하면서 유학 생활을 마친 후 1897년 귀국, 1899년, 東京帝大 강사가 되었다. 이후 1927년(昭和 2년) 정년 퇴임할 때까지 우수한 제자들을 길러내었다. 長井眞琴, 木村泰賢, 宇井伯壽, 宮本正尊 그리고, 정년 퇴임 직전의 水野弘元 등의 제자들이 일본의 초기불교 및 팔리불교 연구의 초석을 다져 놓았다.

1900

• 『巴利語佛教文學講本』 東京, 金港堂書籍.

1905

‘The Abhidharma Literature of the Sarvāstivādins’, London, Pali Text Society, *Journal of the Pali Text Society* 1904~1905, pp.67~146.

본 논문은 說一切有部の 기본적인 아비달마 7론과 『大毘婆沙論』 『俱舍論』 등의 주요 논서에 대한 해설서로 漢譯되어 전해지는 유부 논서에 대한 본격적인 영문 입문서이다.

4.2. 荻原雲來(오기하라 운라이, 1869~1937)

1896년, 淨土宗學本校 졸업. 1897년, 淨土宗學本校 교수. 1899년 제 1회 정토종 해외 유학생으로 독일에 유학, 로이만박사에게 師事, 梵語學 전공. 1905년, 귀국, 宗教대학에 교편. 1911~1923년 東京帝大 강사. 1922년, 문학박사 학위 취득. 大正大學교수. 1929~1933년, 立正대학 강사.

오기하라 운라이 박사는 메이지 시대 근대 불교학에서 梵語學의 초석을 다지는 업적을 남긴다. 『俱舍論 稱友疏』(Yasomitra's Sphutartha Abhidharmakośavyākhyā), 『菩薩地論』(Bodhisattva-bhūmi), 『現觀莊嚴論』

(Abhisamayālamkāra-loka-prajñāpāramitā-vyākhyā), 『法華經』(Saddharma-puṇḍarīka)의 梵本 교정본의 출판과 『梵和大辭典』의 편찬이 바로 그 업적의 대표적인 것들이다.

오기하라 운라이 박사의 약력과 연구 업적에 대해서는 「荻原博士・赤沼教授の面影」(『佛教研究』第2卷 第2號, 佛教研究會編, 東京, 大東出版社, pp.165~180)과 下記의 『荻原雲來文集』의 저서 목록 참조.

1917

• 『印度の佛教』 東京, 丙午出版社.

1932~1936

• *Sphutartha Abhidharmakośavyākhyā*, 東京, 大正大學聖語學研究室. (東京, 山喜房佛書林, 1971, 覆刻版. 1990, 第3版覆刻)

1933

• 『稱友造阿毘達磨俱舍論疏和譯』 東京, 大正大學聖語學研究室.

1935-1

• 『釋迦牟尼聖訓集(Suttanipāta)』 東京, 大東出版社.

1935-2

• 『法句經(Dhammapada)和譯』 東京, 岩波書店.

1938

• 『荻原雲來文集』 東京, 大正大學, 荻原博士記念會.

본서는 오기하라 운라이 박사의 유고 논문집으로, 구성은 1. 인도문학에 관한 것, 2. 인도불교사에 관한 것, 3. 불교교리에 관한 것, 4. 불교성전론에 관한 것, 5. 불전번역에 관한 것, 6. 불교범어 연구에 관한 것, 7. 評論批議에 관한 것의 7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총 1044쪽에 달하는 대논문집으로 대승경론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지만, 아함경의 범어불전이나 팔리어불전에 대한 연구도 적지 않다.

南傳大藏經 번역에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1935

• 『增支部經典一』(Anguttara-nikāya)(南傳大藏經 第十七卷, 1971年, 再刊)

1936

• 『增支部經典 二』(南傳大藏經 第十八卷, 1971年, 再刊)

1937

- 『増支部經典 三』(南傳大藏經 第十九卷, 1971年, 再刊)
- 『増支部經典 四』(南傳大藏經 第二十卷, 1971年, 再刊)

4.3. 姉崎正治(아네자키 마사하루, 1873~1949)

明治-昭和시대의 종교학자. 京都 태생. 明治27년(1894), 東京帝國大學哲學科 졸업. 同 대학에서 종교학 강의. 1900년, 독일에 유학 도이센을 처음으로 하여, 울덴베르크, 가르베, 베버에게서 배운 후, 1902년, 영국으로 건너가 PTS의 리스 데이비스에게서 배움. 그리고 인도를 거쳐 3년간 유학 생활에서 돌아옴. 明治36년(1903), 『現身佛と法身佛』로 문학 박사 학위 받음. 1904년 同 대학 宗教學 강좌 초대 주임교수가 됨. 종교 특히 불교의 학적 연구에 진력. 『佛教聖典史論』(1899)을 비롯한 『根本佛教』 등의 여러 가지 저술이 초기불교 연구에 관한 것이며, 과학적이며 비판적인, 새로운 학문 방법론으로 유명.

아네자키 마사하루 박사의 약력과 연구 업적에 대해서는 増谷文雄 「姉崎正治の業績」(『宗教研究』 147, 東京, 日本宗教學會, 1956, pp.16~30)을 참조.

1899

- 『佛教聖典史論』 東京.

1904

- 『現身佛と法身佛』 東京, 有朋館. 1956년, 天理市, 養徳社, 改訂版(嘲風選集 第一卷).

1908

- *The Four Buddhist Āgamas in Chinese, A Concordance of Their Parts and the Corresponding counterparts in the Pali Nikāyas*, Tokyo.

1910

- 『根本佛教』 東京, 博文館. 1950년, 天理市, 養徳社(嘲風選集 第二卷), 개정판. 現代佛教名著全集 第2卷 東京, 潮友社, 1966년, 再録)

4.4. 立花俊道(다치바나 순도, 1877~1955)

曹洞宗. 駒澤대학 10代, 14代 학장. 明治36년(1903), 曹洞宗 大學林(駒澤대학의 전신) 졸업. 同年 11월부터 5년간 스리랑카에 유학, 팔리어, 산스크리트어, 초기불교를 배운 후 귀국, 曹洞宗 大學林 강사가 됨. 大正 7년(1918) 동남아시아를 돌아보고, 다음 해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 유학해서 『佛教倫理』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음. 귀국 후, 여러 대학에서 강의함.

팔리어 관계 저술로는 『巴利語文典』(1907)이 있고, 번역으로는 國民文庫刊行會의 『國譯大藏經』 가운데 일본에서는 최초로 팔리어에서 직역한 『法句經』(Dhammapāda), 『諸經要集』(Suttanipatā), 『長老偈』(Theragāthā), 『長老尼偈』(Therīgāthā), 『所行藏』(Cariyāpiṭaka), 律藏毘度部的 『大品』(Mahāvagga), 『小品』(Cūlavagga)이 있다.

立花俊道 박사는 당시 동경제대에서 팔리어를 가르치던 나가이 마코토 박사와 팔리어에서 쌍벽을 이루었다. 이 두 학자는 바로 당시 학생이었던, 현재 남방상좌부 불교학의 대가인 미즈노 고겐 박사의 팔리어 선생이었다.

1907

- 『巴利語文典』 東京, 丙午出版社. 1924년, 再版. 1927년, 3版.

1931

- 「パリー語の郷土」 『日本佛敎學協會年報』 第四號, 日本佛敎學協會, pp.115-133.

• 1942-1

- 「セイロンの佛敎」 『佛敎研究』 特輯 南方圈の宗教, 第6卷 第2・3號, 佛敎研究會編, 東京, 大東出版社, pp.70-92.

1942-2

- 「ビルマの佛敎」 『佛敎研究』 特輯 南方圈の宗教, 第6卷 第2・3號, 佛敎研究會編, 東京, 大東出版社, pp.93-114.

남전대장경 번역에는 다음의 경전이 있다.

1935

- 『小部部經典 六』 本生經(Jataka) 因緣物語(Nidana-kayhā) (南傳大藏經 第二十八卷, pp.1-203. 1972年, 再刊)

이외 자타카의 여러 부분에 대한 번역 다수.

1936

- 『小部部經典 十九』 佛種性經(Buddha-vamsa) (南傳大藏經 第四十一卷, pp.207~362. 1972年, 再刊)

1940

- 『相應部經典 四』 (南傳大藏經 第十五卷, 1971年, 再刊)
- 『相應部經典 五』 (南傳大藏經 第十六卷 上, 1971年, 再刊)

4.5. 長井眞琴(나가이 마코토, 1881-1970)

大正, 昭和시대의 불교학자. 불교학, 특히 남방불교, 팔리어, 인도불교 연구의 泰斗. 明治40년(1907), 東京帝大 哲學科(印度哲學專修) 졸업. 大正 12년(1924), 『律藏を中心とした根本佛典の研究』로 문학박사 학위 받음. 1931년-1941년 東京帝大교수 在任.

1922

- 『根本佛典の研究』 東京, 天地書房

1930

- 『獨習巴利語文法』 東京, 丙午出版社. (東京, 山喜房佛書林, 1977年, 第10版)

1936

- 『南方所傳佛典の研究』 東京, 中文館書店.

본서는 『根本佛典の研究』의 증보판의 성격을 띠고 있는 저술로서 박사의 연구성과를 정리한 논문집이다. 목차를 통해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第一, 善見律毘婆沙と「サマンタパーサーディカー」との對照研究 1
- 第二, 四禪定に就いて 58

- 第三, 巴利善見律序文和譯 67
- 第四, 根本律藏の研究 172
- 第五, 巴利律藏中の本生話的要素 204
- 第六, 解脫道論と「ヴィスッディマग्ガ」との對照研究 220
- 第七, 巴利(パーリ)語とは何ぞや 244
- 第八, 葷酒禁制の巴利典據 262
- 第九, 優婆塞五戒の研究 278
- 第十, 波羅提木叉中の二戒に就いて 298
- 第十一, 巴利論藏の成立に論の意義に就いて 311
- 第十二, 巴利佛教の特徴に就いて 320
- 第十三, 五逆罪の成立に就いて 342
- 第十四, 諸部戒本の對照研究及び諸部戒本對照表 353
- 第十五, 舍利供養に就いて 368
- 第十六, 佛典批判 375
- 第十七, 巴利原典の出版事業に就いて 389-390

이외 여러 저술이 있으며, 다카쿠스 준지로 박사, 미즈노 고젠 박사와 함께 原典 批評的 校訂本(Text Critical Edition)을 낸, 붓다고사의 팔리어장외 주석서 Samanta-pāsādikā(漢譯:善見律毘婆沙, London, Pali Text Society 1924~1947)²⁹⁾는 팔리성전 연구사에서 세계적인 업적의 하나이다.

4.6. 木村泰賢(기무라 다이켄, 1881~1930)

曹洞宗. 大正, 昭和시대의 인도철학 불교학자. 1903년 曹洞宗 大學林 졸업 후 東京帝大 입학 다카쿠스 준지로 박사에게 師事. 1909년, 東京帝大 哲學科(印度哲學專修) 졸업. 문학박사. 1919년-1922년까지 영국에 유

29) Samanta-pāsādikā의 原典 批評的 校訂本은 나가이 마코토 박사가 그의 스승 다카쿠스 준지로 박사와 제자 미즈노 고젠 박사와 함께 3대에 걸쳐 이루어낸 작업이다. 이 작업의 경과에 대해서는, 「學問の思い出-長井眞琴博士を圍んで」 『東方學』 30輯, 東京, 東方學會, 1965, pp.173~175.와 미즈노 고젠 박사의 「研究の回顧」 『パーリ文化學の世界』 東京, 春秋社, 1990, pp.272~273.를 참조.

학 리스 데이비스 등에게 배움. 1923년, 東京帝國대학 교수로 취임. 인도 철학과 설립 후 최초의 담당 교수가 됨. 불교학 인도철학 분야에 근대적 학문방법에 의한 선구적인 업적을 남김.

기무라 다이켄 박사의 저작 목록에 대해서는 西義雄, 「故木村泰賢教授の著作目録及びその解説」『宗教研究』新 7-4, 追悼號, 東京, 宗教研究編輯會, 1932, pp.219~231, 참조.

아래의 저술은 『木村泰賢全集』(전6권)으로 정리되어 출판된 것의 소개이다.

1911

- ・『阿毘達磨論の研究』東京, 明治書院. 1927, 増訂改版.(復刊:木村泰賢全集 第四卷, 東京, 大法輪閣, 1968년 1刷, 1982년 5刷) 기무라 다이켄 박사의 학위 논문.

본서는 南北傳 아비달마 논서의 성립과 사상에 대한 연구 논문집이다. 주로 北傳의 아비달마에 대한 연구이지만 상좌부의 논서에 대한 연구도 포함되어 있으며, 南北傳 아비달마의 비교연구도 있다. 『小乘佛教思想論』이 아비달마불교의 사상적인 내용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라 한다면, 본서는 아비달마 논서의 형식(Form)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목차를 통해 내용을 알아본다.

第一部 阿毘達磨論成立の經過に關する研究

| | |
|---|-----|
| 第一篇 阿毘達磨論一般の成立とその發達の概観 | 27 |
| 第一章 阿毘達磨の起源とその成立 | 27 |
| 第二章 阿毘達磨文學發達の大要 | 44 |
| 第三章 論書における問題の取扱い方の變遷 | 61 |
| 第二篇 舍利弗阿毘曇論と南方論部, 殊にその毘崩伽論および補特伽羅施設論との關係 | 73 |
| 第一章 總說 | 73 |
| 第二章 類似の例證, 差異点の性質およびその歴史的關係 | 89 |
| 第三章 舍利弗阿毘曇論の法相的地位を明らかにして いわゆる「分別論者」との關係に及ぶ | 128 |
| 第三篇 施設足論(Prajñaptiśāstra)の考證 | 143 |

| | |
|--|---------|
| 第一章 問題の所在とその研究法 | 143 |
| 第二章 現存施設論と大毘婆沙論引用句との合否に關する表 | 150 |
| 第三章 上表に基づいての結論 | 166 |
| 第四篇 大毘婆沙論結集の因縁について | 175 |
| 第一章 大毘婆沙論の結集に關する玄奘說を疑う | 177 |
| 第二章 大毘婆沙論編述の動機とその眞の編輯者 | 197 |
| 第五篇 俱舍論述作の參考書について | 213 |
| 第一章 大毘婆沙文學における俱舍論の地位 およびその述作の傳説に關する疑い | 213 |
| 第二章 俱舍論述作の參考書として阿毘曇心論より 雜阿毘曇心論まで | 222 |
| 第三章 雜阿毘曇心論と俱舍論 | 242 |
| [補遺] 婆沙, 俱舍, 正理等の諸論に引用される施設論の諸說 | 263 |
| 第二部 阿毘達磨教理に關する諸問題 | |
| 第一章 部派佛教における分別上座部の地位とその宗義の定の方 | 275 |
| 第二章 分別論者と部派の所屬について | 280 |
| 第三章 佛教における心理論發達の大觀 | 308 |
| 第四章 佛教心理論における心作用分類の發達 | 336 |
| 第五章 印度佛教と瑜伽哲學との交渉 | 351 |
| 第六章 佐多介石氏の視實等象論 | 376 |
| 木村泰賢博士年譜 | 387 |
| 解説-水野弘元 | 397-409 |

1914

- ・『印度哲學宗教史』東京, 明治書院(復刊:木村泰賢全集 第一卷, 東京, 大法輪閣, 1969년 1刷, 1981년 5刷)

1915

- ・『印度六派哲學』東京, 明治書院(復刊:木村泰賢全集 第二卷, 東京, 大法輪閣, 1968년 1刷, 1981년 5刷)

1921

- ・『原始佛教思想論』東京, 明治書院(復刊:木村泰賢全集 第三卷, 東京, 大法輪閣, 1968년 1刷, 1982년 6刷)

본서를 통해서 우리는 기무라 다이켄 박사의 원시불교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알 수가 있다. 이른바 연기설에 대한, 와츠지 데츠로(和辻哲郎) 박

사·우이 하쿠쥬(宇井伯壽) 박사의 논리적 해석의 입장과 아카누마 지켄(赤沼智善) 교수의 전통적 해석의 입장에 대한 기무라 다이켄 박사의 비판적인 논문도 본서에 실려있다. 목차를 통해 내용을 살펴본다.

第一篇 大綱論

| | |
|-------------------------|----|
| 第一章 原始佛教の取扱い方と本書の方針 | 33 |
| 第二章 時勢と佛教 | 54 |
| 第三章 教理の綱格(主として法の觀念について) | 84 |

第二篇 事實的世界(苦集諦論)

| | |
|---------------------|-----|
| 第一章 世界的原理としての因縁觀 | 109 |
| 第二章 有情論一般 | 120 |
| 第三章 心理論 | 135 |
| 第四章 業(カルマ)と輪廻 | 156 |
| 第五章 特に十二緣起論について | 192 |
| 第六章 存在の本質について | 219 |
| 第七章 存在に對する價值判斷とその根據 | 230 |

第三篇 理想とその實踐(滅道諦論)

| | |
|--------------|-----|
| 第一章 修道論總說 | 243 |
| 第二章 一般道德 | 260 |
| 第三章 信者としての修道 | 287 |
| 第四章 出家の修養法 | 297 |
| 第五章 修道の進程と羅漢 | 328 |
| 第六章 涅槃論 | 349 |

附 錄 原始佛教における緣起觀の展開

| | |
|---------------------|---------|
| 上, 近時の緣起觀とその得失 | |
| はしがき | 363 |
| 宇井, 和辻兩氏の論理的解釋とその得失 | 370 |
| 赤沼氏の傳統的解釋とその得失 | 389 |
| 中, 緣起觀の根本精神 | 391 |
| 下, 唯心緣起より輪廻緣起に | 417-447 |
| 解説-渡邊模雄 | 449-463 |

1926

・『大乘佛教思想論』東京, 明治書院. 1927, 再版.(複刊:木村泰賢全集 第六卷,

東京, 大法輪閣, 1967년 1刷, 1982년 6刷)

1927

・『小乘佛教思想論』東京, 明治書院(複刊:木村泰賢全集 第五卷, 東京, 大法輪閣, 1968년 1刷, 1980년 5刷)

본서는 有部の 사상을 중심으로 하여 아비달마사상을 조목 별로 연구한 저술로써 『阿毘達磨論の研究』에 이어지는 연구이다. 叢敍와 전체 6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편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 |
|-------------|---------|
| 叢 敍 | 35 |
| 本論 | |
| 第一篇 佛陀論 | 73 |
| 第二篇 宇宙成立の要素 | 135 |
| 第三篇 世界觀 | 269 |
| 第四篇 心理論 | 365 |
| 第五篇 倫理論 | 495 |
| 第六篇 修道論 | 695-683 |
| 解説 - 坂本行男 | 685-703 |

4.7. 宇井伯壽(우이 하쿠쥬, 1882~1963)

曹洞宗. 大正, 昭和시대의 인도철학, 불교학자. 1909년, 東京帝大 哲學科(印度哲學專修) 졸업. 다카쿠스 준지로 박사의 제자. 기무라 다이켄 박사와 東京帝大 동기. 1913년, 독일에 유학했으나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여 영국의 옥스포드로 피신하여 독학으로 인도철학과 불교연구. 이 시기에 번역한 勝宗(바이세시카학파)十句義論의 英譯 The philosophy of Vaiśeṣika(London, Royal Asiatic Society, 1917)는 지금도 참고할만한 자료로 쓰여지고 있음. 문학박사. 1923년, 東北帝國大學교수. 1930년 기무라 다이켄의 急逝로 東京帝大교수로 부임했다. 1941년 駒澤대학 학장이 됨. 인도철학에서 시작하여 일본에서의 인도불교, 중국불교, 일본불교 연구의 초석을 다져놓음. 엄밀한 문헌고증적인 연구방법으로 유명. 우이 하쿠쥬(宇井伯壽) 박사에 의해 세워진 학풍은 이후 동경대학 인도철학과

학문적 전통이 됨.³⁰⁾

우이 하쿠쥬 박사의 연구업적에 대한 종합적인 해설은 박사의 유고 논문 집인 『インド哲學から佛教へ』(東京, 岩波書店, 1976年) pp.517-544에 목차와 함께 자세하게 소개 되어 있다. 특히 본서의 「佛教研究の回顧」(pp.481-497)는 박사의 불교연구의歷程을 자전적인 필체로 엮을 수 있는 논문이다.

우이 하쿠쥬 박사의 많은 저작 중에서 東北대학에 재직 중에 쓰여진, 초기의 작품에 해당하는 『印度哲學研究』 시리즈 6권 가운데 2,3,4권에 초기불교연구에 대한 대표적인 논문이 수록되어 있다. 다음은 그 주요 논문들이다.

1925

• 『印度哲學研究 第二』東京, 甲子社書房, 1965年, 東京, 岩波書店, 覆刻(渡邊 煤雄 解説).

1. 「佛滅年代論」 2
2. 「原始佛教資料論」 113
3. 「十二因縁の解釋 - 縁起説の意義」 261
4. 「六師外道研究」 345-424

1926

• 『印度哲學研究 第三』東京, 甲子社書房, 1965年, 東京, 岩波書店, 覆刻(宮本 正尊 解説).

1. 「八聖道の原義及びその變遷」 3
2. 「阿含に現はれたる梵天」 63
3. 「六十二見論」 203
4. 「阿含の成立に關する考察」 303-418

1927

30) 현재 동경대학 문학부 인도철학 불교학 연구과의 주임교수인 에지마 야스노리(江島惠教)교수의 다음과 같은 언급은 바로 우이 하쿠쥬 박사의 학풍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인도철학 불교학은 세분화가 진행되어, 다방면에서 연구를 다시 검토하는 작업이 행해지고 있다....(中略)...하지만 그 때, 문헌자료 등에 밀착한 미시적(미크로)인 작업에서는 거시적(마크로)인 시점이 불가결한 것도 사실이다. 그것이 만일 잊혀진다고 한다면, 연구자체의 학문성이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신선하면서도 거시적인 시점으로부터, 엄밀하면서도 미시적인 연구작업이 지금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インド哲學佛敎學研究』I, 東京大學文學部印度哲學研究室, 1993年, p.2.

• 『印度哲學研究 第四』東京, 甲子社書房, 1965年, 東京, 岩波書店, 覆刻(水野 弘元 解説).

1. 「根本佛教における僧伽の意義」 3
2. 「阿含に現はれたる佛陀觀」 69
3. 「阿育王刻文」 247
4. 「阿含研究の後に」 339-400

4.8. 赤沼智善(아카누마 지젠, 1884~1937)

明治, 昭和전기의 불교학자. 淨土眞宗 大谷派. 1907년, 眞宗대학 졸업. 1914~1919년, 스리랑카에 4년, 영국에 1년 유학. 1919년, 귀국 후 大谷대학 교수가 되어 팔리어와 원시불교를 가르침. 大谷대학에서 원시불교 연구의 선구자 역할을 하여 이른바 大谷대학을 중심으로 한 원시불교 연구의 역사에 막을 올린다.

아카누마 지젠 교수의 약력과 연구업적에 대해서는 「荻原博士・赤沼教授の面影」(『佛教研究』第2巻 第2號, 佛教研究會編, 東京, 大東出版社, pp.181-193)과 舟橋一哉 「赤沼智善先生」 『佛敎學セミナー』14, 京都, 大谷大學佛敎學會, 1971, pp.66~74, 참조.

1921

• 『阿含の佛教』京都, 平樂寺書店, 1930年, 4版.

1929

• 『漢巴四部四阿含互照錄』名古屋, 破塵閣書房.

1931

• 『印度佛教固有名詞辭典』京都, 法藏館, 1967, 複刊(干渴龍祥, 水野弘元, 舟橋一哉 補遺訂正).³¹⁾

31) 이 사전은 팔리불교 및 인도불교의 고유명사에 대한 사전이다. 아직도 이 분야에서는 가장 자주 사용되는 사전이다. 특기할만한 점은 영국의 PTS에서 출판 되기 이전의 팔리 주석서까지를 내용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과 팔리어나 산스크리트어 문헌 뿐만 아니라 한역 불전까지 다루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한문권의 학자가 해낼 수 있는 작업을 아카누마 지젠 교수도 훌륭히 해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팔리 고유명사 사전으로는 다음의 것이 있어 편리하게 쓸 수 있다. G.P. Malalasekera, *Dictionary of Pali Proper Names*, 2 Vols., London,

남전대장경 번역에는 다음의 경전이 있다.

1937

・『相應部經典 一』(南傳大藏經 第十二卷, 1971年, 再刊)

다음의 저술 3권은 아카누마 지젠 교수의 사후 유고 논문집으로 각각 교수가 생전에 발표한 논문들을 주제별로 엮어놓은 것이다. 게재된 논문을 목차를 통해 알아본다.

1939-1

・『佛教教理之研究』名古屋, 破塵閣書房.(京都, 法藏館, 1981, 覆刻)

1. 佛教概論 1
2. 佛教に於ける物と心 123
3. 龍樹の教學を通じて見たる佛陀の教學 369
4. 業の研究 429
5. 淨土論註概説 489
6. 起信論の眞如に就いて 517
7. 五濁と法滅の思想に就いて 541-560
五蘊論 (pp.130-152)
心意識に關する考察 (pp.175-202)
空の意義に關する一考察 (pp.404-416)

1939-2

・『原始佛教之研究』名古屋, 破塵閣書房.(京都, 法藏館, 1981, 覆刻)

1. 原始佛教の教義 1
2. 阿含經講話 179
3. 如來の名義に就いて 307
4. 釋尊年代考 323
5. 釋尊時代の印度の思想及び信仰 347
6. 釋尊の四衆に就いて 383
7. 舍衛城及び祇園精舍の研究 431
8. 釋尊最後一年の遊化地 465
9. 十二因縁の傳統的解釋に就いて 475
10. 俱舍論に現れたる小乘異部 499

1937~1938. PTS, reprinted, 1960, 1974.

11. 分別論者に就いて 519
12. 燃燈佛の研究 527
13. 佛教地獄論 559-578

위의 논문 가운데 「十二因縁の傳統的解釋に就いて」의 발표에 의해서 이른바 木村泰賢, 和辻哲郎·宇井伯壽, 赤沼智善의 연기설 논쟁에서 아카누마 지젠 교수는 연기설 해석의 전통적인 입장에 서있다고 알려지게 되었다.

1939-3

・『佛教經典史論』名古屋, 破塵閣書房.(京都, 法藏館, 1981, 覆刻)

1. 小乘經典史論 1
第一章 第一結集の傳説 2
第二章 現存五部四阿含の部派攝屬 21
第三章 異譯單本經に就いて 53
第四章 五部四阿含の成立 84
第五章 經典成立の順序及びその變化 109
2. 大乘經典史論 185
第一章 諸佛經典 194
第二章 般若經系の教理 264
第三章 諸三昧經典 - 特に般舟三昧經に就いて 388
3. 戒律の研究 423
第一章 現存の律典 424-554

4.9. 和辻哲郎(와츠지 데츠로, 1889~1960)

大正, 昭和시대의 윤리학자, 문화사가. 1912 東京帝國대학 철학과 졸업. 문학박사. 東洋대학, 法政대학 등의 교수를 거쳐, 1927년에 독일 유학, 1931년에 귀국, 京都帝國대학 교수가 됨. 1934~1949년 東京帝國대학 교수. 저술은 和辻哲郎 전집 20권으로 정리되어 있음(東京, 岩波書店, 1961-1963). 원시불교의 原典에 입각한 논리적·문헌적 연구의 선구자적인 업적을 남긴다. 우이 하쿠쥬 박사와 함께 연기설 해석에서 논리적인

해석의 입장에 선다.

불교에 관한 저술은 다음과 같다.

1927

- 『原始佛教の實踐哲學』東京, 岩波書店, 1932, 2刷.(『和辻哲郎全集』第5卷, 東京, 岩波書店, 1962. pp.1-293. 同出版社, 改版1刷 1970) 와츠지 데츠로 박사의 학위논문.

목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 | |
|-------------------|---------|
| 序論 根本資料の取り扱い方について | 11 |
| 第一章 根本的立場 | 90 |
| 第二章 緣起說 | 173 |
| 第三章 道諦 | 247-293 |

1962

- 『佛教哲學の最初の展開』『和辻哲郎全集』第5卷, 東京, 岩波書店, 1962. pp.295~568. 1970, 同 出版社에 의한 改版1刷. 有部の 아비달마를 중심으로 한 法에 대한 연구 논문집.

1963

- 『佛教倫理思想史』『和辻哲郎全集』第19卷, 東京, 岩波書店, 1985, 同 출판사에서 단행본 초판 발행.

4.10. 宮本正尊(미야모토 쇼손, 1893~1983)

大正, 昭和시대의 불교학자. 眞宗大谷派. 1921년, 東京帝國대학 문학부 인도철학과 졸업. 1923년-1928년 문부성 在外 연구원으로 영국 옥스포드에 유학. 문학박사. 1928년 귀국 후 1954년까지 東京대학 교수. 1951년 日本印度學佛教學會 창설하여, 초대 이사장이 됨. 동경대학 명예교수. 후에 와세다, 駒澤대학 교수역임. 중도사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폭넓게 불교학을 연구함.

1943

- 『根本中と空』佛教學の根本問題 第一, 東京, 第一書房.

目次

| | |
|--------------------------|---------|
| 第一 根本中の研究-根本中の立場と阿毘達磨の本義 | 3-115 |
| 第二 根本佛教の指導原理 | 117-145 |
| 第三 最初說法と中道 | 147-214 |
| 第四 燉煌出土大乘中宗見解に就いて | 215-290 |
| 第五 必過性空論と中道 | 291-364 |
| 第六 中の哲學的考察 | 365-492 |
| 第七 空觀 | 493-592 |

1944

- 『中道思想及びその發達』京都, 法藏館. 미야모토 쇼손 박사의 학위논문.

目次

| | |
|--------------------------|---------|
| 第1編 印度文化と釋尊の中道說 | 3 |
| 第2編 法の立場と中道 | 59 |
| 第3編 次第超出道と涅槃無對 | 79 |
| 第4編 分別と中道 | 113 |
| 第5編 根本と本質 | 165 |
| 第6編 無記と空と中道 | 193 |
| 第7編 阿含の中道說 | 297 |
| 第8編 大乘小乘の關係と中道義 | 353 |
| 第9編 識と智と覺證の問題 | 447 |
| 第10編 心・識・分別の研究 | 471 |
| 第11編 分別中道と大乘菩提心 | 565 |
| 第12編 識・分別と智・無分別との關係論證の資料 | 605 |
| 第13編 四諦と中道 | 655 |
| 第14編 虛無空見と中道 | 701 |
| 第15編 空觀と中道 | 749 |
| 第16編 支那佛教の中道義 | 789 |
| 第17編 日本臣民道と中道 | 839-932 |

1954

- 『大乘と小乘』佛教學の根本問題 第三, 東京, 八雲書店.

간략하게 목차를 통해 게재된 논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
|------------|------|
| 1. 佛教發達の段階 | 3-41 |
|------------|------|

2. 聲聞の學と佛菩薩の學 43-226
3. 小乗敎の形態と南方佛敎 227-356
4. 支那佛敎に於ける小乗數論の研究 357-421
5. 大乘敎と小乗敎 423-748

1957

• 『佛敎の根本眞理』(編) 東京, 三省堂.

「佛敎の眞實, 中道と涅槃」上書, pp.17~132.

1972

「佛敎の眞實, 中道と涅槃-中道の原始型と根本中の立場-」佐藤博士古稀記念

『佛敎思想論叢』東京, 山喜房佛書林, pp.961~987.

1975

「中道のさとりと止觀法門の源流」『止觀の研究』東京, 岩波書店, pp.415~489.

1979-1

「中道の原初型と發達類型-アリアン中國の「中」と釋尊さとの「中道」-」『佛敎の比較思想論的研究』東京, 東京大學出版會, pp.911~943.

1979-2

「原始佛敎における悟りの問題」『悟りと救い-その理念と方法-』京都, 平樂寺書店, pp.33~47.

4.11. 金倉圓照(가나쿠라 엔쇼, 1896~1987)

1920년, 東京帝國大學 문학부 인도철학과 졸업. 1923년, 東北帝國大學 문학부 조교수. 1923년 12월~1926년 4월까지 영국, 독일, 인도에서 유학. 1929년, 東北帝國大學 문학부 교수. 1931년, 『베단타哲學의 연구』(東京, 岩波書店, 1932)로 東京帝大에서 박사학위 수여. 1960년, 同 대학 정년퇴임. 東北대학 명예교수. 立正대학 교수 등 역임. 불교 전공의 야마다 류조(山田龍城, 1895~1979)박사와 함께 東北대학 인도철학과의 전통을 세움. 인도철학 전공. 단행본으로 출판된 저술 이외의 논문은 세 권의 논문집에 정리되어 출판. 제1권이 불교학에 관한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며, 그 가운데 초기불교 및 부파불교에 관한 것들이 다음의 논문들이다.

가나쿠라 엔쇼 박사의 약력 및 연구 업적에 대해서는 金倉博士古稀記念

『印度學佛敎學論集』京都, 平樂寺書店, 1966, pp.1~8, 참조.

1973

• 『インド哲學佛敎學研究 I』佛敎學編, 東京, 春秋社

「佛敎における法の語の原意と變轉」pp.83~103.

「佛敎における法の意味」pp.105~123.

「毘尼母經と雪山部」pp.239~262.

「十事非法に對する諸部派解釋の異同」pp.263~290.

4.12. 西義雄(니시 기유, 1897~1992)

臨濟宗. 1924년, 東京帝國大學 文學部 印度哲學科 졸업. 1927년, 기무라 다이켄 박사의 후임으로 東洋大學 교수 취임. 同年, 기무라 다이켄 박사의 助手로서 『阿毘達磨大毘婆沙論』번역에 종사. 1954년, 東京대학에서 문학박사 학위 취득. 1968년, 東洋대학 정년퇴직과 함께 同대학 명예敎授가 됨. 1969년, 京都의 하나조노(花園)대학 교수가 됨.

대표적인 업적은 『國譯一切經』 毘曇部の 『阿毘達磨大毘婆沙論』 11卷(木村泰賢, 坂本行男 共譯), 『阿毘達磨俱舍論』 3卷, 『俱舍論記』 5卷의 번역작업. 기무라 다이켄박사의 뒤를 이은 아비달마 연구가. 心性本淨說을 바탕으로 한 원시불교 연구 및 아비달마사상 그리고 대승불교연구가 특색.

니시 기유 박사의 연구 업적에 대해서는 『菩薩思想』 西義雄博士頌壽記念論集, 東京, 大東出版社, 1981, pp.ii~xv. 참조.

1945

• 『初期大乘佛敎の研究』東京, 大東出版社

1953

• 『原始佛敎に於ける般若の研究』横浜, 大倉山文化科學研究所. 1978年, 東京, 大東出版社, 改訂版. 니시 기유 박사의 학위논문.

본서는 원시불교에서의 「반야」는 淸淨心 또는 本性淨心을 의미한다는 것을 논증해내려는 연구의 결실이다. 서론과 총 3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서는 원시불교 자료론에 대해 재검토하고 있고 본론의 3편은 원시

불교의 반야와 心性本淨說에 대한 연구이다. 목차를 통해 내용을 일별해 본다.

序論

| | |
|------------|---|
| 原始佛教資料の再檢討 | 3 |
|------------|---|

本論

| | |
|------------------------------------|---------|
| 第一編 原始佛教に於ける「般若」の研究 | 107 |
| 第一章 問題の所在 | 107 |
| 第二章 原始佛教に於ける「般若」に就いて-特に動詞的用語- | 129 |
| 第三章 特に名詞として定義される般若に就いて | 152 |
| 第四章 合成語として用ひられた般若 | 214 |
| 第五章 原始佛教資料中に於ける般若の性格とその展開 | 254 |
| 第六章 佛教以前に於ける般若, 特に古Upaniṣadに於ける般若觀 | 299 |
| 第二編 心性本淨說とその傳承 | 321 |
| 第一章 原始經典に於ける心性本淨說とその意義 | 321 |
| 第二章 心解脱と佛陀并に阿羅漢 | 357 |
| 第三章 心解脱と心性本淨 | 381 |
| 第四章 涅槃の義と心性本淨との關係 | 392 |
| 第五章 緣起觀と本淨の心 | 430 |
| 第六章 佛陀觀本性淨心 | 474 |
| 第七章 心性本淨說の總說 | 499 |
| 第三編 原始佛教經典に於ける重要教義と般若との關係 | 503 |
| 第一章 緣起觀と般若との關係 | 503 |
| 第二章 無常·苦·無我と般若 | 507 |
| 第三章 集起·滅諦と般若 | 515 |
| 第四章 集起·滅諦·味着·禍患·出離と般若 | 520 |
| 第五章 味着·過患·出離と般若 | 523 |
| 第六章 四諦說と般若 | 528 |
| 第七章 佛陀の成道說と般若 | 540-564 |

1964

「佛教における「信」śraddhāの意義-特に原始佛教を焦點として-」 『干潟龍祥博士古稀記念論文集』九州大學, 干潟博士古稀記念會, pp.(23)-(40)

1972

「近時の「心性本淨」研究の展開と問題」 佐藤博士古稀記念『佛教思想論叢』東

京, 山喜房佛書林, pp.369-391.

1975

・『阿毘達磨佛教の研究-その眞相と使命』東京, 國書刊行會.

1928년 이래 40여년 동안 각 연구지에 발표한, 說一切有部를 중심으로 한 아비달마교학에 대한 19편의 논문을 정리한, 총 662쪽에 이르는 논문집.

제세된 논문을 목차를 통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本論發刊の序說-阿毘達磨佛教の研究

| | |
|-------------------------------|-----|
| -その眞相と使命 -と題した所以に就いて | 1 |
| 第一篇 阿毘達磨佛教僧伽の史的總觀と資料論 | 25 |
| 第一章 印度佛教史上, 部派分立に關する一考察 | |
| -特に大衆部系の心論を中心として | 27 |
| 第二章 阿毘達磨論書特に有部の主著成立大觀 | 55 |
| 第三章 有部宗内に於ける發智系, | |
| 非發智系等の諸種の學說及び學統の研究 | 73 |
| 第四章 舍利弗阿毘曇論の部派佛教に於ける資料論的地位 | |
| -特に心性本淨說傳持を觀點として- | 109 |
| 第二篇 阿毘達磨佛教中の三乘思想と瑜伽(禪)行者 | 123 |
| 第一章 小乘論に於ける三乘思想-特に佛乘論に就いて- | 125 |
| 第二章 小乘論書に於ける菩薩思想と龍樹の批判 | |
| -初期菩薩思想の展開- | 165 |
| 第三章 部派佛教に於ける瑜伽師とその役割 | 219 |
| 第四章 阿毘達磨論書に於ける空觀の意義-特に法空觀に就いて | 267 |
| 第五章 部派佛教の〔三乘の〕智·識論 | 287 |
| 第六章 大衆部の般若-他部との比較において | 319 |
| 第七章 部派佛教教團護持者としての瑜伽行者の實踐 | 351 |
| 第三篇 說一切有部の法有論 | 375 |
| 第一章 初期眞俗二諦說 | 377 |
| 第二章 說一切有部宗の根本法有論の研究 | 399 |
| 第三章 三世實有論の研究-特に體減用減兩論の批判 | 463 |
| 第四章 阿毘達磨論に於ける種子說(Bija)說に就いて | 483 |
| 第五章 俱舍論上に於ける世親の態度 | 497 |

| | |
|--|---------|
| 第六章 俱舍論に於ける無我論による人生觀 | |
| -「我」の分析的否定として | 515 |
| 第四篇 佛教に於ける業論と悟道の契機 | 543 |
| 第一章 業の思想-とくに世間即ち社會道德の基盤として | 545 |
| 第二章 印度佛教史上に於ける見道論の展開 | |
| -ざとりの内容に關する論述の史的變遷 | 589-659 |
| 1978 | |
| 「佛教における信の意義-特に信と悟りとの關係」『中央學術研究所紀要』第7號, 東京, 中央學術研究所, pp.4~26. | |

4.13. 水野弘元(미즈노 고겐, 1901~) 駒澤大學名譽教授

曹洞宗, 1928年, 東京帝大 文學部 인도철학과 졸업. 문학박사. 駒澤대학 교수, 東京대학 교수, 駒澤대학 총장 등 역임. 다카쿠스 준지로 박사, 나가이 마코토 박사의 뒤를 이어, 팔리불교학의 頂点에 서있는 일본을 대표하는 팔리불교 연구의 대가.

南傳大藏經 翻譯

1937

- 『清淨道論 I』(Visuddhi-magga) (南傳大藏經 62, 東京, 大藏出版社(이하 출판사명 생략), 1974년 再刊)³²⁾

32) 『清淨道論』(Visuddhimagga)에 대한 다른 번역으로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日譯

石黒彌致譯『清淨道論 上』東京, 財團法人 東洋文庫, 1936.

본 번역은 완역이 아니라 전체 23장 가운데 11장까지의 번역이다.

英譯

1. Pe Maung Tin, Trsl., *The Path of Purity*, 3 vols., London, PTS, 1923, 1929, 1931. Reprinted in 1 vol., 1971.

2. Bhikkhu Nanamoli, Trsl., *The Path of Purification*, Colombo, 1956(1 ed.), 1964(2 ed.), 1975(3 ed.), 1979(4 ed.).

獨譯

3. Nyanatiloka, Trsl., *Visuddhi-Magga oder der Weg zur Reinheit*, Bd.2, Munchen-Neubiberg, 1931, 1942. Reprinted in 1 Bd., Konstanz, 1952, 1975.

現代中國語譯

1938

- 『清淨道論 II』(南傳大藏經 63, 1974년 再刊)

1939

- 『經集』(Suttanipāṭa) (南傳大藏經 24, 1971년 再刊)
- 『大義釋』(Mahā-nidēsa) (南傳大藏經 42,43, 1973년 再刊)

1940

- 『小義釋』(Culla-nidēsa) (南傳大藏經 44, 1973년 再刊)
- 『清淨道論 III』(南傳大藏經 64, 1974년 再刊)

1941

- 『攝阿毘達磨義論』(Abhidhammattha-saṅgaha) (南傳大藏經 65, 1974년 再刊)³³⁾

이외 약간의 共譯이 있음.

원시불교 및 팔리불교에 대한 주요 논문 및 저술.

1934

- 『南方上座部(巴利佛教)論書解説』『佛教大學講座』XI, 東京, 佛教年鑑社, 1934, 150p.

팔리 아비담마 논서에 대한 소개적 논문. 팔리 7론과 주요 논서 8종류들에 대한 간략하면서도 짜임새 있는 해설서.

1937

- 「善見律毘婆沙とサマンタパサーディカー」『佛教研究』第1卷 第3號, 佛教研究

4. 葉均 譯『清淨道論(上)(中)(下)』3卷, 臺北, 華宇出版社, 1991.

두번째의 나나몰리 테라의 번역은 현재 가장 정평있는 번역으로 유명하다. 서문에도 쓰여 있지만 역자는 독일어를 모르기 때문에 나나틸로카 테라의 독일은 참고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주석서(Mahā-Tīkā)를 참조해 가면서 충실한 주석적인 번역을 하고 있다. 상좌부불교에서 『清淨道論』이 차지하는 위치는 北傳 有部の 『大毘婆沙論』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른바 남방상좌부의 正典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정확하면서도 주석적인, 책임있는 우리말 번역이 하루 빨리 나오기를 기대한다.

33) 『攝阿毘達磨義論』(Abhidhammattha-saṅgaha)의 다른 번역으로는 다음의 것이 유명하다. 水野弘元 監修, ウ・ウェ・ブ・ラ・戸田忠 譯註『アビダンマッタサンガハ-南傳佛教哲學教義概説』愛知縣, アビダンマッタサンガハ刊行會, 1980년.

본 번역은 미얀마의 승려로서 1957년 이래 최근까지 일본에서 활동해온 우 웨폴라師와 駒澤 대학 불교학부 출신의 도다 師의 공역으로, 미얀마의 전통적인 주석서(Abhidhammattha-vibhavaṇī 등)에 의거한 주석적인 번역이다.

아비담마타 상가하(Abhidhammattha-saṅgaha)는 12세기에 아누루타(Anuruddha)에 의해 저술된 남방상좌부의 교리강요서로 현재 미얀마에서는 사미과정에서 배우는 교리개론서로 사용하고 있다. 남방불교의 교리적인 특색의 기초를 아는 데는 필독서의 하나이다.

會編, 東京, 大東出版社, pp.77~100.

1938

「善見律毘婆沙とサマンタパサーディカー(承前)」『佛教研究』第2卷 第3號, 佛教研究會編, 東京, 大東出版社, pp.111~139.

1939

「『解脫道論と清淨道論の比較研究』-P.V.Bapat, Vimutti-magga and Visuddhi-magga, a comparative study-」『佛教研究』第3卷 第2號, 佛教研究會編, 東京, 大東出版社, pp.114~137.

1941

「巴利聖典成立史上に於ける無碍解道及び義釋の地位(一)」『佛教研究』第4卷 第3號, 佛教研究會編, 東京, 大東出版社, pp.55~83.

「巴利聖典成立史上に於ける無碍解道及び義釋の地位(二)」『佛教研究』第4卷 第5號, 佛教研究會編, 東京, 大東出版社, pp.49~79.

「巴利聖典成立史上に於ける無碍解道及び義釋の地位(三)」『佛教研究』第4卷 第6號, 佛教研究會編, 東京, 大東出版社, pp.41~64.

1942-1

「巴利佛教」『佛教研究』特輯 南方圈の宗教, 第6卷 第2・3號, 佛教研究會編, 東京, 大東出版社, pp.27~68.

1942-2

「心・心所思想の發生過程について」『日本佛教學協會年報』第14號, 日本佛教學協會, pp.215~222.

1944

「初期佛教の印度に於ける流通分布に就いて」『佛教研究』第7卷 第4號, 佛教研究會編, 東京, 大東出版社, pp.1~95.

1951

「佛教における色(物質)の概念について」『印度哲學と佛教の諸問題』宇井伯壽博士還歷記念論文集, 東京, 岩波書店, pp.479~502.

1952-1

「Arthapada Sūtra(義足經)について」『印度學佛教學研究』1-1, 東京, 印度學佛教學會, pp.87~95.

1952-2

「大乘經典の成立と部派佛教との關係」『日本佛教學協會年報』第18號, 日本佛教學會, pp.83~108.

1954-1

「業說について」『印度學佛教學研究』2-2, 東京, 印度學佛教學會, pp.110~120.

1954-2

「無我と空」『印度學佛教學論集』宮本正尊教授還歷記念論文集, 東京, 三省堂, pp.109~120.

1954-3

「十二緣起說について-特にその心理的見方」『印度學佛教學研究』3-1, 東京, 印度學佛教學會, pp.11~22.

1954-4

「部派佛教より大乘佛教への展開」『大乘佛教の成立史的研究』(宮本正尊編) 東京, 三省堂, pp.259~273.

1954-5

「大乘經典と部派佛教との關係」『大乘佛教の成立史的研究』(宮本正尊編) 東京, 三省堂, pp.274~313.

1954-6

The Pali Text Translated into Chinese 『大倉山學院紀要』第1輯, 横浜, 大倉山學院, pp.14~26.

1955

・『パーリ語文法』東京, 山喜房佛書林, 1985年, 5版.

上書 pp.190~220에는 「パーリ語およびパーリ佛教研究の歴史」가 있어 이 책이 쓰여질 1955년까지의 서구와 南方諸國 그리고 일본에서의 연구사가 정리되어 있음.

1956-1

『原始佛教』〈サーラ叢書4〉京都, 平樂寺書店, 1988年, 14刷.

출판 이래 현재까지 원시불교에 대한 고전적인 입문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명저.

1956-2

「心不相應法について」『駒澤大學研究紀要』通卷14, 東京, 駒澤大學, pp.30~59.

1956-3

「心不相應法の概念の發生」『印度學佛教學研究』4-2, 東京, 印度學佛教學會,

pp.112~117.

1956-4

「心識論と唯識説の發達」『佛教の根本眞理』東京, 三省堂, pp.415~454.

1956-5

・『パーリ語佛敎讀本』東京, 山喜房佛書林.

1959-1

「Petakopadesaについて」『印度學佛敎學研究』7-2, 東京, 印度學佛敎學會, pp.56~68.

1959-2

・『南傳大藏經 總索引』全3卷, 東京, ピタカ, 1977年, 増補改訂版 上・下. 大阪, 東方出版, 1986年, 縮刷版 1卷.

1959-3

「佛敎の分派とその系統」『インドの佛敎』講座佛敎第3卷, 東京, 大藏出版 (1967年, 改訂新版), 79~118.

1959-4

「ミリンダ問經類について」『駒澤大學研究紀要』通卷17, 東京, 駒澤大學, pp. 17~55.

1960-1

・『釋尊の生涯』東京, 春秋社, 1972年, 増補, 1985年, 新裝版.

1960-2

「施設(paṇṇati 概念)について」『中野教授還曆記念論文集』中野教授還曆記念會, pp.31~51.

1962-1

「無爲法について」『印度學佛敎學研究』10-1, 東京, 印度學佛敎學會, pp.1~11.

1962-2

「證悟について」『駒澤大學佛敎學部研究紀要』第21號, 東京, 駒澤大學佛敎學部, pp.52~82.

1964-1

・『パーリ佛敎を中心とした佛敎の心識論』東京, 山喜房佛書林. 東京, ピタカ, 1978年, 改訂版. 1949년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을 개정 증보한 연구서.

본서는 남방상좌부의 아비달마를 중심으로 하여 심식론에 대한 세밀한 면서 포괄적인 연구서이다.

미즈노 고겐 박사의 남방상좌부 연구의 대표적인 저작이며, 팔리불교의 심식론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연구 성과이다. 목차를 통해 간단히 책의 구성을 알아본다.

序論

第一章 佛敎における心識の問題および本論が取扱う心識論の範圍 1

第二章 本論の心識論に關係ある諸文獻の概説 17

本論

第一章 心法總論 41

第二章 八十九心各論 141

第三章 心所法總論 209

第四章 心所法各論 375

第五章 心心所相應論 749

第六章 心作用論 847-951

1964-2

「緣について」結城教授頌壽記念『佛敎思想史論集』東京, 大藏出版, pp.31~50.

1964-3

「梵文大事について」『干渴龍祥博士古稀記念論文集』九州大學, 干渴博士古稀記念會, pp.127~156.

1965-1

「原始佛敎および部派佛敎における般若について」『駒澤大學佛敎學部研究紀要』第23號, 東京, 駒澤大學佛敎學部, pp.13~43.

1965-2

「部派佛敎と法華經の交渉」『法華經の思想と文化』法華研究 I, 京都, 平樂寺書店, pp.67~96.

1966-1

「原始佛敎におけるさとり」『佛敎における證の問題』京都, 平樂寺書店, pp.1~20.

1966-2

「舍利弗阿毘曇論について」金倉博士古稀記念『印度學佛敎學論集』京都, 平樂寺書店, pp.109~134.

1966-3

- 「根 Indriya について」『印度學佛教學研究』14-2, 東京, 印度學佛教學會, pp.39~46.
- 1967
「初期佛教の緣起思想」『佛教思想 I-インドの展開』講座 東洋思想 第五卷,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pp.131~159.
- 1968
・『ホーリ語辭典』東京, 春秋社, 1987年, 二訂版.
- 1970-1
「原始佛教における教育思想」『日本佛教學會年報』第36號, -佛教と教育の諸問題-, 日本佛教學會, pp.33~55.
- 1970-2
「轉法輪經について」『佛教研究』第1號, 浜松, 國際佛教徒協會, pp.92~114.
- 1971
・『佛教の基礎知識』東京, 春秋社.
- 1972-1
・『佛教要語の基礎知識』東京, 春秋社, 1992年, 21刷.
- 1972-2
「法句經について」『佛教研究』第2號, 浜松, 國際佛教徒協會, pp.116~144.
- 1973-1
「法句經對照表(1)」『佛教研究』第3號, 浜松, 國際佛教徒協會, pp.144~199.
- 1973-2
「原始佛教と日本曹洞宗」『道元禪の思想的研究』東京, 春秋社, pp.47~94.
- 1974-1
「法句經對照表(2)」『佛教研究』第4號, 浜松, 國際佛教徒協會, pp.140~206.
- 1974-2
・『佛教の原點』東京, 佼成出版社.
- 1974-3
「業に關する若干の考察」『佛教學セミナー』20, 京都, 大谷大學佛教學會, pp.1~25. (『業思想の研究』京都, 文榮堂書店, 1975, pp.1~25, 再録)
- 1975-1
「原始佛教・アビダルマにおける心理學」『講座 佛教思想』第4卷 人間學・心理

- 學, 東京, 理想社, pp.197~240.
- 1976-1
「法句經對照表(3)」『佛教研究』第5號, 浜松, 國際佛教徒協會, pp.310~382.
- 1976-2
「社會惡」『惡』佛教思想 2, 佛教思想研究會編, 京都, 平樂寺書店, pp.385~407.
- 1978
「ホーリ三藏所收の偈 (その一)」『佛教研究』第7號, 浜松, 國際佛教徒協會, pp.167~218.
- 1979
「漢譯法句經の翻譯成立について」『佛教研究』第8號, 浜松, 國際佛教徒協會, pp.3~69.
- 1980-1
「漢譯法句譬喻經について」『佛教研究』第9號, 浜松, 國際佛教徒協會, pp.1~14.
- 1980-2
「ゴータマ・ブッダと道元」『世界思想と道元』講座 道元 第五卷, 東京, 春秋社, pp.71~108.
- 1981-1
「法集要頌經の研究」『佛教研究』第10號, 浜松, 國際佛教徒協會, pp.1~30.
- 1981-2
・『法句經の研究』東京, 春秋社.

30여년간 법구경에 대해 연구해온 결실을 한 권의 책으로 엮어 놓은 논문집 『佛教研究』(浜松, 國際佛教徒協會) 第2號부터 第10號까지 연재되어 오던 논문들을 중심으로 7편의 논문으로 구성된 법구경 연구서. 게재된 논문은 다음과 같다.

| | |
|--------------------|-----|
| 第1章 ウダーナと法句 | 1 |
| 第2章 法句經について | 29 |
| 第3章 法句經對照表 | 73 |
| 第4章 漢譯法句經の翻譯成立について | 263 |
| 第5章 漢譯法句譬喻經について | 339 |

| | |
|--------------------|---------|
| 第6章 出曜經の研究 | 357 |
| 第7章 法集要頌經の研究 | 477-515 |

1981-3

「ジャータカにおける菩薩思想」『菩薩思想』西義雄博士頌壽記念論集, 東京, 大東出版社, pp.15~32.

1982-1

「梵語法句經(SDhp)の研究」『佛教研究』第11號, 浜松, 國際佛教徒協會, pp.1~93.

1982-2

「諸法句經の新古について」『佛教研究』第12號, 浜松, 國際佛教徒協會, pp.1~30.

1982-3

「悟りについて」『愛知學院大學禪文化研究所紀要』愛知縣, 愛知學院大學禪文化研究所, pp.47~70.

1983

「無碍解道について」『佛教研究』第13號, 浜松, 國際佛教徒協會, pp.1~22.

1984

「原始佛教における心」『心』佛教思想 9, 佛教思想研究會編, 京都, 平樂寺書店, pp.109~144.

1985

「Pali, Sanskrit, Prakrit 相互の關係語の語形及び語義の異同について(その一)」

・『佛教研究』第15號, 浜松, 國際佛教徒協會, pp.1~38.

1986

・『佛教の眞髓』東京, 春秋社.

1987

「Pali, Sanskrit, Prakrit 相互の關係語の語形及び語義の異同について(その二)」

・『佛教研究』第16號, 浜松, 國際佛教徒協會, pp.3-50.

1988

「『雜阿含經』の研究と出版」『佛教研究』第17號, 浜松, 國際佛教徒協會, pp.1~46.

1989

「漢譯の『中阿含經』と『增一阿含經』」『佛教研究』第18號, 浜松, 國際佛教徒協會, pp.1~42.

1990-1

「梵語法句經(SDhp)の研究(その二)」『佛教研究』第19號, 浜松, 國際佛教徒協會, pp.1~66.

1990-2

「研究の回顧」『パリー文化學の世界』水野弘元博士米壽記念論集, 東京, 春秋社, pp.265~315.

본 논문은 미즈노 고겐 박사의 자서전적인 연구사에 대한 기록이자 미즈노 박사를 중심으로 한, 일본에서의 팔리불교학의 연구사이기도 하다. 위에 발표된 대부분의 주요 논문에 대한 해제와 설명, 연구 배경 등에 대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미즈노 박사의 연구의 회고는 일본의 팔리불교의 연구사를 알리고 하는 이들에게는 필독의 논문임에 틀림없다. 본 논문의 본문과 말미에 박사의 연구업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현재 일본에서 팔리불교학의 頂點에 위치하고 있는 미즈노 박사는, 현재 94세의 노령에도 불구하고 논문과 저술을 집필하고 있다.

1991

「『パリー法句經』偈の對應表」『佛教研究』第20號, 浜松, 國際佛教徒協會, pp.1~50.

1992

「『スッタニパータ』の偈や經の對應表」『佛教研究』第21號, 浜松, 國際佛教徒協會, pp.1~56.

1993

「長老偈, 長老尼偈の對應表」『佛教研究』第22號, 浜松, 國際佛教徒協會, pp.3~83.

1995

「諸法句經の偈の比較對照」『佛教研究』第24號, 浜松, 國際佛教徒協會, pp.5~76.

4.14. 佐藤密雄(사토 미츠오, 1901~) 大正大學名譽教授³⁴⁾

淨土宗. 1929년, 大正대학 불교학과 졸업. 초기불교 및 팔리불교 전공. 1944년, 大正대학 조교수, 1947년, 同 대학 교수가 됨. 1960년, 문학박사 학위 취득. 1963-1966년, 同 대학 학장 역임. 1972년, 大正대학 정년퇴임 후 佛教대학 교수, 大正대학 강사 등 역임. 淨土宗 高德院 住職. 원시불교 교단에 대한 연구와 팔리 아비달마에 대한 연구에 공헌. 특히 붓다교사가 주석한 『論事 註』에 대한 번역은 주목할 만한 작업이다.

사토 미츠오 박사의 약력 및 저술에 대해서는 佐藤博士古稀記念『佛教思想論叢』(東京, 山喜房佛書林, 1972)pp.i-vi 참조.

남전대장경 번역.

1937

•『分別論 I』(南傳大藏經 46, 1973년 再刊)

1939

•『論事 I 大品』(南傳大藏經 57, pp.1~220, 1974년 再刊)

1939

•『論事 II 』(南傳大藏經 58, 13品 以下, pp.217~441, 1974년 再刊)

1940

•『分別論 II』(南傳大藏經 47, pp.1~212, 1973년 再刊)

주요저술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933

•『論事 附 覺音註』(佐藤良智 共著) 東京, 大東出版社.

1963

•『原始佛教教團の研究』東京, 山喜房佛書林. 사토 미츠오 박사의 학위논문(書評: 平川彰, 『宗教研究』 178, 1964년, pp.100~107).

34) 이미 절판되어 찾는데 어려웠었던 사토 미츠오 박사의 古稀記念論文集을 참조하게 해 준 山喜房佛書林의 淺地康平님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린다.

상가 조직을 전체적으로 해명하려고 시도한 최초의 역작. 이 연구 이후, 히라카와 아키라 박사의 『原始佛教の研究』 등으로 이어지는 승단에 대한 연구가 진행·규명되었다.

본서의 목차를 통해서 내용의 개략을 살펴본다.

| | |
|-----------------------|---------|
| 第一章 序 說 | 1 |
| 第二章 出家と比丘 | 105 |
| 第三章 比丘の入團と依止 | 171 |
| 第四章 僧伽の組織 | 267 |
| 第五章 僧伽の諍事と滅諍 | 329 |
| 第六章 僧伽における懲罰羯磨 | 411 |
| 第七章 戒經と安居・布薩 | 481 |
| 第八章 律法と淨法 | 577 |
| 第九章 佛教の依制 | 665 |
| 第十章 提婆の破僧と第一結集 | 779 |
| 附錄 フラウフルナ-氏作製の古犍度について | 838-879 |

1967

•『佛教教團の成立と展開-原始佛教教團と戒律』東京, 教育新潮社.

1968

「原始佛教の教團理念」『佛教教團の研究』(芳村修基編) 京都, 百華苑, pp.71~94.

1975

「清淨道論に於ける止觀」『止觀の研究』東京, 岩波書店, pp.113~138.

1984

「清淨道論の道修による煩惱の捨斷」那須政隆博士米壽記念『佛教思想論集』成田, 成田山新勝寺, pp.83~91.

1991

•『新訂増補 論事 附 覺音註』東京, 山喜房佛書林.

1993

「律藏犍度部の成立」『戒律の研究』森章司編, 東京, 溪水社, pp.203~212.

4.15. 増谷文雄(마스타니 후미오, 1902~1987)

昭和시대의 종교학·불교학자. 1925년, 東京帝大 종교학과 졸업. 1947년, 東京外國語大學교수, 1960년, 東京대학에서 문학박사 학위 수여. 1964년, 東京外國語大學 정년 퇴임. 大正大學교수, 일본종교학회 회장 역임. 종교 신비주의 및 불교의 종교학적 연구에 많은 업적을 남김, 특히 초기경전인 阿含經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 원시불교 연구 및 일반인을 위한 알기 쉬운 해설서 저술을 통한 포교에 공헌.

마스타니 후미오 박사의 약력 및 연구업적에 대해서는 『三康文化研究所 所報』 第23號, (東京, 三康文化研究所) 1988, pp.18-51, 참조.

1930

• 『佛教とキリスト教の比較研究』 東京, 山喜房佛書林. 1968年, 東京, 筑摩書房.

1932

• 『佛陀時代』 東京, 春秋社. 1982年, 増谷文雄著作集 第3, 東京, 角川書店.

1971

• 『根本佛教と大乘佛教』 東京, 佼成出版社

1979

• 『阿含經典』 全4卷 東京, 筑摩書房. 1983-1984 初版 8刷.

여기에 번역된 경전들은 漢譯 阿含經과 팔리 니카야에서 주제별로 선별한 것들이다.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권 - 總論

존재의 법칙(緣起)에 관한 경전군

제2권 - 인간의 분석(五蘊)에 관한 경전군

제3권 - 인간의 감관(六處)에 관한 경전군

실천의 방법(道)에 관한 경전군

제4권 - 詩(偈)에 관한 경전군

1982-1

• 『近代の宗教的生活者』 増谷文雄著作集 第12, 東京, 角川書店.

저작집 제12권에 「近代佛教思想史」가 실려 있음. 여기에 메이지佛教에 대한 연구가 있음.

1982-2

• 『根本佛教の研究』 増谷文雄著作集第四, 東京, 角川書店.

1985

• 『近代佛教への道』 「阿含經典」を読む 一, 東京, 角川書店.

• 『詩(偈)のある經典』 「阿含經典」を読む 二, 東京, 角川書店.

• 『存在の法則(緣起)に關する經典』 「阿含經典」を読む 三, 東京, 角川書店.

• 『經典による文學形式』 「阿含經典」を読む 四, 東京, 角川書店.

4.16. 渡邊照宏(와타나베 쇼코, 1907~1977)

眞言宗智山派. 東洋大學名譽教授. 일본의 대표적인 불교학자 가운데 한 사람. 30여 개 언어에 대한 독해력을 바탕으로 原典에 대한 번역 및 연구 성과가 20여 책의 저술로 남아있음. 1930년, 東京帝大 인도철학과 졸업. 독일에 4년간 유학하여 로이만박사에게 師事. 九州大學을 거쳐 東洋大學 교수 역임. 成田山佛教文化研究所 주임연구원. 문학박사.

와타나베 쇼코 박사의 저작에 대한 정보는 渡邊重郎 「渡邊照宏主要著作目錄」(『渡邊照宏 佛教學論集』 東京, 筑摩書房, 1982, pp.559-572)을 참조함.

65권 70책의 『南傳大藏經』 번역 가운데 13책의 경론을 번역함. 번역한 경론은 다음과 같다.

1935

• 『小部經典』(Khuddaka-nikaya) 18, 無碍解道(Pāṭisambhida-magga)

1, 論母, 小品(南傳大藏經 40, 東京, 大藏出版社(이하 출판사명 생략), 1972年 再刊).

1936

• 『小部經典』 19, 無碍解道 2, 俱存品, 慧品.(南傳大藏經 41, 1972年 再刊)

1936

- 『雙論』(Yamaka) 1, 1-6(南傳大藏經 48上, 1973年 再刊)

1937

- 『雙論』 2, 7(南傳大藏經 48下, 1973年 再刊)

1938

- 『雙論』 3, 8-10(南傳大藏經 49, 1973年 再刊)

1938

- 『律藏』(Vinaya) 3, 小品(Mahā-vagga (南傳大藏經 3, 1970年 再刊)

1939

- 『律藏』 4, 小品(Culla-vagga) (宮本正尊 共譯) (南傳大藏經 4, 1970年 再刊)

1939

- 『相應部經典』(Samyutta-nikāya) 3, 健道品(Khandha-vagga) (南傳大藏經 14, 1971年, 再刊)

1939

- 『增支部經典』(Anguttara-nikāya) 5, 8集(南傳大藏經 21, 1971年 再刊)

1940

- 『增支部經典』 6, 9集(南傳大藏經 22上, 1971年 再刊)

1940

- 『增支部經典』 7, 10集(南傳大藏經 22下, 1971年 再刊)

1940

- 『相應部經典』 5, 大編(Mahā-vagga) 1-3(南傳大藏經 16上, 1971年 再刊)

1940

- 『相應部經典』 6, 大編 4-12(南傳大藏經 16下, 1971年 再刊)

南傳大藏經번역 작업 외의 초기불교에 대한 번역 및 저술에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1951

- 『新譯·法句經講話』東京, 大法輪閣. 「新譯·法句經(眞理の言葉)」이 수록되어 있음. 『著作集』 5에 再録.

1966

- 『新釋尊傳』東京, 大法輪閣.

1969

- 「スッタニパータ」(譯者代表) 世界の大思想 II-2, 佛典, 河出書房新社, pp.5~

- 103. 『著作集』 5에 再録.

1974-1977

- 「涅槃への道」『大法輪』東京, 大法輪閣, 1974·9-1977·3, 1977·5-1977·7. 『著作集』 2에 편집 발간. (渡邊重郎 「涅槃經研究の基本的資料 - 「涅槃への道」 備忘録」『成田山佛教研究所紀要』 6, 1981년, pp.129~171)

위의 저작 이외에도 많은 저작들이 있는데 주로 불교논리학에 관한 것들이 많으며, 法華經을 비롯한 대승경전과 대승론서에 대한 것들도 많다. 불교에 대한 논저는 대개 『渡邊照宏著作集』 全8卷(東京, 筑摩書房, 1982)에 再録되어 있음. 자세한 정보는 渡邊重郎 「渡邊照宏主要著作目録」(『渡邊宏 佛敎學論集』東京, 筑摩書房, 1982, pp.559~572) 참조하기 바람.

4.17. 舟橋一哉(후니하시 잇사이, 1909~) 大谷大學名譽教授

1933년, 大谷대학 불교학과 졸업. 大谷대학 대학원 불교학 수료. 원시 불교에 대해서는 아카누마 지젠(赤沼智善) 교수의 지도를, 아비달마 특히 稱友의 『俱舍論疏』에 대한 연구에서는 야마구치 스스무(山口益) 박사의 지도를 받음. 문학박사. 전공은 원시불교 및 아비달마불교. 1928년, 大谷대학 강사, 1953년, 同 대학 교수.

1952

- 『原始佛教思想の研究-緣起の構造とその實踐』京都, 法藏館, 1983 7刷.

이 책의 목차를 통해 게재된 논문을 알아본다.

| | |
|------------------------|---------|
| 第一 佛陀の根本思想 | 1 |
| 第二 阿含における緣起説の二面について | 61 |
| 第三 阿含の實踐道における自覺の問題 | 127 |
| - 見·修·無學·三道説の成立過程を論ず - | |
| 第四 阿含における解脫思想展開の一斷面 | 205 |
| 第五 阿含における福德について | 230 |
| 附記 「是我·異我·相在」の解釋について | 250-255 |

- 阿含經典の讀み方に關する和辻博士の誤解 -

1954

・『業の研究』京都, 法藏館.

1955

・『俱舍論の原典解明 世間品』(山口益 共著) 京都, 法藏館.

1957

「出家道と在家道とのにおける眞理觀の相異」『佛教の根本眞理』東京, 三省堂, pp.175~196.

1972-1

「初期佛教の業思想について - 相應部の一經典の解釋をめぐって -」『佛教學セミナー』16, 京都, 大谷大學佛教學會, pp.1~11.

1972-1

「俱舍論の教義についての二, 三の覚え書き」佐藤博士古稀記念『佛教思想論叢』東京, 山喜房佛書林, pp.317~330.

1973

・『佛教としての淨土教』京都, 法藏館.

본서에 초기불교 및 정토교학에 대한 후나하시 박사의 논문들 10편이 정리되어 실려 있음. 논문은 다음과 같음.

1. 「眞宗學」と「佛教學」 1
2. 佛教における淨土教の位置 12
3. 淨土論註について 28
4. 阿毘跋致・正定聚・無生法忍 96
5. 佛教における有形なるものと無形なるもの-佛教學と眞宗學との接點 129
6. 眞空妙有-佛教學と眞宗學との接點 174
7. 有漏業と無漏業-親鸞の罪福信に關聯して 197
8. 釋尊における對機說法-一人と一人との對話 216
9. 主體的把握から客觀的分析へ-原始佛教と阿毘達磨佛教との比較 229
10. 原始佛教における大乘佛教的性格 246-264

1975-1

「佛教における業論展開の一側面」『業思想の研究』京都, 文榮堂書店, 1975, pp.45~65.

1975-2

・『釋尊』京都, 法藏館.

1976

「初期佛教における宗教性的問題 - patissāという語の構造とその意味をめぐって-」奥田慈應先生喜壽記念『佛教思想論集』京都, 平樂寺書店, pp.863~872.

1978-1

「初期佛教における緣起說の位置づけ-三枝教授の批判に答える-」『佛教學セミナー』28, 京都, 大谷大學佛教學會, pp.1~13.

1978-2

「アビダルマとア-ガマについて二, 三の覚え書き」『三藏集』第三輯, 國譯一切經印度撰述部月報, 東京, 大東出版社, pp.51~64.

1983

「一切法因緣生の緣起」をめぐって」『佛教學セミナー』37, 京都, 大谷大學佛教學會, pp.1-14.

1987

・『俱舍論の原典解明 業品』京都, 法藏館

(書評: 本庄良文, 『佛教學セミナー』48, 京都, 大谷大學佛教學會, 1988, pp.99~104)

4.18. 中村元(나카무라 하지메, 1912-) 東京大學名譽教授, 東方學院院長

1936년, 東京大學文學部 印度哲學梵文學部 졸업. 1941년, 同 대학 대학원 수료. 1943년, 문학박사 학위 수여 받으며, 東京대학 문학부 조교수 부임. 1954년, 同 대학 교수. 우이 하쿠쥬 박사의 후임으로 인도철학을 담당. 1973년, 東京대학 정년 퇴임과 동시 東方學院 開講, 원장이 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강의와 강연을 해오고 있음. 일본 學士院 회원.

나카무라 하지메 박사의 연구는 인도철학에서 시작해서 원시불교, 대승불교, 인도의 역사, 비교 사상, 문화사 등의 넓은 분야에 이르기까지 펼쳐져 있다. 저술 및 논문은 일본어에 의한 것이 800여종, 歐文에 의한 것

이 210종이 있다.(1994년 4월 현재)³⁵⁾ 저술에 대한 목록은 『學問の開拓』(東京, 佼成出版社, 1986年) pp.197~281 참조. 1986년 이후의 저작도 많이 있다.

원시불교에 대한 저작은 최근의 決定版 中村元 選集(東京, 春秋社, 全32卷 別卷11卷, 1994년 3월 현재 13권 간행)으로 간행되는 시리즈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결정판 나카무라 하지메 선집에 수록되어 있는 『原始佛教』 시리즈³⁶⁾는 모두 8권으로 현재 6권이 출판되어 있다. 선집의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2

• 『ゴータマ・ブッタ I』 『中村元 選集』 決定版 第11卷, 原始佛教 I, 東京, 春秋社.(이하 출판사명은 생략)

본서는 이른바 最古層의 경전을 중심으로 인간으로서의 고타마 붓다의 모습을 그려내려고 하는 의도로 집필된 佛傳이다. 남방상좌부에서의 붓다의 생애에 대한 기본적인 경전인 자타카의 因緣譚(Nidānakathā)이나 산스크리트어로 남아있는 일반적인 佛傳문학에 의거하지 않고 저자는 성립시기가 이른 초기불전을 중심으로 붓다의 전기를 재구성하고 있다.

1992

• 『ゴータマ・ブッタ II』 『中村元 選集』 決定版 第12卷, 原始佛教 II.

35) 나카무라 하지메 박사의 저술에 대해 이처럼 구체적인 정보를 주신 悟震스님(金漢益 박사)에게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린다.

36) 決定版 中村元 選集으로 정리되어 출판되기 이전에 출판된 나카무라 하지메 박사의 中村元 選集 原始佛教 시리즈 5권의 출판 상황은 다음과 같다.

1969

『ゴータマ・ブッタ』 『中村元 選集』 第11卷, 原始佛教 1, 東京, 春秋社.(이하 출판사명은 생략)

1969

『原始佛教の成立』 『中村元 選集』 第12卷, 原始佛教 2.

1970

『原始佛教の思想 上』 『中村元 選集』 第13卷, 原始佛教 3.

1971

『原始佛教の思想 下』 『中村元 選集』 第14卷, 原始佛教 4.

1972

『原始佛教の生活倫理』 『中村元 選集』 第15卷, 原始佛教 5.

『고타마 붓다 I』권에 이어지는 불타의 전기로서 본서에서 저자는 팔리어의 大般涅槃經(Mahāparinibbāna-suttanta)를 중심으로 붓다, 최후의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고타마 붓다의 말년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1991

• 『佛弟子の生涯』 『中村元 選集』 決定版 第13卷, 原始佛教 III.

본서는 고타마 붓다의 직제자들의 생애를 『長老偈』(Thera-gāthā)와 『長老尼偈』(Therī-gāthā)를 중심으로 하여 사례 중심으로 그려낸 책이다. 본서를 통해서 독자들은 경전에 묘사되어 있는 불제자의 모습을 생동감있게 엿볼 수 있을 것이다.

1992

• 『原始佛教の成立』 『中村元 選集』 決定版 第14卷, 原始佛教 IV.

본서는 4편의 본문과 付篇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른바 저자가 말하는 「최초기의 불교」를 그려내려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쓰여 졌다. 내용의 구성을 보면, 1편. 사상적 배경(pp.3~62), 2편. 초기불교(pp.63~80)에 대한 정의, 3편. 석존을 흠모하는 사람들(pp.81~482), 4편. 초기불교에 대한 다른 시각(pp.483~572)의 본문 4편과 150여 쪽에 달하는 「原始佛教聖典成立史研究의 基準에 대하여」(pp.573~732)라는 付篇으로 되어 있다.

본서는 원전비판, 풍토적 배경의 고찰, 고고학적 조사보고 등에 의거해서 초기불교에서 이른바 원시불교에 이르는 추이발전의 전체상을 그려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付篇에서는 언어학적 또는 문헌성립사적인 방면과 사회사적 또는 문화사적인 방면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원시불전의 성립사연구의 기준을 끌어내려고 했다.(p.584)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고찰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p.730)

1. 古層에 속하는 경전으로서 스타니파타와 상응부의 有偈章(Sagātha-vagga)은 아쇼카왕 이전의 것임.

2. 슛타니파타 중에서도 제4장 「여덟의 詩句章」(Atthaka-vagga)과 제5장 「피안에 이르는 길의 장」(Pārāyana-vagga)은 석존에 가까운 시대의 사상을 전하고 있음.

3. 원시경전 가운데 대부분의 詩句는 아쇼카왕 이전의 것.

4. 현존 팔리성전 가운데 5니카야, 또는 한역 4아함의 원본 등은 그 속에 아주 오래된 자료를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散文 부분은 대체로 아쇼카왕 이후에 작성 편찬된 것임.

이와 같은 원전비판적인 연구에 근거하여 古層의 詩句가 전하는 초기의 불교의 모습은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말하고 있는 원시불교와는 꽤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古層의 詩句가 전하는 초기의 불교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pp.730~731)

1. 이른바 불교어라든가 불교 특유의 술어는 거의 보이지 않음
2. 이른바 敎義라는 것은 실해지지 않고, 오히려 회의론적인 입장에 유사한 것이 표명되어 있음
3. 불교적인 낱양스가 적고 오히려 아지비카교(邪命外道)나 자이나교를 생각케 하는 문구가 적지 않음
4. 수행승은 숲이나 동굴에서 혼자서 머문다. 또한 공동의 수행자와 함께 살고 있는 자도 있었지만 이른바 사원(精舍)에서의 공동생활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5. 초기불교의 수행자의 생활은 후대 승원의 수행자(비구)의 생활과는 꽤 달라, 오히려 서사시에 나타나는 仙人(rsi)의 생활에 가까움.
6. 초기에 尼僧은 존재하지 않았다.
7. 계율의 조목의 체계는 아직 성립하지 않는다.
8. 開祖 석존은 훌륭한 인간으로서 받아들여져, 신격화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었다.

1993

• 『原始佛教の思想 I』 『中村元 選集』 決定版 第15卷, 原始佛教 V.

본서는 이른바 저자가 말하는 초기불교의 사상에 대한 연구서이다. 전체 구성은 序編과 본론 3편으로 되어 있다.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서편. 「최초기불교에 있어서 세 가지의 발전 단계」(pp.3~174)

제1편. 기본적 입장(pp.175~306)

제2편. 인간존재의 반성(pp.307~808)

제3편. 理想의 경지(pp.809~987)

특히 제2편의 제5장 「자기의 탐구-無我說」(pp.455~674)에서는 나카무라 하지메 박사의 독특한 무아설이 제시되어 있다. 이른바 非我說로서의 무아설이 그것이다. 자세한 논의는 원문을 참조하기 바라지만 저자는 어떻게 해서라도 불교에서도 아트만이 없다(無我)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논증하려고 했다. 즉 「無我說」은 실해지지 않았다(p.501)는 것이 단적인 나카무라 박사의 주장이다.

1994

• 『原始佛教の思想 II』 『中村元 選集』 決定版 第16卷, 原始佛教 VI.

본서는 『원시불교의 사상 I』에 이어지는 저작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4편. 실천(pp.3~180)

제5편. 신앙(pp.181~310)

제6편. 사상체계화로의 진행(pp.311~604)

제7편. 신들과 우주(pp.605~778)

이상의 내용에 의해, 실천론, 三寶에 대한 신앙론, 사성제, 연기설, 우주론, 三界설 등의 원시불교의 사상적인 체계가 정비되어 가는 과정이 밝혀져 있다.

1993

• 『原始佛教の社會思想』 『中村元 選集』 決定版 第18卷, 原始佛教 VIII.

본서는 본문에서 이른바 원시불교의 사회사상(pp.9~128), 경제윤리(pp.129~264), 자연환경의 문제(pp.265~272), 국가관(pp.273~430), 평화의 문제(pp.431~444), 理想郷의 신화(pp.445~486)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리고 付編1에서는 「원시불교사상 연구의 전망」(pp.487~570)이, 付編2에서는 「현존 성전의 검토-개관」(pp.571~735)이 다루어져 있다.

「현존 성전의 검토-개관」에서는 팔리어에 대한 일본과 외국에서의 최근까지의 연구 성과와 원시불교 성전에 대한 연구 성과가 잘 정리되어 소개되어 있다.

선집 가운데에서 『原始佛教』 시리즈를 제외한 것들 가운데 원시불교와 관련이 있는 저술에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1995

• 『原始佛教の生活倫理』 『中村元 選集』 決定版 第17卷, 原始佛教 VII.

1989

• 『ヴェーダの思想』 『中村元 選集』 決定版 第8卷.

저자의 서문에 의하면, 본서는 인도사상과 문명에 대한 역사적 체계적인 서술의 첫 걸음으로 제시된 저술이다. 인도사상 가운데에서 특히 종교문화의 원천으로 베다 성전의 사상에 대해, 언어학적 문헌학적인 시각보다도 또한 민족학적 문화 인류학적 종교학적인 시각 보다는 주로 사상사적인 시각에서 서술해 나간다.

제1편이 리그·베다의 사상으로 1편의 말미에 부록으로 「불교와의 連絡」(pp.455~462)이 제시되어 있다. 정토교와의 관계, 불교어로써 전해진 諸語가 그 내용이다.

1990

• 『ウパニシャッドの思想』 『中村元 選集』 決定版 第9卷.

우파니샤드는 달리 말하여 베단타(Vedānta)라고 한다. 즉, 베다 성전의 마지막 부분, 베다의 결론 부분이라는 의미이다. 인도 육과 철학의 하나인 베단타 학파는 바로 이 베다 성전의 결론 부분인 우파니샤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자파의 이론을 구축해 간다(베단타 철학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본 논문집의 제1장을 참조하기 바람).

가장 오래된 古期우파니샤드의 기원이 기원전 800년 정도부터 라고 하며(本書 p.26), 중기 이후의 우파니샤드는 대략 불타시대와 겹치게 되어 불교 발생과 함께 사상적인 발전을 하게 된다. 같은 시기에 서로 다른 사상가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던 이른바 불교 흥기 시대의 정통적인 인도 사상의 줄기를 이어간 사람들이 우파니샤드의 哲人들이라 할 때, 불교의 사상적인 특색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파니샤드 사상을 통한 인도적 토양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본서는 우파니샤드 사상을 이해하기 위한 입문서의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는 저자의 서문은 본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의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본서의 부록으로 되어 있는 「文獻一覽」(pp.803~856)은 우파니샤드 연구를 위한 문헌적인 안내가 될 것이다.

1991

• 『思想の自由とジャイナ教』 『中村元 選集』 決定版 第10卷.

본서는 이른바 기원전 5세기 즉, 불타가 활동하던 시기에서의 자유사상가들에 대한 연구서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자이나교를 중심으로 한 인도사상 연구의 성과이다. 결정판 선집 전체가 나카무라 하지메 박사의 이전의 연구를 재정리하여 간행되고 있듯이, 본서도 서문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50년에 걸친 자이나교에 대한 나카무라 박사의 연구의 집대성이 라고 할 수 있다.

자이나교와 불교는 같은 시대,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이른바 당시의 베다 성전의 권위에 도전하며 새로운 사상적 운동을 일으킨 沙門들의 대표적인 두 사상이다. 따라서 두 사상체계는 최초의 단계에서 서로 유사한 점을 많이 지니고 있다. 본서의 부록 2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은 바로 서로 공통되는 경전의 부분들을 정리한 것이다.

본서는 전체가 2편으로 구성되어 1편(pp.3~152)에서는 「도시의 흥성과 자유로운 사색의 출현」이라는 제목으로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과 사상적인 배경에 대해 검토하면서 자유사상가들의 사상을 설명한 후, 2편(pp.153~740)에서 자이나교의 사상을 원시 자이나교와 중세 자이나교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자이나교를 이해하기 위한 좋은 입문서가 될 것이다.

부록은 3편으로, 1. 원시 자이나교에 있어서 해탈의 관념(pp.713~740), 2. 자이나 성전과 원시불전에 있어서 공통요소(pp.741~772), 3. 자이나교 성전(pp.773~856)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이나교 연구성과는 부록 3과 문헌목록(pp.857~875)를 참고하면 될 것이다.

1994

•『原始佛教から大乘佛教へ』『中村元 選集』決定版 第20巻, 大乘佛教 I.

본서는 원시불교에서 부파불교를 거쳐 대승불교에 이르기까지의 불교 사상의 흐름에 대한 논문을 정리한 연구서이다. 주로 전통적·보수적 불교로서 有部の 교학을 정리하였고, 부파불교에서 대승불교로 전개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번역서

나카무라 하지메 박사의 다음의 원시경전에 대한 번역들의 특징은 1. 이해하기 쉬운 현대어역이라는 점, 2. 상세한 주석적인 설명이 번역의 분량 만큼 첨가되어 있다는 점, 3. 대부분의 번역의 원전이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인정하는, 원시불교 성전성립사에 있어서 古層에 속하는 경전이라는 점에 있다. 번역의 연대순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958

•『ブッダのこぼさスッタニパータ』(Suttanipāṭa) 岩波文庫, 東京, 岩波書店.
1984, 増訂版・大型版.

1963-1964

•『ミリンダ王の問い-インドとギリシアの対決-』全3巻(Milinda-pañha) (早島鏡正 共譯) 東京, 平凡社.

1978

•『ブッダの眞理のこぼさ-感興のこぼさ』(Dhammapada·Udānavarga) 岩波文庫, 東京, 岩波書店. 1984, 大型版.

1980

•『ブッダの最後の旅』(Mahāparinibbāna-suttanta) 岩波文庫, 東京, 岩波書店.

1982

•『佛弟子の告白-テ-ラガ-タ-』(Theragāthā) 岩波文庫, 東京, 岩波書店.
•『尼僧の告白-テ-リ-ガ-タ-』(Therīgāthā) 岩波文庫, 東京, 岩波書店.

1986

•『ブッダ 神神との對話-サンユッタ・ニカーヤ I』(Samyutta-nikāya, Sagāthavagga i-iii) 岩波文庫, 東京, 岩波書店.
•『ブッダ 惡魔との對話-サンユッタ・ニカーヤ II』(Samyutta-nikāya, Sagāthavagga iv-xi) 岩波文庫, 東京, 岩波書店.

1982-1991

•『ジャータカ 全集』全10巻(Jātaka)(監修・補註) 東京, 春秋社.

다음은 원시불교에 수많은 논문 가운데 몇 편만을 들어 본다. 대부분의 논문들은 選集 안에 재록 되어 있으므로 選集을 참고하기 바란다.

•「原始佛教成立史研究の基準について」『日本佛敎學會年報』21, 日本佛敎學會, pp.1~14.

1975

「原始佛教における止觀」『止觀の研究』東京, 岩波書店, pp. 35~50.

1979

「原始佛教の比較思想論的研究」『佛教の比較思想論的研究』東京, 東京大學出版會, pp.87~122.

4.19. 雲井昭善(구모이 쇼젠, 1915~) 大谷大學名譽教授

天台宗. 1941년, 大谷大學 文學部 佛敎學科(原始佛敎專攻) 卒業. 1944년, 京都帝國大學 文學部 哲學科 印度哲學選科 수로. 1953~1955년, 2년간 東京大學 文學部 印度哲學科에 内地 유학. 1955년, 大谷대학 전임. 1961년, 同 대학 교수. 1961년, 『佛敎と社會的基盤の研究』(『佛敎興起時代の思想研究』로 출판)로 문학박사 학위 취득. 1961-1963년, 독일의 원대학 인도학연구소 객원 연구원, 에리히 홀라우와르너(1898-1974) 박사와 연구. 1981년, 大谷대학 정년 퇴직, 同 대학 名譽教授. 1982년, 佛敎大學 교수.

구모이 쇼젠 박사의 저술 및 논문에 대해서는 雲井昭善博士古稀記念『佛教と異宗教』京都, 平樂寺書店, 1985, pp.9~22. 참조.

1961

•『巴和小辭典』京都, 法藏館.

1963

「宿命論·無因論·有神論と佛教の批判」 『自我と無我—インド思想と佛教の根本問題—』京都, 平樂寺書店, pp.201~226

1966

「現在涅槃論(Diṭṭhadhamma-nibbana-vāda)とその論点」 金倉博士古稀記念『印度學佛教學論集』京都, 平樂寺書店, pp.19~37.

1967

『佛教興起時代の思想研究』京都, 平樂寺書店. (書評, 前田惠學, 『佛教學セミナー』6, 京都, 大谷大學佛教學會, 1967, pp.55~59. 藤田宏達, 『宗教研究』第199號, 1969, pp.117~122) 구모이 쇼젠 박사의 학위논문. (原題:『佛教と社會的基盤の研究』)

목차를 통해 책의 구성을 알아본다.

| | |
|-----------------------------------|-----|
| 序言 | 3 |
| 問題の所在 | 5 |
| 第一章 佛教興起時代 | 14 |
| 第一節 時代設定の問題点 | 14 |
| 第二節 佛教興起時代の歴史的意義 | 19 |
| 第二章 佛教興起以前のインド | 39 |
| 第一節 祭祀の宗教より思索の哲學へ—自由思想への橋梁としての— | 39 |
| 第二節 自由思想の興起—種種なる思惟— | 47 |
| 第三章 佛教興起時代の諸思想 | 62 |
| 第一節 ブッダ時代における自由思想家の系譜 | 62 |
| 第二節 順世派(Lokāyata, Lokāyatika)について | 97 |
| 第三節 邪命派(Ājīvika, Ājīvaka)について | 125 |
| 第四節 現在涅槃論とその論点 | 163 |
| 第四章 佛教興起の社會的基盤 | 185 |
| 第一節 經濟社會の確立 | 185 |
| 第二節 王族·商工業者の進出とその影響 | 205 |

| | |
|-------------------------------|---------|
| 第三節 佛教教團の支持者 | 222 |
| 第五章 宗教とその本質—バラモン宗教と불교의論点— | 235 |
| 第一節 祭祀の宗教と佛教の立場 | 235 |
| 第二節 來世攷—その二つの論点— | 255 |
| 第三節 宿命論·無因論·有神論と佛教の批判 | 280 |
| 第四節 四姓平等の意味するもの—特に佛教の平等觀— | 304 |
| 第六章 原始佛教の倫理性 | 339 |
| 第一節 佛教における人間の問題—六師外道との比較において— | 339 |
| 第二節 世間の考察 | 357 |
| 第三節 善·惡の問題 | 367 |
| 第四節 原始佛教における輪廻の問題 | |
| —佛陀以前の輪廻思想と關連して— | 375 |
| 總論—本書の構成と要旨— | 426-428 |

1972-1

「ブッダにおける對話の在り方」 『佛教研究』第2號, 浜松, 國際佛教徒協會, pp.24~38.

1972-2

「ニカーヤにおける brahma- と dhamma- との對句用例」 佐藤博士古稀記念『佛教思想論叢』東京, 山喜房佛書林, pp.61~81.

1974

「Titha-kara(Sk. Tirtha-kara)について」 『佛教研究』第4號, 浜松, 國際佛教徒協會, pp.23~32.

1975-1

「インド思想と業」 『業思想の研究』京都, 文榮堂書店, 1975, pp.387~403.

1975-2

「原始佛教に現われた愛の觀念」 『愛』佛教思想 1, 佛教思想研究會編, 京都, 平樂寺書店, pp.35~94.

1975-3

「佛教興起時代の諸思想(一),(二)」 『三藏集』第一輯, 國譯一切經印度撰述部月報, 東京, 大東出版社, pp.21~35.

1976-1

「禪定と三昧—佛教とヨーガ派との關わり—」 『佛教學セミナー』23, 京都, 大谷大學佛教學會, pp.1~23

1976-2

「善惡應報の思想-インド一般思想として-」『惡』佛教思想 2, 佛教思想研究會編, 京都, 平樂寺書店, pp.89~114.

1977

「原始佛教資料におけるヨーガ(Yoga)の概念」『佛教研究』第6號, 浜松, 國際佛教徒協會, pp.23~47.

1978

「業因果果と無因無緣論」『因果』佛教思想 3, 佛教思想研究會編, 京都, 平樂寺書店, pp.55~82.

1979-1

『業思想研究』(編) 京都, 平樂寺書店.
(pp.1~72까지의 「印度思想における業の種種相」이 구모이 쇼젠 박사의 논문)

1979-2

「原始佛教における恩の思想」『恩』佛教思想 4, 佛教思想研究會編, 京都, 平樂寺書店, pp.57~86.

1980-1

「パータリプトラ(Pataliputra, Pataliputta)考」『佛教學セミナー』31, 京都, 大谷大學佛教學會, pp.120.

1980-2

「時代・社會苦-末法と苦」『苦』佛教思想 5, 佛教思想研究會編, 京都, 平樂寺書店, pp.241~264.

1981

「原始佛教における菩薩の觀念」『菩薩思想』西義雄博士頌壽記念論集, 東京, 大東出版社, pp.3~14.

1982-1

「ニカーヤに見える定型句」『パーリ佛教文化研究』東京, 山喜房佛書林, pp.1~22.

1982-2

「原始佛教における解脫」『解脫』佛教思想 8, 佛教思想研究會編, 京都, 平樂寺書店, pp.81~116.

1984

「釋尊觀」をめぐる一, 二の視點」『佛教學セミナー』40, 京都, 大谷大學佛教學會, pp.1~15

1985

「佛教と異宗教-ヨーガ學派と佛教との交渉」雲井昭善博士古稀記念『佛教と異宗教』京都, 平樂寺書店, pp.3~40

1990

「パーリ語辭典の編纂」『パーリ文化學の世界』水野弘元博士米壽記念論集, 東京, 春秋社, pp.3~24.

4.20. 平川彰(히라카와 아키라, 1915~) 東京大學名譽教授

1941년, 東京帝國大學 文學部 印度哲學梵文學部 졸업. 1950년, 北海道대학 법문학부 조교수. 1954년, 東京대학 문학부 조교수. 1959년, 문학박사 학위 취득. 1962년, 同 대학 교수. 1975년, 東京대학 정년 퇴임. 同年, 早稻田대학 교수가 되어 1985년 정년 퇴임까지 근무. 일본 學士院 회원. 초기불교사상, 아비달마, 율장, 초기대승불교의 기원에 관한 문제, 대승불교사상, 중국불교, 일본불교에 이르는 불교의 전반적인 분야에 걸친 연구 업적을 남김. 특히 율장을 중심으로 한 초기불교사상 및 교단사 연구와 초기대승불교 교단사를 중심으로 한 대승불교의 발생에 대한 연구에 주력함.

히라카와 아키라 박사의 논저 가운데 초기불교 및 아비달마에 관한 것들만 소개한다. 그 외의論著는『佛教思想の諸問題』平川彰博士古稀記念論文集(東京, 春秋社, 1985)의 著作目録과『平川彰著作集』全17권(1994년, 3월, 既刊 10권)에 대한 정보는 春秋社의 圖書目録(1993년)참조.

『平川彰著作集』은 第一集 佛教思想研究 全8卷과 第二集 佛教の戒律 全9卷으로 구성되어 있다. 17권의 이름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第一集 佛教思想研究 全8卷

- * 1. 『法と緣起』
- * 2. 『原始佛教とアビダルマ佛教』
- * 3. 『初期大乘佛教の研究 I』
- * 4. 『初期大乘佛教の研究 II』
- * 5. 『大乘佛教の教理と教團』
- * 6. 『初期大乘と法華思想』

- * 7. 『淨土思想と大乘戒』
- * 8. 『日本佛教と中國佛教』
- 第二集 佛教の戒律 全9卷
- 9. 『律藏の研究 I』
- 10. 『律藏の研究 II』
- 11. 『原始佛教の教團組織 I』
- 12. 『原始佛教の教團組織 II』
- 13. 『佛教教團の衣食住』
- * 14. 『二百五十戒の研究 I』
- * 15. 『二百五十戒の研究 II』
- * 16. 『二百五十戒の研究 III』
- 17. 『比丘尼律の研究』

* 표시는 既刊(1995年 9月, 現在)

초기불교와 아비달마에 대한 논문들은 대략 『平川彰著作集』 1, 2卷에 수록되어 있으며, 율장에 대한 연구는 『平川彰著作集』 9, 10, 14, 15, 16, 17卷에, 그리고 초기불교 교단조직에 대해서는 『平川彰著作集』 11, 12, 13卷(未刊)으로 간행될 예정이다. 간행된 원시불교 관계 저작은 다음의 저작 소개 항목 참조.

1957

「戒律より見たる佛教眞理觀」 『佛教の根本眞理』 東京, 三省堂, pp.259~284.

1960

・『律藏の研究』 東京, 山喜房佛書林. 히라카와 아키라 박사의 학위논문.

목차를 통해 내용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 | |
|---------------------|---------|
| 第一章 律藏の資料論的意義 | 1 |
| 第二章 漢譯律藏翻譯の研究 | 115 |
| 第三章 經分別の成立より見た諸律の新古 | 291 |
| 第四章 波羅提木叉の研究 | 417 |
| 第五章 佛傳より見た受戒捷徑の新古 | 511 |
| 第六章 戒度部組織の原型の研究 | 591 |
| 第七章 七百戒度より見た律藏の形態 | 671 |
| 附 録 律藏に引用される經典 | 759-791 |

1963

「無我と主體-自我の緣起的理解, 原始佛教を中心として-」 『自我と無我-インド思想と佛教の根本問題-』 京都, 平樂寺書店, pp.381~422.

1964

・『原始佛教の研究-教團組織の原型』 東京, 春秋社. (書評; 藤田宏達, 『宗教研究』 第185號, 1965. pp.102~108)

본서는 교단조직 연구를 통해서 원시불교를 이해하고자 한 연구서이다. 교리면에서보다 계율이나 승단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실생활면에서의 원시불교의 특징을 이해하려고 하는 히라카와 아키라 박사의, '자료론으로서의 『律藏研究』'에 이은 내용적인 연구. 간단히 목차를 적어본다.

| | |
|-----------------------|---------|
| 第一章 原始佛教におけるサンガの意義 | 1 |
| 第二章 サンガ結合の精神的紐帶 | 93 |
| 第三章 僧伽の二重構造-現前僧伽と四方僧伽 | 289 |
| 第四章 僧伽の構成員 | 397-547 |

1970

Shan-Chien-P'i-P'o-Sha:a Chinese Version by saṅghabhadra of Samanta-pāsādikā, (P.V.Bapat 共著) Bhandarkar Oriental Series, No.10, Poona.

1972

「原始佛教の定義の問題」 『佛教研究』 創刊號, 浜松, 國際佛教徒協會, pp.1~18.

1973

・『俱舍論索引・第一部』(共著) 東京, 大藏出版.

1974-1

・『インド佛教史・上』 東京, 春秋社.

1974-2

「原始佛教・アビダルマにおける時間論」 『講座 佛教思想』 第一卷 存在論 時間論, 東京, 理想社, pp.181~226

1974-3

「原始佛教の認識論」 『講座 佛教思想』 第二卷 認識論 論理學, 東京, 理想社., pp.15~54.

1975

『律藏に現われた禪の實踐』『止觀の研究』東京, 岩波書店, pp. 51-72.

1977

・『俱舍論索引・第二部』(共著) 東京, 大藏出版.

1978

・『俱舍論索引・第三部』(共著) 東京, 大藏出版.

1979-1

・『インド佛教史・下』東京, 春秋社.

1979-2

『律藏におけるカルマンの問題 - 遮說戒を例として -』『業思想研究』京都, 平樂寺書店, pp. 73~98.

1984

・『佛教研究入門』(編著) 東京, 大藏出版.

1988

・『法と緣起』平川彰著作集 第1卷, 東京, 春秋社.

원시불교 및 팔리불교에서의 法과 緣起를 중심으로 한 논문들이本書에 정리되어 실려 있음. 간단하게 목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
|--------------------|---------|
| 第1章 原始佛教における「法」の意味 | 3 |
| 第2章 「存在」としての法 | 87 |
| 第3章 法實の法の意味 | 181 |
| 第4章 四諦說の種種相と法觀 | 213 |
| 第5章 緣起思想の源流 | 271 |
| 第6章 緣起と界 | 559-596 |

1991

・『原始佛教とアビダルマ佛教』平川彰著作集 第2卷, 東京, 春秋社.

本書에는 1988년의 平川彰著作集 第1卷에 실리지 않은, 초기의 교단사 문제, 원시불교사상, 그리고 아비달마불교에 대한 16편의 논문이 정리되어 실려 있음. 실린 논문은 다음과 같음.

第1篇 教團史研究

| | |
|--------------------------------|----|
| 第1章 佛滅年代論-佛陀の入滅年代に關する資料の評價について | 5 |
| 第2章 原始佛教の定義の問題 | 83 |

| | |
|----------------------------------|---------|
| 第3章 九分十二部經の原型と大乘經典との關係 | 107 |
| 第4章 アショ-カ王の七種の經名より見た原始經典の成立史 | 125 |
| 第5章 佛滅後の教團における阿難の位置-佛陀時代の中インドの地理 | 141 |
| 第2篇 原始佛教の思想 | |
| 第1章 阿含の中道說 | 169 |
| 第2章 無我と主體 - 自我の緣起的理解, 原始佛教を中心として | 203 |
| 第3章 初期佛教の倫理 - とくに倫理的主體の問題を中心として | 239 |
| 第4章 原始佛教の倫理 | 267 |
| 第5章 原始佛教の認識論 | 307 |
| 第6章 信解脱より心解脱への展開 | 345 |
| 第3篇 アビダルマ佛教 | |
| 第1章 原始佛教・アビダルマ佛教における時間論 | 365 |
| 第2章 佛教の時間論 | 409 |
| 第3章 有刹那と刹那滅 | 439 |
| 第4章 說一切有部の菩薩論 | 457 |
| 第5章 說一切有部の認識論 | 491-525 |

1993-1

・『二百五十戒の研究 I』平川彰著作集 第14卷, 東京, 春秋社.

目次

| | |
|-----------------|-----|
| 序 章 二百五十戒と波羅提木叉 | 3 |
| 一 波羅提木叉の意味 | 3 |
| 二 二百五十戒 | 7 |
| 三 戒經の資料 | 11 |
| 四 廣律の研究 | 23 |
| 五 律藏傳持の部派の問題 | 37 |
| 第一章 「戒序」の研究 | 67 |
| 一 布薩の準備 | 67 |
| 二 「戒序」の前分 | 76 |
| 三 「戒序」の羯磨 | 83 |
| 第二章 波羅夷法の研究 | 101 |
| 一 二百五十戒と波羅夷の關係 | 101 |
| 二 波羅夷法第一條 淫戒の研究 | 139 |
| 三 波羅夷法第二條 盜戒 | 208 |

| | |
|---|---------|
| 四 波羅夷法第三條 斷人命戒 | 255 |
| 五 波羅夷法第四條 妄說得上人法戒 | 298 |
| 第三章 僧殘法の研究 | 357-568 |
| (승잔법의 연구 부분에는 14가지 승잔법에 대한 자세한 연구가 되어 있음 목차 는 생략함) | |
| 1993-2 | |
| • 『二百五十戒の研究 II』 平川彰著作集 第15卷, 東京, 春秋社. | |
| 目次 | |
| 第四章 不定法の研究 | 3 |
| 第五章 捨墮法の研究 | 47-607 |
| (사타법 30 조목에 대한 연구, 목차 생략) | |

위의 두 권의 계율 조목의 연구서는, 이어지는 제3권 『二百五十戒の研究 III』과 함께 계율 하나 하나의 조목에 대한 최초의 구체적이며 자세한 해설·연구서이다. 『二百五十戒經』을 중심으로 팔리울, 漢譯의 각종 율장을 자료로 율의 조목을 비교연구하고 있다. 각 부파에서 전하고 있는 율장들을 비교연구 함에 의해 히라카와 아키라 박사는 부파불교의 원천인 원시불교의 계율의 원형을 추출해 내려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1993-3, p. ii)

1993-3

「僧伽における制裁の問題」『戒律の研究』森章司編, 東京, 溪水社, pp.213~238.

1994

• 『二百五十戒の研究 III』 平川彰著作集 第16卷, 東京, 春秋社.

4.21. 玉城康四郎(다마키 고시로, 1915~) 東京大學名譽教授

불교학자. 1940년, 東京帝大 印度哲學梵文學科 졸업. 문학박사. 1959~1976년, 東京대학 교수. 東北대학, 日本대학 교수 역임. 인도사상, 인도불교, 중국불교, 일본불교 및 비교사상 분야의 폭넓은 연구 업적을 남김.

1975

「愛に關する新約聖書と原始經典」『愛』佛教思想 1, 佛教思想研究會編, 京都, 平樂寺書店, pp.341~397.

1979-1

「原始經典における業異熟の究明」『業思想研究』京都, 平樂寺書店, pp.145~230.

1979-2

• 『佛教の比較思想論的研究』(編)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ブッダとキリスト・パウロ・ダンマとブネウマを軸として」上書, pp.3~58.

1979-3

「原始經典のダンマター論」『中央學術研究所紀要』第8號, 東京, 中央學術研究所, pp.4~30.

1982-1

「印度佛教における眞理・價值論」『講座 佛教思想』第5卷 宗教論 眞理・價值論, 東京, 理想社, pp.275~352

1982-2

「空思想への反省」『空 下』佛教思想 7, 佛教思想研究會編, 京都, 平樂寺書店, pp.907~1015.

1985-1

• 『佛教の思想 1-原始佛教』京都, 法藏館

수록논문 및 出處

1. 「佛教研究の反省」 pp.2~19. 『東北印度學宗教學會論集』3號 1978(原題=「佛教の根底-佛教研究の反省」)

2. 「ブッダの解脱」 pp.20~61.

3. 「原始佛教における法の根源態」 pp.62~108. 『平川彰博士還曆記念論文集 佛教における法の研究』東京, 春秋社, 1975

4. 「原始佛教における佛の根源態」 pp.109~145. 『神觀念の比較文化論的研究』東京, 講談社, 1981.(原題=「原始佛教における佛の觀念」)

5. 「インド佛教における眞理觀」 pp.146~238. 『講座佛教思想』第5卷 東京, 理想社, 1982.

1985-2

「心解脱・慧解脱に關する考察」『佛教の歴史と思想』壬生台舜博士頌壽記念, 東京, 大藏出版, pp.295~371.

1985-3

・『比較思想論究 - 全人格の思惟に裏づけられつつ』東京, 講談社.

이 논문집에 다마키 고시로 박사의 비교사상에 대한 논문이 정되어 실려 있음. 목차를 통해 게재된 논문을 살펴본다.

| | | |
|-------|-------------------------------------|---------|
| 序論 | 比較思想の軌跡と意味 | 3 |
| 第I部 | 佛教と西洋思想 | 29 |
| 第1章 | 唯識思想とカントの認識論-ア-ラヤ識と先驗的統覺を中心として | 30 |
| 第2章 | 如來藏思想とシェリング哲學 | 123 |
| 第3章 | 佛教と實踐哲學 | 182 |
| 第4章 | 道元の比較思想 | 329 |
| 第II部 | 佛教とキリスト教 | |
| 第1章 | 序説 | 404 |
| 第2章 | ブッダとキリスト・パウロ - ダンマとプネウマを軸として | 438 |
| 第3章 | 愛に関する新約聖書と原始經典 | 496 |
| 第III部 | 自我の比較思想 | 547 |
| 第IV部 | 冥想的世界の現象論的究明-カント, フィヒテ, シェリングを端緒として | 643-675 |

1993

「緣起の眞意-原型への復歸-」『印度學佛教學研究』42-1, 東京, 日本印度學佛教學會, pp.204~210.

4.22. 佐佐木現順(사사키 겐준, 1915~) 大谷大學名譽教授

淨土眞宗. 1950년, 京都大學 哲學科(哲學專攻) 졸업. 舊 대학원 3년 수료. 大谷대학의 아카누마 지젠 교수에게서 팔리불교에 대해 배움. 1954~1956년, 2년간 바파트(P.V.Bapat) 박사의 지도하에 인도에서 연구. 그 후 1년간 함부르크대학 객원교수로 연구. 하버드대학 폴브라이트 교수 유학, 캘리포니아대학, 大阪대학, 大阪市立대학 강사, 인도 國際研究所 교수, 大谷대학 교수, 한국 東國대학 교수 등 역임. 문학박사.

Ph.D.(Hon.).

언어학을 통한 철학적인 개념들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주로 南·北傳 아비달마불교의 심리학적 연구에 공헌.

1958

・『阿毘達磨思想研究-佛教實在論の歴史的批判的研究』東京, 弘文堂.

본서는 3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이 남전 아비달마, 제2편이 북전 아비달마, 제3편이 아비달마의 철학과 대승불교의 전개로 되어 있다. 목차를 통해 전체 내용을 개관해 본다.

| | | |
|-----|------------------------------------|---------|
| 第一篇 | 南傳阿毘達磨の哲學 | 1 |
| 第一章 | 哲學的基礎概念の分析 | 1 |
| 第二章 | 自性的世界とその構造 | 68 |
| 第三章 | 時間論を中心とした緣起思想の解釋 | 138 |
| 第四章 | 認識論的立場と四諦論の展開 | 169 |
| 第五章 | 心理過程としての認識論 | 204 |
| 第二篇 | 北傳阿毘達磨の哲學 | 223 |
| 第一章 | 哲學的基礎概念の分析 | 223 |
| 第二章 | 認識と實踐-慧の實踐的構造 | 277 |
| 第三章 | 認識主體の問題 | 307 |
| 第四章 | 衆賢認識論の展開 | 343 |
| 第三篇 | 阿毘達磨哲學と大乘佛教の展開 | 473 |
| | - 大乘における古典梵語の成立とその思想の變遷 - | |
| 第一章 | パーリ語とヴェディック・梵語との關係 | 473 |
| 第二章 | 事實と根據-pariyāya と nipariyāya- | 492 |
| 第三章 | ヴェーダ思想の佛教的展開-nipattamanaの意義- | 516 |
| 第四章 | 我の概念の佛教思想化-asamimāna- | 529 |
| 第五章 | 否定論理の歴史的展開-nekkhamma と naiṣkramya- | 550 |
| 第六章 | 原意に附加された思想發展の意味-khanti と kṣanti- | 580 |
| 第七章 | プラクリットの正當な古典梵語化-dīpa と dvipa- | 594-603 |

1960

・『佛教心理學の研究-アッタサ-リニ-の研究』京都, 法藏館, 1990년, 3판.

본서는 팔리 7論 가운데 첫번째 논서인 『法集論』(또는 法聚論, Dhammasaṅgani)에 대한 붓다고사의 주석서인 『아타살리니』(Atthasālinī)에 대한 번역 및 연구서. 『阿毘達磨思想研究』에 뒤이은 저자의 불교심리학 연구의 성과로, 팔리불교의 심리론을 이해하기 위한 필독서인 『法集論』 연구를 위한 필수적인 참고서가 될 것이다. 또한 본서는 팔리주석문헌에 대한 번역 연구의 한 예로써도 의미있는 연구 성과라 할 수 있다.

1974

- 『佛教における時間論の研究』 東京, 清水弘文堂.

1975-1

「業論の本質」『業思想の研究』 京都, 文榮堂書店, 1975, pp.66~92.

1975-2

- 『煩惱の研究』(編著) 東京, 清水弘文堂.
(pp.72~128까지 사사키 겐준 박사의 「原始佛教における煩惱論」임)

1978

- 『原始佛教から大乘佛教へ-歴史と體驗』 東京, 清水弘文堂, 1981年, 新版.

1986

Linguistic Approach to Buddhist Thought, Delhi, Motilal Banarsidass. 1992, 2nd Edition.

본서는 초기불교와 아비달마불교의 주요 용어들에 대한 언어학적·철학적 분석을 시도한 저자의 논문집이다.

1990

- 『業論の研究 - 順正理論・業品の解明』 京都, 法藏館.

1992

- *Sārasaṅgaha*(ed.), London, The Pali Text Society.

4.23. 佐佐木教悟(사사키 교고, 1915~) 大谷大學名譽教授

淨土眞宗. 1937년, 大谷대학 졸업(불교학전공) 1944.1-1946.8 태국에 유학. 1962년 大谷대학 교수. 인도·동남아시아불교학·불교사 전공. 문학

박사.

1981

- 『戒律思想の研究』(編) 京都, 平樂寺書店.
(pp.1~46까지 佐佐木教悟박사의 「インドおよび東南アジア佛教における戒律思想」)

1985

- 『インド・東南アジア佛教研究 I 戒律と僧伽』 京都, 平樂寺書店.(書評: 牧田諦亮, 『佛教學セミナー』 44, 京都, 大谷大學佛教學會, 1986, pp.63~67 87~94)

1986

- 『インド・東南アジア佛教研究 II 上座部佛教』 京都, 平樂寺書店. 태국 불교에 대한 연구.(書評: 藤田宏達, 『佛教學セミナー』 48, 京都, 大谷大學佛教學會, 1988, pp.87~94)

1987

- 『インド・東南アジア佛教研究 III インド佛教』 京都, 平樂寺書店.(書評: 藤田宏達, 『佛教學セミナー』 48, 京都, 大谷大學佛教學會, 1988, pp.87~94)

1993

- 「南方上座部佛教の弘通と戒律思想」『戒律の研究』 森章司編, 東京, 溪水社, pp.285~300.

4.24. 宮坂宥勝(미야사카 유쇼, 1921-) 名古屋大學名譽教授

眞言宗. 1948년, 東北大學文學部 印度哲學科 졸업. 1962년, 문학박사. 高野山대학 교수, 名古屋대학 교수 역임. 밀교학 전공.

1971

- 『佛教の起源』 東京, 山喜房佛書林.

본서는 저자가 後記에서 정리해서 말하고 있듯이(pp.477~485, 특히 pp.481~484) 불교의 기원에 대한 연구의 결실이다. 불교의 종족적인 기원의 문제에 착안해서 1장에서 3장까지 집필하였고, 초기경전에 보이는 종족적인 기원의 민간신앙과 바라문교 기원의 신앙과 신화적인 요소가 많

다는 사실을 문제점으로 하여, 4장 고대 인도문화와 초기불교가 정리되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密敎의 복합적인 요소의 기원을 초기불교에서부터 찾으려는 시도가 정리되어서 만다라의 구성과 諸尊의 성립 密呪의 발달 등이 논해져 있다. 6장에서는 불교의 기원을 밝히려는 시도를 문화사적인 입장에서 전개하여, 금속문화와 불(火)의 문화를 예로 초기불교를 아주 다른 시각에서 조명하고 있다.

간단히 목차를 적어 내용을 일별해 본다.

| | |
|-----------------------|-----------|
| 序説 佛教興起時代の種族社會 | 2 |
| 第一章 種族社會の遺制 | 13 |
| 第二章 殘存種族 | 63 |
| 第三章 種族社會と佛教の起源 | 103 |
| 第四章 古代印度文化と初期佛教の成立 | 185 |
| 第五章 初期佛教と密敎の發祥 | 273 |
| 第六章 初期佛教の文化史的考察 | 349-405 |
| 付 説 (전체 내용에 대한 보조 설명) | 407-478 |
| 古代印度の歴史・文化に關する參考文獻一覽 | (70)-(85) |

미야사카 유쇼 博士의 논문은 다음의 두 저서에 정리되어 있음. 上卷의 「初期佛教と印度文化」에 (pp.5-110, pp.[3]-[71]) 初期佛教에 대한 연구가 실려 있음. 上卷 뒷 부분은 密敎와 인도사상, 下卷에는 인도철학 諸派와 불교, 인도고전논리학과 불교가 실려 있음.

1983

• 『インド古典論 上』東京, 筑摩書房.

본서 가운데 초기불교에 대한 논문의 목차만을 적어본다.

| | |
|-------------------------|--------|
| I 初期佛教とインド文化 | |
| 古期ウパニシャットと佛教-輪廻思想を中心として | 5 |
| YAKṢA考-初期佛教を中心として- | 22 |
| MĀTANĠAと佛教 | 39 |
| HĀRĪTĪ考 | 58 |
| 初期佛典よりみた古代インドの畜養と農耕 | 82-110 |

*

| | |
|------------------------------|-----------|
| Mahāsamaya-sūtraの原典研究 | (3)-(42) |
| Urubilvā-pratithāryaの偈頌の傳承形態 | (43)-(71) |

1984

• 『インド古典論 下』東京, 筑摩書房

1987

• 『佛教語入門』東京, 筑摩書房

4.25. 早島鏡正(하야시마 교쇼, 1922~)東京大學名譽教授

淨土眞宗. 1947년, 東京大學文學部 印度哲學梵文學部 졸업. 1956-1958년, 스리랑카, 인도 유학. 東京大學 교수, 武藏野女子大學 교수 역임. 문학박사. 불교학(초기불교) 전공.

1963-1964

• 『ミリンダ王の問い-インドとギリシアの對決 -』全3卷(中村元 共譯)東京, 平凡社.

1963-2

『ミリンダパン하における我と無我的論点』『自我と無我 - インド思想と佛教の根本問題』京都, 平樂寺書店, pp.423-454.

1964

• 『初期佛教の社會生活』東京, 岩波書店. 하야시마 교쇼 박사의 학위논문.(原題는 「パーリ佛教における實踐の發展」)

본서는 초기불교 및 상좌부불교의 실천에 대한 연구로써, 교리적인 면보다도 자연환경과 사회환경이라는 배경 위에서 스리랑카를 중심으로 한 상좌부불교의 실천의 발전 과정을 규명하려고 한 연구이다. 큰 목차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
|----------------------|-----|
| 第一編 原始佛教における臥坐所の研究 | 1 |
| 第二編 セイロン上座部佛教と臥坐所の變遷 | 107 |
| 第三編 原始佛教における觀法とさとの系譜 | 183 |

| | |
|--|---------|
| 第四編 不淨觀の意義とその修習 | 335 |
| 第五編 『ミリンダパンハ』の佛陀觀 | 405 |
| - 大乘興起時代における上座部教團の性格をめぐって - | |
| 第六編 上座部教團における出家と在家の立場 | 467 |
| - 『ミリンダパンハ』を中心として - | |
| 第七編 福田思想の發達とその意義 | 687-734 |
| 1972 | |
| 「パーリ佛教における輪廻と解脱」佐藤博士古稀記念『佛教思想論叢』東京, 山喜房佛書林, pp.227~249. | |
| 1975 | |
| 「佛教眞理觀の外相と内相 - パーリ佛教を中心として」『佛教における法の研究』平川彰博士還暦記念論集, 東京, 春秋社, pp.77~96. | |
| 1979 | |
| ・『ゴタマ・ブッダ』東京, 講談社, 1989 5版(早島鏡正著作集9卷에 收錄 예정) | |
| 이하의 早島鏡正著作集(全15권 예정) 1과 2에 『初期佛教の社會生活』 이후의 초기불교에 대한 논문들이 수록되어 있음. | |
| 1992 | |
| ・『初期佛教の實踐と展開』(早島鏡正著作集2) 東京, 世界聖典刊行會. | |
| 수록논문 | |
| 1. 業の相續者・法の相續者 | 11 |
| 2. 善を求めるころ | 29 |
| 3. 初期佛教における「善きひと」 | 40 |
| 4. 『佛弟子の詩』における譬喩 | 74 |
| 5. 佛弟子の愛誦する譬え | 124 |
| 6. 最初期佛教の修行道 | 142 |
| 7. 初期佛教における人間觀 | 202 |
| 8. 上座部佛教の性格 - スリラン카佛教を中心として | 232 |
| 9. 스리랑카佛教의 現況 | 272 |
| 10. 日本佛教とスリラン카佛教との比較 | 286 |
| - 佛教の二大潮流とその思想史的意義 - | |
| 11. 고타마·부ద్다와 현대佛教 | 302 |
| 12. 無我から生まれる自由な生き方 | 364-382 |

| | |
|---|---------|
| 解説 : 上村勝彦 | 383-390 |
| 1992-2 | |
| 「般若經と初期佛教」眞野龍海博士頌壽記念論文集 『般若波羅蜜多思想論集』東京, 山喜房佛書林, pp.113~137. | |
| 1994 | |
| ・『初期佛教のさとり』(早島鏡正著作集1) 東京, 世界聖典刊行會. | |
| 본 논문집에는 초기불교에서 깨달음의 문제에 관련된 논문들이 정리되어 수록되어 있음. 수록된 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 |
| 1. 自然・風土的基盤と原始佛教思想 | 9 |
| 2. 初期佛教における「空」の實踐的性格 | 23 |
| 3. 初期佛教の無我思想 | 45 |
| 4. 佛教眞理觀における adīnava の研究 | 91 |
| 5. 佛教眞理觀の外相と内相-パーリ佛教を中心として- | 119 |
| 6. 初期佛教におけるさとりの表明 | 157 |
| 7. 初期佛教における涅槃 | 181 |
| 8. 自然・人間・一如-初期佛教を中心として- | 213 |
| 9. パーリ佛教における輪廻と解脱 | 237 |
| 10. 初期佛教における生死觀 | 279 |
| 11. 初期佛教における實踐の性格 | |
| -『ミリンダ王の問い』を中心として- | 307 |
| 12. 『般若經』と初期佛教 | 333 |
| 13. 蓮如の「無我」考 | 381-402 |
| 解説 : 江島惠教 | 403-412 |

4.26. 三枝充恵(사이구사 미츠요시, 1923-) 日本大學教授, 筑派大學名譽教授

1950년, 東京大學文學部 哲學科(印度哲學專修) 졸업. 1962년 뮌헨대학 졸업. 문학박사, Ph.D.('大智度論의 研究' 獨著). 초기불교 및 대승불교 특히 중관사상과 비교사상 연구에 공헌.

1978

- 『初期佛教の思想』 東京, 東洋哲學研究所.

본서는 사이구사 미츠요시 박사가 『東洋學術研究』(東京, 東洋哲學研究所)에 1973년4월부터 1978년 5월에 이르기까지 29회에 걸쳐 연재한 「初期佛教思想시리즈」를 약간의 가필과 몇 편의 논문을 추가하면서 엮은 초기 불교 연구서이다. 이른바 사이구사 박사의 초기불교에 대한 이해방식의 기본적인 입장이 이 책에 정리되어 있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본론 부분의 항목에는 초기불교의 기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초기경전에서의 교설들이 자료적으로 정리되어 있어 찾아보기에 편리하다. 목차를 통해 간략하게 내용을 살펴본다.

| | |
|--------------------------------|-----|
| 序論 第一 古ウパニシャッドと初期佛教 | 3 |
| 第一章 從來の諸研究 | 6 |
| 第二章 形而上學と無記 - 兩者の根本的立場 - | 38 |
| 第三章 ブラフマンと梵天 | 67 |
| 第四章 아트マンと無我 | 82 |
| 補 遺 | 93 |
| 序論 第二 初期佛教思想研究の方法論 | 127 |
| 第一章 初期佛教の定義に關連して | 129 |
| 第二章 資料の扱いについて - 中村元博士説の紹介と検討 | 137 |
| 第三章 初期佛教思想研究の方法論 - 資料の扱いに關する私見 | 164 |
| 本論 初期佛教の思想 | 185 |
| 第一章 基本的立場 | 187 |
| 第二章 ころ | 197 |
| 第三章 苦 | 211 |
| 第四章 苦の本質 | 273 |
| 第五章 無常 | 289 |
| 第六章 無我 | 329 |
| 第七章 四諦 | 410 |
| 第八章 八正道 | 442 |
| 第九章 緣起說 | 472 |
| 第十章 ニルヴァーナ | 592 |

| | |
|-----------------|---------|
| 付篇第一 相應部經の數について | 613 |
| 付篇第二 雜阿含經の數について | 645-670 |

1980

- 『初期佛教の緣起說をめぐる論争』 私家版³⁷⁾

本書는 三枝充惠, 舟橋一哉, 宮地廓慧 세 박사의 연기설에 대한 논쟁으로 中外日報에 1978년부터 1980년에 걸쳐 연재된 기사 모음집임.

1981-1

「關係(緣)·關係性(緣起)·關係主義(緣起說)-とくに「緣」から「緣起」への二つの假說」

- 『東洋學術研究』 20-1, 東京, 東洋哲學研究所, pp.30-48.

1981-2

「緣起思想史におけるサーリプッタとナーガルジュナ」 『大乘佛教から密教へ』 勝又俊教博士古稀記念論集, pp.51-66.

1982-1

- 『比較思想序論』-比較思想論集1, 東京, 春秋社, 1994년 4월, 改訂版.

1982-2

- 『東と西の思想』-比較思想論集2, 東京, 春秋社.

1983

- 『佛教と西洋思想』-比較思想論集3, 東京, 春秋社.

1986-1

- 『佛教の思想-三枝充惠對談集』 東京, 春秋社.

본서는, 사이구사 미츠요시 박사와 현재 일본의 대표적인 인도학·불교학계의 각분야의 7인(대담자 全員 東京대학 인도철학과 출신)의 원로와의 대담집이다. 목차를 통해서 간략하게 내용을 살펴본다.

I

| | | |
|----------|---------------|----|
| インド思想と佛教 | - 原實·三枝充惠 - | 3 |
| 佛教の思想 | - 高崎直道·三枝充惠 - | 31 |

37) 이 책이 출판된 후에 가지야마 유이치 교수는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연기설 논쟁에 대해서 비판적인 논문을 썼다.
梶山雄一 「緣起說論争-死に至る病-」 『東洋學術研究』 20-1, 東京, 東洋哲學研究所, pp.49~68.

空の哲學 - 矢島羊吉·三枝充惠 - 77

II

佛敎學の確立 - 中村元·三枝充惠 - 127

南方パリー佛敎の世界 - 水野弘元·三枝充惠 - 189

中國佛敎をめぐる諸問題 - 結城令聞·三枝充惠 - 243

日本佛敎における諸問題 - 古田紹欽·三枝充惠 - 309-384

1986-2

「〈原始佛敎〉について」『東洋學術研究』25-1, 東京, 東洋哲學研究所, pp. 125~144.

1987

・『インド佛敎人名辭典』(編) 京都, 法藏館.

4.27. 渡邊文麿(와타나베 후미마로, 1924~1990)

1956년, 龍谷大學文學部佛敎學部 졸업. 1958년 同 大學 大學院에서 修士學位 획득. 1961년 박사 과정 수료. 1965년,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 유학. 1976년 Ph.D. 학위 취득. 近畿大學 교수, 愛知學院大學國際文化學科 교수 역임.

와타나베 후미마로 박사의 약력 및 연구업적은 『原始佛敎と大乘佛敎 上·下』(前田惠學編) 渡邊文麿博士追悼記念論集, 京都, 永田文昌堂, 1993, pp.1-13, 참조.

1982

「パリー佛敎における解脫思想」『解脫』佛敎思想 8, 佛敎思想研究會編, 京都, 平樂寺書店, pp.117~148

1983

Philosophy and its Development in the Nikāya and Abhidharma, Delhi: Motitiral Banarsidass. 와타나베 후미마로 박사의 Ph.D. 논문.(書評:浪花宣明, 京都, 大谷大學佛敎學會, 『佛敎學セミナー』39, 51~55)

1985

「Vikappa, Vitakka, Vicāra-パリー資料を中心に」雲井昭善博士古稀記念

『佛敎と異宗敎』京都, 平樂寺書店, pp.173~186.

4.28. 櫻部建(사쿠라베 하지메, 1925~) 大谷大學名譽敎授

淨土眞宗. 1957년, 大谷대학 原始佛敎學科 졸업. 문학박사. 초기 불교 및 아비달마에 대한 연구에 공헌.

1969-1

・『俱舍論の研究 界·根品』京都, 法藏館, 1979 5刷. 사쿠라베 하지메 박사의 학위논문. 학위논문 요지 및 舟橋一哉 박사 他의 審査要旨가 『大谷學報』47(2), 1967년에 실림.

1969-2

・『存在の分析 -アビダルマ』(共著) 東京, 角川書店.

1974

「原始佛敎・アビダルマにおける存在の問題」『講座 佛敎思想』第1卷 存在論 時間論, 東京, 理想社, pp.17~55.

1975

・『佛敎語の研究』京都, 文榮堂. (書評:香川孝雄, 『佛敎學セミナー』23, 京都, 大谷大學佛敎學會, 1978, pp.60~65).

10여 가지 기본적인 불교용어에 대해, 사쿠라베 하지메 박사가 20년 정도에 걸쳐 여러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을 정리해 놓은 심도있는 연구논문집.

1978-1

「アビダルマ論書雜記一, 二 (一~三)」『三藏集』第三輯, 國譯一切經印度撰述部月報, 東京, 大東出版社, pp.89~108.

1978-2

「アビダルマ佛敎の因果論」『因果』佛敎思想 3, 佛敎思想研究會編, 京都, 平樂寺書店, pp.125~146.

1978-3

「インドにおける最近の俱舍論研究の業績の一,二について」『佛敎學セミナー』27, 京都, 大谷大學佛敎學會, pp.1~9.

1981-1

「アビダルマにおける「空」の語の用例」『空 下』佛教思想 6, 佛教思想研究會編, 京都, 平樂寺書店, pp.467~480.

1981-2

「俱舍論に説かれる「慧」と「見」—ジャイニ博士の所論に關聯して—」『佛教學セミナー』34, 京都, 大谷大學佛教學會, pp.1~8.

1982-1

「ローカバンニャッティについて」『パーリ佛教文化研究』東京, 山喜房佛書林, pp.23~32.

1982-2

「アビダルマ佛教における「空」の語の用例」『空 下』佛教思想 7, 佛教思想研究會編, 京都, 平樂寺書店, pp.467~480.

1985-1

「初期佛教研究の回顧」『佛教學セミナー』42, 京都, 大谷大學佛教學會, pp.82~102

1985-2

「無相心三昧について」壬生台舜博士頌壽記念『佛教の歴史と思想』東京, 大藏出版, pp.47~56.

1990

「パーリ・アビダルマ研究—その過去と現在」『パーリ文化學の世界』水野弘元博士米壽記念論集, 東京, 春秋社, pp.317~328.

1991

「papañca 考」『パーリ學佛教文化學』第4號, パーリ學佛教文化學會, pp.17~26.

4.29. 前田惠學(마에다 에가쿠, 1926~) 愛知學院大學教授

淨土眞宗. 1951년, 東京大學文學部 哲學科(印度哲學專修) 卒業. 미즈노 고젠 박사와, 辻直四郎 교수에게 배움. 문학박사. パーリ學佛教文化學會 설립(1986), 회장으로 선출됨. 여러 차례에 걸쳐 유럽의 인도학·불교학계 시찰 및 동남아시아, 동아시아(한국, 중국)의 불교현황 조사활동을 하여 보고, 스리랑카를 중심으로 한 불교문화 연구 소개 논문 다수.

마에다 에가쿠 교수의 論著에 대한 정보는 「前田惠學博士履歷およびに業績」前田惠學博士頌壽記念會編(1990년, pp.1~22)를 참조함.

1962

덴마크學士院의『批判的パーリ語辭典』(一)『東方學』第24輯, pp.112~101.

1963-1

「덴마크學士院의『批判的パーリ語辭典』(二)」『東方學』第25輯, pp.121~107.

1963-2

「海外におけるパーリ語文獻を中心とする佛教の研究—ヨーロッパ—」『印度學佛教學研究』11-1, 日本印度學佛教學會, pp.283~297.

1963-3

「海外におけるパーリ語文獻を中心とする佛教の研究—インド・東南アジア—」『印度學佛教學研究』11-2, 東京, 日本印度學佛教學會, pp.377~402.

1964

・『原始佛教聖典の成立史的研究』東京, 山喜房佛書林.(書評: 櫻部建, 『佛教學セミナー』1, 京都, 大谷大學佛教學會, pp.67~73) 마에다 에가쿠 교수의 학위논문.

본서는 이른바 原始佛教聖典의 成立史에 대한 기념비적인 연구 업적이 다. 아래의 목차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본서는 총 3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이 불타가 사용한 언어와 현존하는 남방상좌부 전승의 초기경전의 언어인 팔리어에 대한 연구로써, 결론으로서 마에다 에가쿠 박사는 불타가 사용한 언어는 마가다語라고 한다면 팔리어는 불타 末年 경부터 마하카차야나를 대표로 하는 제자들에 의해 불교가 전해진, 아반티를 중심으로 한 서인도의 언어라고 정리했다.(pp.174~179)

제2편에서는 九分十二分教을 중심으로 하여, 현존하는 四部四阿含 이전의 성전의 형태를 자세하게 논하고 있다.

제3편에서는 四部四阿含 및 小部에 대한 성립사적인 연구를 경전 내부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밝히고 있다. 경전 내부의 연구를 통해 경전 성립의 선후를 결정하는 방법을 취한 마에다 에가쿠 박사는 경전 외부의 역사적·고고학적인 기록을 통한 연구를 기대한다고 하는 단서를 붙인다.

마지막으로 附說에서는 이른바 남방상좌부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 붓다고사에 대한 연구와 스리랑카불교의 전승에 대해 간단하게 덧붙이고 결론짓고 있다. 목차를 통해 전체적인 내용을 개관해보자.

| | |
|---|---------|
| 序論 原始佛教と原始佛教聖典 | 1 |
| 第一編 佛陀の用いた言語とパーリ語の故郷-その教團史的考察- | 13 |
| 第一章 パーリ語の故郷 | 15 |
| 第二章 佛敎教化の地域と佛陀の用いた言語 | 54 |
| 第三章 佛敎流布地域の擴大-マガダ語圏よりパーリ語圏へ- | 118 |
| 第一編の結論 | 174 |
| 第二編 四部四阿含成立以前の聖典の形態 | 181 |
| - 九分十二分教とパーリヤ-ヤ - | |
| 第一章 九分十二分教總論 | 188 |
| 第二章 九分十二分教各論(一) | 227 |
| 第三章 九分十二分教各論(二) | 348 |
| 第四章 九分十二分教各論(三) | 440 |
| 第五章 九分十二分教に關する諸問題 | 480 |
| 第六章 九分十二分教以外の聖典様式-特にパーリヤ-ヤについて- | 493 |
| 第二編の結論 | 547 |
| 第三編 原始佛教聖典各部原形の成立 | 551 |
| 第一章 原始佛教聖典の成立に關係する歴史的諸問題 | 555 |
| 第二章 四部四阿含原形の成立 | 619 |
| 第三章 小部原形の成立 | 681 |
| 總結 原始佛教聖典成立史の構成 | 785 |
| 附說 セイロンにおける佛敎の傳承-特に Buddhaghosa について- | 789-803 |
| 1969-1 | |
| 「戦後の阿含研究と今後」(一)『國譯一切經印度選述部・月報 三藏 2』pp.1~7. | |
| 1969-2 | |
| 「戦後の阿含研究と今後」(二)『國譯一切經印度選述部・月報 三藏 3』pp.1~7. (「戦後の阿含研究と今後」(一)(二)『三藏集』第1輯(東京, 大東出版社, 1975)에 再録, pp.7~20) | |
| 1975 | |
| 「インド・東南アジアにおけるパーリ佛敎文學思想」『講座 佛敎思想』第7卷 文學論 藝術論, 東京, 理想社, pp.19~62. | |

- 1979
「佛弟子における出家の動機とさとの様態-Theragāthā, Therīgāthāの世界」『業思想研究』京都, 平樂寺書店, pp.231~264.
- 1982-1
「海外におけるパーリ寫本の保存狀況」『佛敎學』14, 佛敎學研究會, pp.1~16.
- 1982-2
「現代スリランカの上座佛敎-その現地調査-」『パーリ佛敎文化研究』東京, 山喜房佛書林, pp.57~70.
- 1984
「ヨーロッパ佛敎の成立-Euroboudhisme-Eurobuddhism-Eurobuddhismus-」『愛知學院大學人間文化』創刊號, pp.1~19.
- 1985
Japanese Studies on the Schools of the Chinese Agamas, *Zur Schulzugehörigkeit von Werken der Hinayana-Literatur I*, heraus. von Heinz Bechert, Göttingen, pp.94~101.
- 1986-1
・『現代スリランカの上座佛敎』(編著) 東京, 山喜房佛書林.
- 本書 가운데 수록된 마에다 에가쿠 교수의 논문에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 「序論 現代スリランカの上座佛敎について-佛敎學としての現代佛敎研究の立場から -」pp.1~26.
- 「上座佛敎の存在様態(1)-シヤム派について-」pp.29~54.
- 「上座佛敎の存在様態(3)-寺院と僧侶-」pp.104~171.
- 「スリランカ上座佛敎の歩み」pp.441~467.
- 「西洋支配下のスリランカと佛敎の復興」pp.468~492.
- 「スリランカの近代化と上座佛敎の對應(一)」pp.493~505.
- 1986-2
「現代スリランカにおける佛と神神-佛敎の二重構造-」『日本佛敎學會年報』第52號-佛敎と神祇-, 日本佛敎學會, pp.1~14.
- 1990
「パーリ文化圏の展望」『パーリ文化學の世界』水野弘元博士米壽記念論集, 東京, 春秋社, pp.155~178.
- 1993

- 『原始佛教と大乘佛教 上・下』(編) 渡邊文麿博士追悼記念論集, 京都, 永田文昌堂, 「釋尊をいかに観るか」上書, pp.1~14.

4.30. 藤田宏達(후지타 고타츠, 1928~) 北海道大學名譽教授

淨土眞宗. 1950년, 東京大學 哲學科(印度哲學專修) 卒業. 1955년, 北海道大學 조교수. 1960~1962년, 2년간 하버드대학 객원연구원. 1967년, 문학박사 학위 취득. 1968년, 北海道大學 교수. 원시불교 연구 및 정토사상 연구에 공헌. 원시불교에서 문제시 될만한 사항에 대한 다음의 연구들은 후지타 고타츠 박사의 원시불교에 대한 밀도있는 이해의 지평을 확인하는데 충분할 것이다.

아래의 논저는 주로 원시불교에 대한 연구임. 그 외 자세한 연구 업적에 대한 사항은 『インド哲學と佛教』 藤田宏達博士還曆記念論文集, 京都, 平樂寺書店, 1989년, pp.3~16. 참조.

1953

「原始佛教における四姓平等論」『印度學佛敎學研究』2-1, 東京, 印度學佛敎學會, pp.55~61.

1954

「轉輪聖王について-原始佛教聖典を中心として」『印度學佛敎學論集-宮本正尊教授還曆記念論文集-』東京, 三省堂, pp.145~156.

1957

「三乘の成立について-辟支佛起源考」『印度學佛敎學研究』5-2, 東京, 印度學佛敎學會, pp.91~100.

1958

「阿含について多佛思想の一斷面-現在他方佛との關係」『印度學佛敎學研究』6-2, 東京, 印度學佛敎學會, pp.64~73.

1959

「四沙門果の成立について」『印度學佛敎學研究』7-2, 東京, 印度學佛敎學會, pp.69~78

1960

「三界說について」『印度學佛敎學研究』8-2, 東京, 印度學佛敎學會, pp.59~

62.

1964

「在家阿羅漢論」結城教授頌壽記念『佛教思想史論集』東京, 大藏出版, pp.51~73.

1970

•『原始淨土思想の研究』東京, 岩波書店. 후지타 박사의 학위논문.

1971

「原始佛教について生天思想」『印度學佛敎學研究』19-2, 東京, 印度學佛敎學會, pp.412~420

1972

「原始佛教における禪定思想」佐藤博士古稀記念『佛教思想論叢』東京, 山喜房佛書林, pp.297~315.

1974

「原始佛教について善惡の問題」『印度學佛敎學研究』22-2, 東京, 印度學佛敎學會, pp.1~10.

1975-1

「三法印と四法印」『佛教研究論集』橋本博士退官記念佛教論集刊行會編, 大阪, 清文堂出版, pp.105~123.

1975-2

「原始佛教の倫理思想」『講座 佛教思想』第3卷 倫理學 教育學, 東京, 理想社., pp.19~64.

1976

「原始佛教における惡の觀念」『惡』佛教思想 2, 佛教思想研究會編, 京都, 平樂寺書店, pp.115~156.

1977

「佛の稱號-十號論」『佛の研究』玉城康四郎博士還曆記念論集, 東京, 春秋社, pp.81~98.

1978

「原始佛教における因果思想」『因果』佛教思想 3, 佛教思想研究會編, 京都, 平樂寺書店, pp.83~125.

1979

「原始佛教における業思想」『業思想研究』京都, 平樂寺書店, pp.99~144.

1980

「苦の傳統的解釋-アビダルマ佛教を中心として-」『苦』佛教思想 5, 佛教思想

研究會編, 京都, 平樂寺書店, pp.201~240.

1981-1

「佛傳資料の一考察-『ニダ-ナカタ-』覺え書-」『佛教の歴史的展開に見る諸形態』古田紹欽博士古稀記念論集, 創文社, pp.188~213.

1981-2

「原始佛教における空」『空 下』佛教思想 6, 佛教思想研究會編, 京都, 平樂寺書店, pp.415~466.

1987-1

「原始佛教・初期佛教・根本佛教」『印度哲學佛教學』第2號, 北海道印度哲學佛教學會, pp.20~56.

1987-2

「『ダンマパダ』覺え書」『インド學佛教學論集』高崎直道博士還曆記念論集 東京, 春秋社, pp.165~181.

1988-1

「原始佛教における生死觀」『印度哲學佛教學』第3號, 北海道印度哲學佛教學會, pp.38~63.

1988-2

「原始佛教における涅槃-nibbanaとparinibbana-」『印度學佛教學研究』37-1, 東京, 印度學佛教學會, pp.1~12.

1988-3

「原始佛典に見られる死」『死』佛教思想 10, 佛教思想研究會編, 京都, 平樂寺書店, pp.55~106

1992

「原始佛教における信」『信』佛教思想 11, 佛教思想研究會編, 京都, 平樂寺書店, pp.91~142.

4.31. 奈良康明(나라 아스아키, 1929~) 駒澤大學教授

曹洞宗. 1953년, 東京大學印度哲學梵文學科(新制) 졸업. 인도 켈커타 대학대학원 인문과학연구과 박사과정 수료. 인도불교문화사 전공. 문학박사. 불교의 문화사적인 연구에 공헌.

1973-1

「パリッタ(paritta)呪の構造と機能」『宗教研究』213, 日本宗教學會, pp.39~69.

1973-2

「『眞實語』について-佛教呪術の一側面-」『佛教と文學・藝術』日本佛教學會編, 京都, 平樂寺書店, pp.19~38.

1975-1

「古代インド佛教の宗教的表層と基層(一~三)-アヴァダ-ナ・シャタカを例として」『三藏集』第一輯, 國譯一切經印度撰述部月報, 東京, 大東出版社, pp.277~304.

1975-2

「死後の世界」『講座 佛教思想』第7巻 文學論 藝術論, 東京, 理想社, pp.63~116.

1979

・『佛教史 I インド・東南アジア』東京, 山川出版社, 1985년, 1版3刷.

1980

・『佛陀の世界』(共著) 東京, 學習研究社.

1988

・『釋尊との對話』東京, NHK出版局.

1989-1

「『スッタニパータ』における業論(上)」『インド哲學と佛教』藤田宏達博士還曆記念論文集, 京都, 平樂寺書店, pp.145~162.

1989-2

「『スッタニパータ』における業論(下)」『印度哲學佛教學』第4號, 北海道大學, pp.41~61.

1990

「『出世間』と『世間』-印度佛教文化の構造理解のために」『パリー文化學の世界』水野弘元博士米壽記念論集, 東京, 春秋社, pp.179~200.

1992

・『ブッタから道元へ-佛教討論集』(監修) 東京, 東京書籍株式會社.

본서는 불교학의 최신의 문제점들을 진단해 보기 위해 엮어졌다. 불교학 일반과 중국의 禪사상 그리고 道元선사의 禪사상, 마지막으로 불교인류학에 이르는 12분야에서 12인(駒澤대학 불교학부 스텝 중심)의 학자가 문

제제기를 하고 각각 2인의 응답 그리고 再論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초기불교에 관련된 부분만을 들어본다. 中略된 부분은 중국의 禪宗史, 道元선사, 일본의 曹洞宗 宗學에 대한 분야임. 이 책에 제시된 문제제기들을 통해서 현대 일본 불교학의 새로운 한 단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序論 - 奈良康明 5-10

1. 文獻と解釋・無明とはなにか 問題提起: 奈良康明 13-23
2. 宗教體驗と言語・悟りとはなにか 問題提起: 松本皓一 57-62
3. 釋尊と眞理・法が先か佛が先か 問題提起: 松本史朗 91-96

— 中 略 —

11. 業と差別・佛教はなにをなしたか 問題提起: 池田練太郎 359-365
12. 佛教人類學の提唱・教義と儀禮は矛盾しないか-問題提起: 片山一良 389-394

1993

・『原始佛典を読む 上・下』東京, 日本放送出版協會.

4.32. 塚本啓祥(츠카모토 게이쇼, 1929-) 東北大學名譽教授

1953년, 熊本대학 法文學部 졸업. 1955년, 立正대학 대학원 문학연구과(불교학전공) 수료. 同 年, 東北대학 대학원 문학연구과(印度學 佛教史學 전공) 박사과정 편입학. 1964년, 同 대학 박사 과정 수료, 문학박사. 1962년, 立正대학 불교학부 조교수. 1968년, 同 대학 교수. 1980년, 立正대학 불교학부 교수 퇴직, 東北대학 문학부 교수로 취임하여 인도불교사 강좌 담당. 주요 연구 분야는 초기 및 부파불교, 대승불교 교단사와 법화경 사본.

塚本啓祥 교수의 연구 업적에 대해서는 『知の邂逅-佛教と科學』塚本啓祥教授還暦記念論文集, 東京, 佼成出版社, 1993年, pp.xiv-xxvii, 참조. 아래에는 초기불교에 대한 연구 업적을 중심으로 소개.

1966

・『初期佛教教團史の研究-部派の形成に關する文化史的考察』東京, 山喜房佛書林. 1980년, 改訂増補版.

초기불교 교단사 연구의 대표적인 저술. 개정증보판의 목차를 통해 내용을 일별해 본다.

第 I 篇 教團史構成の視点

- 第一章 問題の所在と研究方法 3
- 第二章 佛滅年代論 27
- 第三章 マガダ王統史 62
- 第四章 長老の系譜 97
- 第五章 資料の源泉とその連關 122
- 第六章 根本分裂の背景 152

第 II 篇 結集の傳説と僧伽の抗爭

- 第一章 Rajagrhaの結集(第一結集) 175
- 第二章 Vaiśālī의結集(第二結集) 209
- 第三章 Pāṭaliputra의結集(I. 北傳の第三結集) 229
- 第四章 Pāṭaliputra의結集(II. 南傳の第三結集) 247
- 第五章 僧伽の抗爭と教團の分裂 267

第 III 篇 教團の伸張と異執の胚胎

- 第一章 出家者と僧伽の形態 287
- 第二章 僧伽の構造的變遷と比丘の生活 305
- 第三章 僧伽における法體系の形成 323
- 第四章 教團の擴大と僧伽の發展 353
- 第五章 教團における傳法の形態 387

第 IV 篇 部派の成立

- 第一章 部派の形態 413
- 第二章 部派存在の確證(I) 450
- 第三章 部派存在の確證(II) 478
- 第四章 マウリヤ王朝の展開 506
- 第五章 部派展開の新據點の形成 565
- 第六章 部派形成の實態(結論) 604

第 V 篇 アショーカ王碑文研究 615-672

1972

「アショーカ時代の佛教史研究の問題点」佐藤博士古稀記念『佛教思想論叢』東京, 山喜房佛書林, pp.169~190.

1973

・『アショカ王』(サーラ叢書 21) 京都, 平樂寺書店.

1975

「佛傳の素材と構成(一～三) - 小乘涅槃經に關連して -」『三藏集』第一輯, 國譯一切經印度撰述部月報, 東京, 大東出版社, pp.37-62.

1976

・『アショカ王碑文』(レグルス文庫 54) 東京, 第三文明社.

1980

「初期佛教について持法者と持律者の論争」『佛教思想史』3〈佛教内部における對論〉, 石上善應・塚本啓祥編, 京都, 平樂寺書店, pp.25~56.

1984-1

「部派の成立」『東洋學術研究』23-1, 東京, 東洋哲學研究所, pp.24~52.

1984-2

「部派佛教における心」『心』佛教思想 9, 佛教思想研究會編, 京都, 平樂寺書店, pp.145~218.

1985

「アンダカ派の形成と他派との論争 - 念處論を中心として」雲井昭善博士古稀記念『佛教と異宗教』京都, 平樂寺書店, pp.143~158.

1989

「教團論」『岩波講座 東洋思想 10 インド佛教 3』東京, 岩波書店, pp.361~407

1990

「上座部教團史研究の問題点と課題」『パーリ文化學の世界』水野弘元博士米壽記念論集, 東京, 春秋社, pp.379~420.

1991

「部派佛教について人間觀」『インド思想における人間觀』京都, 平樂寺書店, pp.279~362.

1995

「Ajanta佛教碑銘-マハーラシュトラの佛教部派-」『佛教研究』第24號, 浜松, 國際佛教從協會, pp.77~124.

4.33. 石上善應(이시가미 겐오, 1929~) 大正大學教授

1953년, 大正大學佛敎學部梵文學部 졸업. 1956년, 문학 修士.

大正大學에서 사토 미즈유(佐藤密雄)박사의 뒤를 이어 초기불교를 연구 해오고 있음.

1967-1

「Sagātha-vagga의偈頌의構成」『三康文化研究所所報』第1號, 東京, 三康文化研究所, pp.185~263.

1967-2

「初期佛教における讀誦の意味と讀誦經典について」『三康文化研究所所報』第2號, 東京, 三康文化研究所, pp.45~90.

1972

「無記說とパリバジャカ」佐藤博士古稀記念『佛教思想論叢』東京, 山喜房佛書林, pp.3~13.

1975

「本緣部關係經典の研究史(一), (二), (三)」『三藏集』第一輯, 國譯一切經印度撰述部月報, 東京, 大東出版社, pp.305~327.

1980

「釋尊の對話と經典の對論の形式」『佛教思想史』3〈佛教内部において對論〉, 石上善應・塚本啓祥編, 京都, 平樂寺書店, pp.1~24.

1985-1

「ブッタの傳説とその周邊」『三康文化研究所所報』第21號, 東京, 三康文化研究所, pp.1~22.

1985-2

「梵文法句經について」壬生台舜博士頌壽記念『佛教の歴史と思想』東京, 大藏出版, pp.85~94.

1988

「梵文法句經覺書」『佛教思想史論集』II, 成田, 成田山新勝寺, pp.59~66.

1990

「パーリ語文獻の翻譯」『パーリ文化學の世界』水野弘元博士米壽記念論集, 東京, 春秋社, pp.25~44.

4.34. 村上眞完(무라카미 신칸, 1932~) 東北大學教授

1957년, 東北大學文學部 印度哲學佛教史專攻 卒業. 1959년, 문학 修

士. 1963년, 同 大學 박사과정 수료. 1969년, 東北대학 조교수. 문학박사. 초기불교, 대승불교, 인도철학(상키야 학파 등)에 대한 폭넓은 연구활동.

1971

「原始佛教における愛と慈悲」『宗教研究』205, 東京, 日本宗教學會, pp.41~82.

1973

「サンスクリット本城邑經(nagara) — 十支緣起と十二緣起(その一)」『佛教研究』第3號, 浜松, 國際佛教徒協會, pp.20~47.

1975

「阿含に關するサンスクリット資料について」『三藏集』第一輯, 國譯一切經印度撰述部月報, 東京, 大東出版社, pp.63~70.

1981

「無常觀と出家志向—マハーニパータと原始佛教」『佛教研究』第10號, 浜松, 國際佛教徒協會, pp.51~74.

1985

・『佛のことは註(一)—パラマッタ・ジョーティカー』(及川眞介 共譯) 東京, 春秋社.

1986

・『佛のことは註(二)—パラマッタ・ジョーティカー』(及川眞介 共譯) 東京, 春秋社.

1987

「諸行考(I)—原始佛教の心身觀」『佛教研究』第16號, 浜松, 國際佛教徒協會, pp.51~93.

1988-1

・『佛のことは註(三)—パラマッタ・ジョーティカー』(及川眞介 共譯) 東京, 春秋社.

1988-2

「諸行考(II)—原始佛教の心身觀」『佛教研究』第17號, 浜松, 國際佛教徒協會, pp.47~87.

1989-1

・『佛のことは註(四)—パラマッタ・ジョーティカー』(及川眞介 共譯) 東京, 春秋社.

1989-2

「諸行考(III)—原始佛教の心身觀」『佛教研究』第18號, 浜松, 國際佛教徒協會, pp.43~70.

1990-1

・『佛のことは註—パラマッタ・ジョーティカー—研究 佛の聖典の傳承』(及川眞介 共著) 東京, 春秋社.

본서는 스타니파타에 대한 주석서인 『佛のことは註—パラマッタ・ジョーティカー』(及川眞介 共譯) 4권의 번역을 마친 후, 두 박사가 집필한 연구서이다.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1부는 무라카미 신칸(村上眞完) 박사가 2부는 오이카와 신카이(及川眞介) 박사가 각각 집필했다. 最古의 경전으로 일컬어지는 스타니파타 연구에 필수적인, 주석서-파라마타조티카에 대한 상세한 주석을 덧붙인 4권의 번역은, 현대 일본불교 학계의 대표적인 연구 성과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목차를 통해 책의 내용을 개관해 본다.

| | | |
|--------------------------------------|------|---------|
| 第一部 『スッタ・ニパータ(經集)』の理解のために | 村上天完 | 1 |
| 第一章 衝撃の書 『スッタ・ニパータ(經集)』 | | 5 |
| - 修行者そして佛の生き方(佛陀觀) - | | |
| 第二章 自然觀と神觀念と身心觀 | | 101 |
| 第三章 パーリ聖典 『スッタ・ニパータ』 成立考 | | 141 |
| 第四章 苦行者の詩と『スッタ・ニパータ』 | | |
| 第二部 『パラマッタ・ジョーティカー(第一義解明)』の理解のために | 及川眞介 | |
| 第一章 『パラマッタ・ジョーティカー(第一義解明)』の著者 | | 371 |
| 第二章 時代の背景と共に | | 449 |
| 第三章 パーリ佛教の世界 | | 497-526 |
| - 『スッタ・ニパータ』と『パラマッタ・ジョーティカー』を中心として - | | |

1990-2

「諸行考(IV)—原始佛教の心身觀」『佛教研究』第19號, 浜松, 國際佛教徒協會, pp.67~119.

4.35. 森祖道(모리 소토, 1934~) 愛知學院大學教授³⁸⁾

1962년, 駒澤大學 불교학부 졸업. 1965년, 東京대학 대학원 인도철학과 修士 과정 수료. 1966년, 2년간 스리랑카에 유학하여 팔리 주석문헌 연구에 주력. 1975년, 영국에서 1년간 연구. 문학박사. 팔리불교 가운데에서도 주석문헌에 대한 문헌학적 연구 분야의 선구자.

1972

「Sihalavatthupakaraṇaについて」『印度學佛教學研究』21-1, 東京, 印度學佛教學會, pp.429~436.

1973

「Sihalavatthupakaraṇaの資料的特徴」『インド思想と佛教』中村元博士還暦記念論集, 東京, 春秋社, pp.309~322.

1974-1

「Mahāvamsa Tīkāに見られるSahassavatthu」『印度學佛教學研究』22-1, 東京, 印度學佛教學會, pp.115~120.

1974

・『國際佛教徒協會所藏・パーリ語文獻分類目録』(編著) 浜松, 國際佛教徒協會.

1982

「業處説の種種相」『佛教學の研究』田村芳朗博士還暦記念論集, 東京, 春秋社, pp.127~140.

1984

・『パーリ佛教註釋文獻の研究 - アッタカタ-の上座部的様相-』³⁹⁾ 東京, 山喜房

38) 모리 소토 교수의 논저에 대해서는, 교수께서 직접 확인한 후 여러가지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일본 및 서구 등에서의 팔리불교 연구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신 모리 교수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특히 1994년 5월에는 인쇄중인 『南方上座佛教の展開と相互交流に關する綜合的研究』에 대한 목차를 받아보았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39) 모리 소토 교수와 유사한 연구로서는 다음의 저술이 있다.

Friedgard Lottermoser, *Quoted Verse Passages in The Works of Buddhaghosa: contributions towards the study of the lost Sihalattha-katha literature.* (붓다고사의 저작에 있어서 인용된 계승 句節: 산실된 시할라 주석 문헌의 연구에의 기여) Göttingen Univ. PH.D. 1982.

佛書林. (書評: 水野弘元『佛敎研究』第14號, 浜松, 國際佛教徒協會, 1984 pp. 101~116. 吉元信行『佛敎學セミナー』41, 京都, 大谷大學佛敎學會, 1985, pp.75~81. 田中教照『宗教研究』59-2(265), 東京, 日本宗教學會, 1985, pp.106~110)

모리 소토 박사의 학위논문.

본서는 모리 소토 박사가 스리랑카에서 유학할 때부터 연구해온 팔리 주석문헌에 대한 연구의 산물이다. 본서가 완성되기 전까지 발표된 논문들이 수정·보완되어 실려 있기 때문에 모리 소토 교수의 단편적인 논문들은 적지 않는다. 대부분의 논문들은 『佛敎研究』(浜松, 國際佛教徒協會)에 실렸으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팔리 주석문헌연구 분야에서는 선구적인 업적이며, 주석문헌 연구의 필수적인 참고서이다. 책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 | |
|------------------------------|-----|
| 序論 アッタカタ-文獻の概要 | 3 |
| 第一篇 源泉資料の検討 - マハーヴィハ라派の古資料 | 77 |
| 第一章 源泉資料概観 | 77 |
| 第二章 特殊な名稱のアッタカタ- | 147 |
| 第三章 三藏の名を冠するアッタカタ- | 176 |
| 第四章 ニカーヤ・經論の名を冠するアッタカタ- | 185 |
| 第五章 總稱の名稱のアッタカタ- | 196 |
| 第六章 限定辭なきアッタカタ- | 207 |
| 第七章 その他のアッタカタ-と付く資料等 | 229 |
| 第八章 人稱の名稱の原資料 | 241 |
| 第九章 第一篇の結論 | 303 |
| 第二篇 源泉資料年代論 - 「シーハラ・ソス」の成立年代 | 311 |
| 第一章 序説 | 311 |
| 第二章 年代の判明せる人物 - 128人 - | 339 |
| 第三章 年代不明の人物 - 60人 - | 409 |
| 第四章 Samantapasādikā의 「阿闍梨相承」 | 430 |

로터모저 박사의 본 논문에 대해서 모리 소토 교수는 다음과 같은 긴 서평을 썼다. 「Friedgard Lottermoser, Quoted Verse Passages in The Works of Buddhaghosa」 『佛敎研究』第15號, 浜松, 國際佛教徒協會, pp.125~144.

| | |
|---|---------|
| 第三篇 パーリ・アッタカタ-制作者の研究 | 469 |
| 第一章 ブッダゴ-サの生涯 | 469 |
| 第二章 ブッダゴ-サの後継者 | 530 |
| 第四篇 アッタカタに見られるマハーヴィハラ派と アバヤギリ派系の所説の比較-アッタカタ-文獻の一側面 | 561 |
| 第一章 問題の所在と検討の方法 | 561 |
| 第二章 『清浄道論』に現われた事例 | 567 |
| 第三章 『長部註』に現われた事例 | 597 |
| 第四章 『中部註』に現われた事例 | 644 |
| 第五章 『相應部註』に現われた事例 | 675 |
| 第六章 第四篇の結論 | 681-689 |

1988

「南傳アビダルマ思想の體系」『インド思想 2』岩波講座・東洋思想 第九卷,
東京, 岩波書店, pp.56~85.

1989-1

*Studies of the Pāli Commentaries—A Provisional Collection of
Articles*, Tokyo, Toko Press.

본서는 모리 소토 교수가 1982년부터 1989년까지 영어로 집필하여 여
러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 12편을 모아서 정리한 논문집이다. 수록된 논문
을 목차를 통해 알아본다.

| | |
|---|-----|
| I The Value of the Pāli Commentaries as Research Material | 1 |
| II Chronology of the "Sihala Sources" for the Pāli Commentaries (I) | 21 |
| III Chronology of the "Sihala Sources" for the Pāli Commentaries (II) | 55 |
| IV Uttaravihāraṭṭhakathā and Sārasamāsa : Some Unattributed Non-Mahāvihāravāsin Sources for the Pāli Commentaries | 107 |
| V [Review] Friedgard Lottermoser, Quoted Verse Passages in The Works of Buddhaghosa: contributions towards the study of the lost Sihalaṭṭhakathā literature | 157 |

| | |
|---|---------|
| VI Some Minor Sources for the Pāli aṭṭhakathās : With Reference to Lottermoser's Study | 179 |
| VII Ariyavaṃsa and Ariyavaṃsa-kathā | 193 |
| VIII The Viṇayaśāstrins (Sophists) as seen in the Pāli aṭṭhakathās | 207 |
| IX aṭṭhakathācariyas and aṭṭhakathikas | 227 |
| X Mahāsivātthera as seen in the Pāli aṭṭhakathās | 237 |
| XI The Chronology of the Sihalaṭṭhuppakaraṇa | 253 |
| XII Sihalaṭṭhuppakaraṇa and Pāli aṭṭhakathā Literature | 287-314 |

1989-2

「스리랑카의大乘佛教について」『印度學佛敎學研究』38-1, 東京, 印度學佛
敎學會, pp.(425)~(420).

1990

「註釋文獻の種類と資料的價值」『パーリ文化學の世界』水野弘元博士米壽記念
論集, 東京, 春秋社, pp.91~124.

1991-1

The Time of Formation of The Twelve Link Chain of Depen-
dent Origination, 前田惠學博士頌壽記念『佛敎文化學論集』東京, 山喜房
佛書林, pp.(742)39~(733)48.

1991-2

Some Authorities as Sources for the Pāli aṭṭhakathās, 『我』の思
想, 前田專學博士還曆記念論集, 東京, 春秋社, pp.735~750.

1992-1

「ブッダゴ-サ著作の問題点-ピン論文をめぐって-」『印度學佛敎學研究』41-1,
東京, 印度學佛敎學會, pp.1~11.

1992-2

「南方上座佛教の相互交流-サンガ存続のメカニズムと歴史-」『國際文化學
と英語教育』玉川大學出版部, pp.251~268.

1992-3

「世界平和パゴダ(ミャンマー-僧院)の現状と展望-異文化交流の一事例-」『パー
リ學佛敎文化學』第5號, 名古屋, パーリ學佛敎文化學會, pp.35~53.

1992-4

「スリランカの佛敎省創設と大統領の指針」『佛敎研究』第21號, 浜松, 國際佛

教徒協會, pp.57~76.

1993

「アツカターに見られる唯識説-「獄卒論」をめぐって-」『知の邂逅-佛教と科學』塚本啓祥教授還暦記念論文集, 東京, 佼成出版社, pp.321~335.

1994-1

The Pali Atthakathā Correspondence Table, (compiled with Y.Karunadasa, Toshiichi Endo) Oxford, The Pali Text Society.

이 책은, 『清淨道論』을 위시로 한 팔리 삼장에 대한 주석서의 각종 간행본들을 대조하여 만든 대응표이다. 각각의 간행본들 사이의 페이지와 행까지 자세하게 대응하여 놓았으므로 주석문헌을 읽는데 있어서 각 판본을 대조해 보는데 좋은 참고서적이 될 것이다.

1994-2

・『南方上座佛教の展開と相互交流に關する綜合的研究』(研究代表者 森祖道) 平成4・5年度科學研究費補助金(綜合研究 A) 研究成果報告書.

본서는 상좌불교에 대한 최신의 연구성으로 일본에서의 최근의 연구 경향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논문집이다. 목차를 통해 내용을 일별해 본다.

I 東南アジア

- 前田惠學 南北兩傳の佛教の合流-特にヴェトナムについて- 3
 奥平龍二 ビルマの佛塔信仰-その傳統と現實- 10
 馬場雄司 雲南, シブソ-ンパンナ-と
 北部タイ, ランナ-のランカー-ウォン受容に關して- 23
 山田 均 カンボジア佛教の復興とタイ佛教 33

II 南アジア

- 杉本卓洲 スリランカ上座部のインドへの展開-研究ノート- 49
 山崎元一 アンベドカルとインド佛教徒 52
 橘堂正弘 スリランカ文化三角地域(Cultural Triangle)の
 發掘, 保存, 整備プロジェクトの現況 56
 島 岩 ネパールの上座佛教 72
 田邊和子 スリランカの歴史書にみられるスリランカとインドの
 佛教の交流-アヌラ-ダプラ時代を中心にして- 87

III 日本 - 日本における南方系佛舍利奉祀の現状

- 森 祖道 總 說 95
 神谷信明 日本山妙法寺の佛舍利奉祀 105
 森 祖道 ビルマ戰友會系等の佛舍利奉祀-事例研究- 116

IV オーストラリア

- 引田弘道 オーストラリアの上座佛教-ブリズベン市の場合- 135
 安藤 充 オーストラリア社會における上座佛教 142-152

4.36. 長崎法潤(나가사키 호준, 1934~) 大谷大學教授

1957년, 大谷大學 佛教學科 졸업. 1959년, 문학 修士. 문학박사. 후나하시 잇사이 박사의 제자. 자이나교와 초기불교의 비교연구 및 자이나교 인식론 연구에 공헌.

1975

「マハーヴィーラの業論」『業思想の研究』京都, 文榮堂書店, 1975, pp.404~429.

1979-1

「ジャイナ教の業思想」『業思想研究』京都, 平樂寺書店, pp.499~534

1979-2

「阿舍における自覺の-考察-解脱と想受滅」『悟りと救い-その理念と方法-』京都, 平樂寺書店, pp.65~79.

1981

「佛教とジャイナ教-五戒, 八齋戒を中心にして」『佛教學セミナー』34, 京都, 大谷大學佛教學會, pp.50~60.

1988

・『ジャイナ認識論の研究』京都, 平樂寺書店, 나가사키 호준 박사의 학위논문.

1990

「パーリ佛教研究とジャイナ教研究」『パーリ文化學の世界』水野弘元博士米壽記念論集 東京, 春秋社, pp.329~357

1991

「Tathagata 考」前田惠學博士頌壽記念『佛教文化學論集』東京, 山喜房佛

書林, pp.25~49.

1992

「犀角經と辟支佛」『佛教學セミナー』第55號, 京都, 大谷大學佛教學會, pp.1~14.

1993-1

「海外における佛教研究者の視點—方法論を中心として」『海外における佛教研究の方法と課題』京都, 大谷大學眞宗綜合研究所, pp.1~34.

1993-2

「ジャイナ教の戒律—佛教の戒律との關係を中心にして」『戒律の研究』森章司編, 東京, 溪水社, pp.173~188.

4.37. 荒牧典俊(아라마키 노리토시, 1936~) 京都大學教授

1959년, 京都大學 철학과 졸업. 1961년, 문학 修士. 문학박사.

唯識學 전공. 원시불교에 대해서는 스타니파타를 중심으로 한 초기경전
에 대한 일련의 연구를 통해 釋尊의 직접적인 가르침의 규명에 힘씀.

1971

「インド佛教から中國佛教へ—安般守意經と康僧會·道安·謝敷序など—」『佛教史學』15-2, 京都, 佛教史學會, pp.1~45.

1975

「Suttanipāta 1032-1039: Ajitamānavapucchāについて」『日本佛教學會年報』41, 東京, 日本佛教學會, pp.1~16.

1978

「Pali parissayaについて」足利悌氏博士喜壽記念『オリент學·インド學論集』東京, 國書刊行會, pp.381~396.

1980

A text-strata-analytical Interpretation of the Concept Pañca-skandhas, 『人文』26, 京都大學教養學部, pp.1~36.

1983

「Suttanipāta Atthakavaggaにみられる論爭批判について」『佛教と文化』中川善教先生頌德記念論集, 京都, 同朋社出版, pp.117~146.

1984

「原始佛教經典の成立について—韻文經典から散文經典へ」『東洋學術研究』23-1, 東京, 東洋哲學研究所, pp.53~67.

1985

「Attadāṇḍasutta(Sn 935-954)は「釋尊の言葉」であり得るか」『日本佛教學會年報』50, 東京, 日本佛教學會, pp.1~18.

1988

「ゴータマ・ブッタの根本思想」『インド佛教 1』岩波講座 東洋思想 8, 東京, 岩波書店, pp.61~98.

4.38. 森章司(모리 쇼지 1938~) 東洋大學教授

1966년, 東洋대학 불교학과 졸업. 1968년, 東洋대학 대학원 修士과정
수료. 1980년 同 대학 문학부 조교수. 1987년, 교수가 되어 현재에 이르
름. 초기불교 교리에 대해 연구해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제율에 대해서
도 논문을 발표하고 있음.

1971

「ニカーヤ·阿含における「無常·苦·無我教説」について」『印度學佛教學研究』19-2, 東京, 印度學佛教學會, pp.827~830.

1972-1

「原始佛教に於ける無我説について」『印度學佛教學研究』20-2, 東京, 印度學佛教學會, pp.841~844.

1972-2

「原始佛教に於ける四諦説—その資料整理—」『大倉山論集』第10輯, 横浜, 大倉精神文化研究所, pp.215~276.

1972-3

「五取蘊について」『東洋學研究』6, 東京, 東洋大學, 東洋學研究所, pp.107~124.

1974-1

「原始佛教における「無常·苦·無我」説について—その資料整理—」『大倉山論集』第11輯, 横浜, 大倉精神文化研究所, pp.105~154.

1974-2

「原始佛教の「無常・苦・無我」説」『東洋學研究』8, 東京, 東洋大學, 東洋學研究所, pp.75~94.

1978

「有部阿毘達磨佛教における四諦説」『三藏集』第三輯, 國譯一切經印度撰述部月報, 東京, 大東出版社, pp.229~254.

1979-1

「部派佛教の修行道論」『日本佛教學會年報』第45號 - 佛教における修行とその理論的根據, 日本佛教學會, pp.19~37.

1979-2

「南方上座部の行道論」『東洋學論叢』(東洋大學文學部紀要 第32集) 佛教學科中國哲學文學科篇IV, pp.71~124.

1981

「部派佛教における三乗と菩薩の思想」『菩薩思想』西義雄博士頌壽記念論集, 東京, 大東出版社, pp.51~78.

1984

「緣起の滅について」『佛教研究』第14號, 浜松, 國際佛教徒協會, pp.1~26.

1988

「原始佛教における眞實と人間觀 [上]」『宗教と平和』No.7, 東京, 庭野平和財團平和研究會, pp.5~37.

1989

「原始佛教における眞實と人間觀 [下]」『宗教と平和』No.8, 東京, 庭野平和財團平和研究會, pp.5~30.

1990-1

「「諸行無常」と「諸法無我」」『東洋學論叢』(東洋大學文學部紀要 第43集) 中國哲學文學科・印度哲學科篇 XV, pp.1~39.

1990-2

・『佛教思想の發見-佛教的ものの見方-』東京, 溪水社.

1992

「緣起の滅と悟りの緣起」『東洋學研究』27, 東京, 東洋大學, 東洋學研究所, pp.11~27.

1993

・『戒律の世界』(編) 東京, 溪水社.

본서는 880쪽에 달하는 논문집으로 편자인 모리 쇼지 교수의 머리말에 제시된 바와 같이 1.계율에 대한 개설서의 역할, 2.계율을 포함한 다양한 세계에 대한 一瞥, 3.학문적으로 뛰어난 논문을 제시하여 학문의 세계를 체험케 함, 4.이것을 실마리로 한 길을 더 나아간 연구를 기대하며 문헌 목록을 제시한다는 목적으로 엮어졌다. 개인적이지만 東洋대학에서 1991년부터 시작된 「계율연구」라는 이름의 세미나용 참고서·입문서로 쓰기 위해서 기획했다는 말에서도 일본에서의 불교 계율연구에의 새로운 관심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전체의 구성은 1.총론편(pp.1~153, 모리 쇼지 교수가 전체를 집필), 2.인도편(pp.154~389), 3.중국(한국)편(pp.390~601), 4.일본편(pp.602~882) 그리고 마지막으로 103쪽에 달하는 森章司編 「戒律關係文獻目録」으로 되어 있다.

다음은 이 논문집에 실린 모리 쇼지 교수의 논문 가운데 인도에 관한 것만을 가려본 것이다. 나머지 주요 논문들은 각 논자의 논문 소개에서 다루어져 있으니 참고 바람.

| | |
|-----------------------|-----------|
| はしがき | i |
| 第一 總論篇 | |
| 第一章 戒律概説 | |
| 戒律概説 - 解説に代えて | 5 |
| 第二章 『律藏』の思想 | |
| 『律藏』におけるSĀNTI - 善惡の問題 | 63 |
| 『律藏』におけるSĀNTI - 平等の問題 | 87 |
| 第三章 佛教の戒律と世俗の法 | |
| 『僧尼令』と佛教の戒律 | 131-153 |
| 第二 インド篇 | |
| 第三章 大乘菩薩戒と大乘佛教教團 | |
| 菩薩戒と大乘佛教教團 | 265-276 |
| 戒律關係文獻目録 | (1)-(103) |
| 1995 | |

・『原始佛教から阿毘達磨佛教への佛教教理の研究』東京, 東京堂出版.

4.39. 片山一良(가타야마 이치로, 1942~) 駒澤大學教授

1965년, 駒澤대학 불교학부 졸업. 1967년, 문학 修士. 영국 옥스포드 대학 및 스리랑카 에서 연구. 팔리어학에 관한 연구 및 번역과 최근 스리랑카를 중심으로 한 남방불교 국가에 대한 불교인류학적 연구를 시도하고 있음.

1973

「「ヴット-ダヤ」譯註(Vuttodaya)パーリ韻律」『佛教研究』第3號, 浜松, 國際佛教徒協會, pp.143~198.

1974-1

「「パーリ語文獻史」和譯·索引(Gandhavamsa)」『佛教研究』第4號, 浜松, 國際佛教徒協會, pp.139~205.

1974-2

「「パーリ」におけるekakkharaの點描-Volksetymologie 考-」曹洞宗研究員 研究生『研究紀要』第6號, 曹洞宗務廳, pp.14~23.

1976

「原始佛教の表現法-vyañjanapada·atthapada-」『駒澤大學佛教學部研究紀要』第34號, 東京, 駒澤大學佛教學部, pp.47~64.

1977

「Subodhāṅkāra-パーリ修辭論-テキスト篇」(編)『佛教研究』第6號, 浜松, 國際佛教徒協會, pp.82~107.

1978

「Subodhāṅkāra-パーリ修辭論-譯註篇(上)」『佛教研究』第7號, 浜松, 國際佛教徒協會, pp.104~129.

1979

「Moggallāna-Abhidhānappadīpikā(I)」『駒澤大學佛教學部研究紀要』第37號, 東京, 駒澤大學佛教學部, pp.13~59.

1980

「Subodhāṅkāra-パーリ修辭論-譯註篇(下)」『佛教研究』第9號, 浜松, 國際佛教徒協會, pp.59~84.

1981-1

「Moggallāna-Abhidhānappadīpikā(II)」『駒澤大學佛教學部研究紀要』第39號, 東京, 駒澤大學佛教學部, pp.1~35.

1981-2

「初期佛教における文化變容-藥の章-」『駒澤大學佛教學部論集』第12號, 東京, 駒澤大學佛教學部, pp.133~164.

1981-3

「説法(dhammadesanā)と聞法(dhammasavaṇa)-パーリツタ儀禮の基本構造-」『日本佛教學會年報』第47號-社會倫理と佛教の機能-日本佛教學會, pp.21~37.

1982-1

「古代セイロンにおけるサンガとダーサー施與の文化變容-」『パーリ佛教文化研究』東京, 山喜房佛書林, pp.33~56.

1982-2

「Moggallāna-Abhidhānappadīpikā(III)」『駒澤大學佛教學部研究紀要』第40號, 東京, 駒澤大學佛教學部, pp.1~44.

1988

「パーリ佛教における相對的規準 [I]-kappiyaの原義-」『駒澤大學佛教學部論集』第19號, 東京, 駒澤大學佛教學部, pp.1~19.

1989-1

「パーリ佛教における相對的規準 [II]-kappiyaとニカーヤ-」『駒澤大學佛教學部研究紀要』第47號, 東京, 駒澤大學佛教學部, pp.1~17.

1989-2

「四大教法について」『パーリ學佛教文化學』第2號, 愛知縣, 愛知學院大學文學部, パーリ學佛教文化學會, pp.55~68.

1990-1

「十事について」『パーリ學佛教文化學』第3號, 愛知縣, 愛知學院大學文學部, パーリ學佛教文化學會, pp.15~40.

1990-2

「佛教人類學- その立場と領域」『水野弘元博士米壽記念論集-パーリ文化學の世界』東京: 春秋社, pp.233~261.

1991-1

「佛教における「話」の聖性」前田惠學博士頌壽記念『佛教文化學論集』東京, 山喜房佛書林, pp.400~415.

다음의 번역은 팔리 長部(Dīgha-Nikāya)에 대한 가타야마 이치로 교수의 새로운 번역이다. 60여년 전에 번역된 日譯 南傳大藏經이 文語的·한문투의 번역이었다면 다음에 소개되는 번역은 口語的이며, 현대어적인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주석서를 바탕으로 한 각주는 원문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읽기 쉬운 번역과 자세하면서도 근거있는 주석은 경전번역의 하나의 모델이 될 것이다.

번역은, 가타야마 교수가 주장하는 『原始佛教』라는 불교지에 연재되고 있다.

1991-2

「長部(Dīgha-Nikāya) 第一 梵網經(Brahmajāla-sutta)」『原始佛教』1, 東京, 中山書房佛書林, pp.2~74.

1991-3

「長部(Dīgha-Nikāya) 第二 沙門果經(Samaññaphala-sutta)」『原始佛教』2, 東京, 中山書房佛書林, pp.2~71.

1991-4

「長部(Dīgha-Nikāya) 第三 アンバツタ經(Ambaṭṭha-sutta)·第四 ソーナダンダ經(Sonadaṇḍa-sutta)」『原始佛教』3, 東京, 中山書房佛書林, pp.2~90.

1992

「長部(Dīgha-Nikāya) 第五 クータダンタ經(Kūṭadanta-sutta)·第六 マハリ經(Mahāli-sutta)·第七 ジャーリ야經(Jāliya-sutta)」『原始佛教』4, 東京, 中山書房佛書林, pp.2~90.

1993-1

「長部(Dīgha-Nikāya) 第八 大獅子吼經(Mahāsīhanāda-sutta)·第九 포тта파타經(Poṭṭhapāda-sutta)·第十 스바經(Subha-sutta)」『原始佛教』5, 東京, 中山書房佛書林, pp.2~128.

1993-2

「長部(Dīgha-Nikāya) 第十一 케ヴァття타經(Kevaṭṭa-sutta)·第十二 로히ッチャ經(Lohicca-sutta)·第十三 三明經(Tevijja-sutta)」『原始佛教』6, 東京, 中山書房佛書林, pp.2~117.

1994

「伝統佛教の比丘戒律-序篇-」『駒澤大學佛教學部論集』25, pp.(27)~(61).

1995

「伝統佛教の比丘戒律-本篇(上)-」『駒澤大學佛教學部研究紀要』53, pp.(19)~(63).

4.40. 浪花宣明(나니와 센묘, 1948~) 大谷大學講師

舊姓, 우에스기(上杉). 1972년, 大谷대학 불교학과 졸업. 1974년, 문학 修士. 1978년 同 대학 박사과정 수료. 1980-1982년, 인도 푸나(Poona)대학에 유학. Ph.D.(푸나대학).

南北傳아비달마연구, 특히 팔리 아비달마 연구에 좋은 논문들을 쓰고 있음.

1976

「說一切有部の極微論研究」『佛教學セミナー』24, 京都, 大谷大學佛教學會, pp.37~52.

1978

「サンカラの研究」『佛教研究』第7號, 浜松, 國際佛教徒協會, pp.19~33.

1979

「阿毘達磨の言語論-名·句·文-」『佛教學セミナー』30, 京都, 大谷大學佛教學會, pp.26~45.

1980

「行の研究-有行心と無行心」『佛教研究』第9號, 浜松, 國際佛教徒協會, pp.97~114.

1981

「パーリ佛教における三歸依について - Upāsakajanālaṅkāra 第1章の研究」『佛教研究』第10號, 浜松, 國際佛教徒協會, pp.127~148.

1982

「心の作用とThāna」『佛教研究』第11號, 浜松, 國際佛教徒協會, pp.101~117.

1983

「心所法のアビダルマ的變化」『佛教研究』第12號, 浜松, 國際佛教徒協會, pp.71~88.

1984

「パーリ上座部における色法説の一考察-nipphannaとparinipphanna」
『佛教研究』第13號, 浜松, 國際佛教徒協會, pp.45~62.

1985

「色法の主觀的認識-ruppati」の解釋をめぐって-」『佛教學セミナー』第41號,
京都, 大谷大學佛教學會, pp.39~60.

1987

・『在家佛教の研究』京都, 法藏館.

본서는 10~12세기 경에 남방상좌부의 승려인 스리랑카의 아난다라고 하는 비구에 의해서 저술된 『우파사카자나 알랑카라』 *Upāsakajānālankāra*⁴⁰⁾ (在家信者の莊嚴)라고 하는 작품에 대한 연구 및 번역서이다. 『우파사카자나 알랑카라』는 재가자의 실천 수행도에 대한 몇 안되는 저술 가운데 가장 종합적인 안내서이다. 불교의 일반적인 성격이 출가중심적이며 고타마 붓다의 설법도 대부분 출가 승단의 구성원인 비구·비구니라는 출가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가자를 위한 가르침의 비중이 적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출가와 재가의 구분이 엄격하여 각자의 행해야 할 바를 잘 지켜온 남방상좌부불교에도 붓다의 제자로서의 재가자를 위한 가르침과 실천도는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그것은 오늘날 스리랑카, 타이, 미얀마 등의 남방상좌부 불교에서의 재가자들의 활동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상좌부불교가 그 정통성을 유지하면서 2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어져 온 것은, 상좌부 승가를 내적으로 전승해온 승단과 외적으로 지원해온 재가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상좌부불교의 승려들이 재가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바로 재가자들을 교육시켜 왔기 때문일 것이다.

『우파사카자나 알랑카라』는 바로 이와 같은 상좌부불교에서의 재가자를 위한 가르침의 전형적인 작품이다. 『우파사카자나 알랑카라』에서 제시

40) *Upāsakajānālankāra*의 교정본은 다음의 판본을 사용했다.
H. Saddhatissa, *Upāsakajānālankāra A Critical Edition and Study*,
London, Pali Text Society, 1965.
삿다티사 박사에게 의한 본 교정본에도 120여 쪽에 달하는 연구 부분이 있어 원천이
해에 많은 도움이 된다.

하는 재가실천도는 1.人倫에 바탕을 둔 올바른 생활습관의 확립과 2.올바른 생활습관 위에 선 종교적인 실천이라는 2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p.158)

이러한 2단계의 실천의 궁극적인 목적은 출세간의 행복인 열반의 획득에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우파사카자나 알랑카라』에 대한 연구는 상좌부불교를 이해하는 하나의 열쇠가 될 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재가자의 실천에 대해서도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나니와 센묘 박사의 본 연구는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책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第一部 研究篇

| | |
|---------------|-----|
| 序 説 | 3 |
| 第一章 在家實踐道の構造 | 6 |
| 第二章 三歸依 | 29 |
| 第三章 戒と頭陀支 | 67 |
| 第四章 正しい生活 | 94 |
| 第五章 十福業事と障礙法 | 119 |
| 第六章 無我説と福果の完成 | 158 |

第二部 和譯篇

| | |
|---------------|---------|
| 本文目次 | 164 |
| 本 文 | |
| 第一章 歸戒の説明 | 169 |
| 第二章 戒の説明 | 226 |
| 第三章 頭陀支の説明 | 309 |
| 第四章 正しい生活の説明 | 317 |
| 第五章 十福業事の説明 | 353 |
| 第六章 障礙法の説明 | 384 |
| 第七章 世間の幸福の説明 | 391 |
| 第八章 出世間の幸福の説明 | 415 |
| 第九章 福果の完成の説明 | 425-435 |

1990

「パーリ佛教における色法をめぐる諸議論-形式と極微-」『佛教研究』第19號,
浜松, 國際佛教徒協會, pp.139~160.

1991

「パーリ上座部の緣起の語義釋-Visuddhimagga, Paramatthamañjūsā 譯註-」『佛教研究』第20號, 浜松, 國際佛教徒協會, pp.81~106.

1994

「パーリ上座部の業論(1)-業果の必然性-」『佛教研究』第23號, 浜松, 國際佛教徒協會, pp.3~20.

1995

「パーリ二十四緣説の研究」『佛教研究』第24號, 浜松, 國際佛教徒協會, pp.147~164.

4.41. 田中教照(다나카 교쇼, 1949~) 武蔵野女子大學教授

1971년, 東京대학 제1류(文化學) 졸업 (印度哲學·印度文學專修). 문학박사. 초기불교 및 南北傳아비달마 불교에 대한 논문 다수. 특히 修行論 분야가 많음.

1976-1

「修行論より見た阿毘達磨論書の新古について-『雜阿毘曇心論』を中心に-」『佛教研究』第5號, 浜松, 國際佛教徒協會, pp.41~78.

1976-2

「南北傳アビダルマの修行道論-『俱舍論』と『清淨道論』について-」『宗教研究』229, 東京, 日本宗教學會, pp.21~42.

1982-1

「『法蘊足論』と『分別論』の蘊·處·界論」『佛教研究』第12號, 浜松, 國際佛教徒協會, pp.31~48.

1982-2

「初期アビダルマ論書における四念處觀」『佛教教理の研究』田村芳朗博士還暦記念論集, 東京, 春秋社, pp.195~215.

1985

「南北兩アビダルマの緣起説」『佛教思想の諸問題』平川彰博士古稀記念論文集, 東京, 春秋社, pp.101~124.

1986

「有部の修行道論と七覺支」『佛教學』第19號, 東京, 佛教思想學會, pp.33~48.

1987-1

「部派佛教における智の展開-パーリ佛教の修行道との關聯」『インド學佛教學論集』高崎直道博士還暦記念論文集, 東京, 春秋社, pp.327~342.

1987-2

「『法蘊足論』における修行道論」『佛教學』第23號, 東京, 佛教思想學會, pp.1~21.

1993

・『初期佛教の修行道論』東京, 山喜房佛書林.

다나카 교쇼 박사의 학위논문(原題:『修行道論の展開と初期アビダルマ論書』)에 「第1章 最初期佛教における修行道」를 가필한 저서. 간략하게 목차를 통해 책의 구성을 살펴본다.

第一篇

| | |
|--------------------|-----|
| 序 | 3 |
| 第一章 最初期佛教の修行道 | 7 |
| 第二章 阿含·ニカーヤにおける修行道 | 111 |

第二篇

| | |
|--------------------|---------|
| 序 初期阿毘達磨論書と修行道論 | 207 |
| 第一章 『法蘊足論』の修行道論 | 221 |
| 第二章 『集異門足論』の修行道論 | 277 |
| 第三章 『舍利弗阿毘曇論』の修行道論 | 321 |
| 第四章 『分別論』をめぐる諸問題 | 419-460 |

4.42. 羽矢辰夫(하야 다츠오, 1952~) 青森公立大學助教授

1975년, 東京大學文學部 印度哲學印度文學科 졸업. 1978년, 同 대학 문학修士. 초기불교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여러 연구 논문을 발표⁴¹⁾.

41) 집필된 논저를 전부 보내 주신 하야 다츠오 교수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린다.

- 1982
「原始佛教における生滅法(1)－釋尊の思想をめぐって－」『佛教研究』第11號, 浜松, 國際佛教徒協會, pp.119~131.
- 1983
「原始佛教における理想者」『印度學佛教學研究』31-2, 東京, 印度學佛教學會, pp.865~868.
- 1984
「原始佛教における生滅法(2)」『佛教學』第17號, 佛教學研究會, pp.73~89.
- 1984-2
「原始佛教における生滅法(3)」『印度學佛教學研究』32-2, 東京, 印度學佛教學會, pp.1081~1084.
- 1986
「二つの無常」『印度學佛教學研究』34-2, 東京, 印度學佛教學會, pp.56~61.
- 1987-1
「釋尊觀を考える」『インド學佛教學論集』高崎直道博士還曆記念論集, 東京, 春秋社, pp.359~369.
- 1987-2
「佛教とトランスパーソナルの接点(1)」『東方』第3號, pp.203~208.
- 1989-1
「『スッタニパータ』におけるsaññaの意味」『印度學佛教學研究』37-2, 東京, 印度學佛教學會, pp.95~99.
- 1989-2
「ヴィラガ(離貪, 離染)について」『東方』第5號, pp.66~73.
- 1990-1
「自歸依, 法歸依の意味」『パリー學佛教文化學』第3號, pp.41~56.
- 1990-2
「無記と無常」『武藏野女子大學佛教文化研究所紀要』8, 東京, 武藏野女子大學佛教文化研究所, pp.41~56.
- 1990-3
「原始佛教の眞理觀(1)」『月刊ア-ガマ』第109號, pp.165~183.
- 1990-4
「原始佛教の眞理觀(2)」『月刊ア-ガマ』第110號, pp.189~208.
- 1991-1

- 「無記と空」『印度學佛教學研究』39-2, 東京, 印度學佛教學會, pp.40~44.
- 1991-2
「無記と非我」『〈我〉の思想』前田專學博士還曆記念論集, 東京, 春秋社, pp.97~110.
- 1992-1
「空と無我-原始佛教における-」『印度學佛教學研究』40-2, 東京, 印度學佛教學會, pp.12~16.
- 1992-2
「知の三つの様式-佛教とトランスパーソナルの接点(2)」『武藏野女子大學佛教文化研究所紀要』10, 東京, 武藏野女子大學佛教文化所, pp.41~64.
- 1993-1
「原始佛教における yathabhūta の解釋」『佛教學』第35號, 東京, 佛教思想學會, pp.(25)~(40)
- 1993-2
・『佛教思想の源流』(私家版) NHK高校講座倫理平成5年放送分.
- 4.43. 榎本文雄(에노모토 후미오, 1954~) 華頂短期大學助教授
- 1976년, 京都대학 철학과 졸업. 1978년, 문학 修士. 한역 아함경과 범어 불전 및 산스크리트 아함경 단편에 대한 연구.
- 1982-1
「初期佛典における三明の展開」『佛教研究』12, 浜松, 國際佛教徒協會, pp.63~81.
- 1982-2
「攝大乘論無性釋に引用される若干の經文をめぐって」『佛教史學研究』24-2, 東京, 佛教史學研究會, pp.44~57.
- 1982-3
「雜阿含1299經と1329經をめぐって」『印度學佛教學研究』30-2, 東京, 印度學佛教學會, pp.79~85.
- 1983
「初期佛典におけるāsrava(漏)」『南都佛教』50, 京都, pp.17~28.
- 1984-1

「阿含經典の成立」『東洋學術研究』第23卷 第1號, 東京, 東洋哲學研究所, pp.93~108.

1984-2

「說一切有部系ア-ガマの展開」『印度學佛教學研究』32-2, 東京, 印度學佛教學會, pp.51~54.

1984-3

「東トルキスタン出土梵文阿含の系譜」『華頂短期大學紀要』29, pp.11~26.

1985-1

「『雜阿含經』關係の梵文寫本斷片 - 『Turfan 出土梵文寫本目錄』第5卷をめぐって -」『佛教研究』第15號, 浜松, 國際佛教徒協會, pp.81~93.

1985-2

「初期佛典と論書の傳承史研究に向けて」『佛教論叢』第29號, 京都, 淨土宗教學院, pp.134~137.

1988-1

「初期佛教思想の生成-北傳阿含の成立」『インド佛教 1』岩波講座 東洋思想 8, 東京, 岩波書店, pp.99~116

1988-2

「初期佛教における業の消滅」『日本佛教學會年報』54, 日本佛教學會, pp.1~

13

다음의 두 논문은 저자가 독일의 괴팅겐대학의 연구원 시절에 이루어낸 연구성과이다. 내용을 보면, 전자는 바미얀(아프카니스탄)과 동터키스탄에서 발견된 說一切有部 所傳의 雜阿含經의 산스크리트 단편과 漢譯과의 대조연구이며, 후자는 대승불교의 유식학파의 논서인 『瑜伽師地論』 聲聞地品에 인용된 雜阿含經 상응부분에 대한 연구이다. 두 논문 모두 사본연구와 산스크리트-한문-팔리-티베트어가 가능한 학자에 의한 이른바 철저한 문헌학적 연구의 본보기라 할 수 있다. 에노모토 교수는 독일서 이 두 논문을 발표하고 1991년 12월 東京대학에서 이 두 논문을 자료로 일주일간의 집중강의를 했다. 불교연구를 위한 고전어인 산스크리트, 팔리, 티베트, 한문 자료의 비교검토와 해석으로 진행된 강의였다.

1989-1

Sanskrit Fragments from the Samyuktāgama Discovered in

Bamiyan and Eastern Turkestan, *Sanskrit-Texte aus dem buddhistischen Kanon: Neuentdeckungen und Neueditionen*, Goe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pp.7~16.

1989-2

Śārīrāgāthā: A Collection of Canonical Verses in the Yogacārābhūmi. part 1: Text, *Sanskrit-Texte aus dem buddhistischen Kanon: Neuentdeckungen und Neueditionen*, Goe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pp.17~35

1993

「『婆沙論』의 梵文寫本斷片」『印度學佛教學研究』42-1, 東京, 日本印度學佛教學會, pp.490~495.

5. 서구의 연구⁴²⁾

해외에서의 초기불교 및 팔리불교 연구는 여전히 유럽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Pali Text Society를 중심으로 한 연구 성과와 가장 상세하면서 학술적인 가치가 있는 팔리어 사전인 A Critical Pali Dictionary의 편찬자인 덴마크, 그리고 헤르만 올덴베르크 이후로 면면히 연구의 전통이 이어져 내려온 독일의 연구 성과에 대해 몇몇 학자들의 저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각 저술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설명은 지면을 달리해서 정리하고자 한다.

5.1. 영국

Pali Text Society(PTS)⁴³⁾를 중심으로 한 연구

42) 일본을 제외한, 서구를 중심으로 한 초기불교 및 팔리불교에 대한 연구 성과에 대한 자세한 정리는 지면을 달리해서 차분히 하고 싶다. 이번의 원고에서는 현재 활약하고 있는 눈에 띄이는 대표적인 연구자들의 주요 연구 성과만을 소개해 보기로 한다.

43) PTS(Pali Text Society)의 업적과 목적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K.R.Normam 교

K.R.Norman

최근까지 Pali Text Society의 회장을 지낸, 팔리어를 중심으로 한 중기 인도아리안(이른바 Prakrit)의 전문가. 노만 교수의 『長老偈』, 『長老尼偈』, 『숫타니파타』에 대한 언어학적·주석적인 번역(PTS에서 출판)은 팔리불전 연구 및 번역의 모델로서 정평이 있다.

1983

Pali Literature-Including the Canonical literature in Prakrit and Sanskrit of all the Hīmayāna Schools of Buddhism, A History of Indian Literature Vol.VII, Wiesbaden, Otto Harrassowitz.

이 책은 팔리 三藏 및 기타 주석문헌, 강요서 등에 대한 종합적인 해설서이다. 팔리문헌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아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책이다.

다음의 논문집은 노만 교수가 연구지에 발표해온 논문들을 발표 연도 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현재 4권까지 출판되어 있다.

1990

Collected Papers Vol. I, Oxford, The Pali Text Society.

1991

Collected Papers Vol. II, Oxford, The Pali Text Society.

1992

Collected Papers Vol. III, Oxford, The Pali Text Society.

1993

Collected Papers Vol. IV, Oxford, The Pali Text Society.

1994-1

Dhammapada(ed. together with O.von Hinüber) Oxford, The Pali Text Society.

1994-2

A Pali Grammar by Wilhelm Geiger (revising and editing)

수의 다음의 논문 참조.

K.R.Norman, 「(P.T.S.) 聖典協會の業績と目的」(The Pali Text Society: achievements and aims, 山崎守一 譯) 『中央學術研究所紀要』第16號, 東京, 中央學術研究所, 1987, pp.4~32.

Oxford, The Pali Text Society.

1994-3

Collected Papers Vol. V, Oxford, The Pali Text Society.

F.Gombrich

현재 옥스포드 대학 교수이자 PTS의 회장이며 팔리불교 학자이다.

스리랑카 불교에 대해서 현지 조사를 중심으로 한 연구와 팔리 문헌학에 대한 연구가 두드러진다.

1971

Buddhist Precept and Practice-Traditional Buddhism in the Rural Highlands of Ceylon, Oxford University Press(under the title *Precept and Practice*), second edition with minor corrections, Delhi, Motilal Banarsidass.

곰브리치 교수의 학위 논문.

1988-1

Theravada Buddhism-A Social History from Ancient Benares to Modern Colombo,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88-2

Buddhism Transformed-Religious Change in Sri Lank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5.2. 덴마크

덴마크의 팔리불교 연구⁴⁴⁾의 역사는, V.Trenckner(1824~1891)에 의해 시작되어 현재까지 계속 출판이 진행되고 있는 A Critical Pali Dictionary(CPD)의 편찬⁴⁵⁾을 중심으로 한 사전학(Lexicography)으로

44) 덴마크의 팔리불교 연구의 역사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William Peiris, *The Western Contribution to Buddhism*, Chapter V. Denmark, Delhi, Motilal Banarsidass, 1973, pp.183~212.

45) 마에다 에카쿠(前田惠學) 교수의 논문(1962, 1963-1) 참조.

대변될 수 있다. 트랭크너의 뒤를 이어서, 앤더슨(Dines Andersen, 1861~1940)과 스미스(Helmer Smith)⁴⁶⁾는 CPD의 제1권을 1922년부터 1948년에 걸쳐 출판했다. 이 후 1960년에 여러 팔리어 학자들에 의해 제1분책이 출판된 제2권은, 1990년에 30년 만에 전체가 출판되었으며, 현재, 제3권의 제2분책이 출판되어 있는 상태이다. 현재의 편집 책임은 Oskar von Hinüber 교수와 Ole Holten Pind씨가 맡고 있다. 다음은 O.H. Pind씨의 팔리불교에 대한 몇 편의 논문을 적어본 것이다.

Ole Holten Pind
Editor-in-Chief of CPD

1989

Studies in the Pāli Grammarians I, London, PTS, JPTS XIII, pp.33-81.

1990

Studies in the Pāli Grammarians II, London, PTS, JPTS XIV, pp.175-218.

위의 두 논문은 팔리 문법가들에 대한 연구이다.

붓다고사(Buddhaghosa)는 기원 5세기 경에 인도에서 스리랑카로 건너와서 당시의 싱할리즈(스리랑카어)로 번역되어 전해져 오던 팔리 三藏의 주석서(Atthakatha)를 다시 팔리어로 번역하면서 편집하는 작업을 했다. 이러한 편집·번역의 과정에서 파니니(Pāṇini, B.C.4~5c)에 의해 정비된 고전 산스크리트의 문법적인 설명의 기법을 이용하면서 주석을 했다. 문법학에 입각한 주석의 전통은 산스크리트 문헌에서는 기본적인 방법으로 채택되어 왔으며, 이 방법이 붓다고사에 의해 팔리문헌의 주석에도 적용

46) 헬머 스미스(Helmer Smith, 1882~1956)는 스웨덴 출신의 인도 문헌학자이다. 팔리불교연구사에서의 가장 큰 공헌은, 12세기 미얀마의 약가밤사(Aggavamsa)장로에 의해 쓰여진 팔리문법서인 *Saddanīti*의 교정출판이다. 스미스에 의해 교정출판된 본서는, 가장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팔리문법서인 샷다니티 연구에서 필수불가결의 책임에 틀림없다.

Saddanīti. La Grammaire Palie d'Aggavamsa. Texte établi par H. Smith, Lund, C.W K. Gleerup, 1928-29-30-49-54-66. p.1795.

이 외의 연구 업적에 대해서는 CPD, II, 1 (1960), pp.V~VII. 참조.

되기 시작했다고 위의 논문을 통해서 핀(Pind)씨는 밝히고 있다.

1992

Buddhaghosa-His works and Scholarly Background, 『佛敎研究』第21號, 浜松, 國際佛敎徒協會, pp.135-156.

5.3. 독일⁴⁷⁾

Heinz Bechert

1966

Buddhismus, Staat und Gesellschaft in den Ländern des Theravāda-Buddhismus, Band 1-Allgemeines und Ceylon, Berlin, Alfred Metzner Verlag.

1967

Buddhismus, Staat und Gesellschaft in den Ländern des Theravāda-Buddhismus, Band 2-Birma, Kambodscha, Laos, Thailand, Wiesbaden, Otto Harrassowitz.

1973

Buddhismus, Staat und Gesellschaft in den Ländern des Theravāda-Buddhismus, Band 3-Bibliographie, Dokumente, Index, Wiesbaden, Otto Harrassowitz.

Oskar von Hinüber

K.R. Norman과 함께 중기 인도 아리안 연구의 세계적인 학자. 팔리어 및 불교범어, 프라크리트어에 대한 연구에 중요한 연구 성과를 발표해 오고 있음.

1968

Studien zur Kasussyntax des Pāli Besonders des Vinaya-pitaka,

47) 조금 시기가 지난 감은 있지만 독일의 인도학계의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 참조. 玉井威 「ドイツ印度學界の現況」 『佛敎學セミナー』23, 京都, 大谷大學佛敎學會, 1976, pp.76~83.

München.

히뇌버 교수의 박사 학위 논문. 팔리 율장에서의 格變化 문장론.

(Review, J.W.de Jong, "Buddhist Studies"(ed by Gregory Schopen), Berkeley, 1979, pp.219~221.)

1983

Notes on the Pāli Traditions in Burma(Beiträge zur Überlieferungsgeschichte des Buddhismus in Birma, I), Goe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pp.17.

1988

Die Sprachgeschichte des Pāli im Spiegel der südostasiatischen Handschriftenüberlieferung(Untersuchungen zur Sprachgeschichte und Handschriftenkunde des Pāli I) Mainz, Akademie der Wissenschaften und der Literatur, pp.29.

(Review, K.R.Norman, Indo-Iranian Journal 34, pp.202-209, 1991.)

1989

Der Beginn der Schrift und frühe Schriftlichkeit in Indien, Mainz, Akademie der Wissenschaften und der Literatur, pp.75.

1991

The Oldest Pāli Manuscript, Four Folios of the Vinaya-Pitaka from the National Archives, Kathmandu(Untersuchungen zur Sprachgeschichte und Handschriftenkunde des Pāli II) Mainz, Akademie der Wissenschaften und der Literatur, pp.48.

1992

Sprachentwicklung und Kulturgeschichte(Ein Beitrag zur materiellen Kultur des buddhistischen Klosterlebens), Mainz, Akademie der Wissenschaften und der Literatur, pp.87.

6. 맺는 말

메이지 이후 급속하게 서양 학문의 방법론을 도입해서 현재에 이르기까

지 꾸준히 연구 업적을 쌓아온, 일본의 인도학·불교학계의 흐름 가운데에서 초기불교 및 상좌부불교에 대한 연구의 과거와 현황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1900년 전후에 시작된 초기불교 및 상좌부불교에 대한 연구가 1930년대의 『南傳大藏經』 번역사업에 의해 저변화되었고, 1960년대 전후에는 이른바 경전성립사·교단사·율장·불교흥기시대의 배경 등의 분야에 대한 연구가 이 분야의 연구사에서 하나의 정점을 이루었다. 이후 상좌부불교 국가에 대한 연구와 문화사적인 연구, 불교와 같은 시대에 나타난 사문의 사상 가운데 하나인 자이나교와의 비교연구, 주석문헌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으며, 산스크리트 단편과 팔리 자료와의 비교연구, 불교인류학적인 연구와 교리에 대한 다양한 재검토, 초기경전에 대한 재번역의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주요 학자들의 업적을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 볼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현재의 초기불교 연구는 일본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침체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연구 성과의 면에서도 그러하거나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 인력도 감소해 있는 형편이다. 하지만 불교의 학문적인 연구에서 그리고 불교 자체에 대한 이해에서 초기불교에 대한 이해는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불교가 사상적으로 발달하고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특수한 전개를 해왔다고 할지라도 그 뿌리는 역시 인간 고타마 붓다에게 있으며, 인간 고타마 붓다의 사상에 대한 이해는 초기불교에 대한 연구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초기불교에 대한 이해는 불교 이해의 초석임에 틀림없다.

초기불교 및 상좌부불교 연구 분야에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부분은 이른바 방대한 양의 주석서류에 대한 연구일 것이다. 세계적으로 팔리 주석 문헌에 대한 원전 출판은 비교적 진행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번역 및 연구에서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다. 남방상좌부불교 국가에서의 이 분야에 대한 연구 성과도 참고로 해가면서 초기불교 및 팔리불교에 대한 이해의 폭과 질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초기불교에 대한 관심과 남방불교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져가고 있다. 팔리 장

경에 대한 번역 사업도 점차 진행되고 있으며,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등의 남방 상좌부불교 국가에 대한 시찰과 함께 그곳의 불교에 대해서도 새로운 이해의 눈이 열리고 있다. 이러한 때에 이미 100년 이상의 연구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연구 성과와 현황에 대한 이해는 지금부터 박차를 가해야 할 우리의 연구의 자료가 될 것임에 틀림이 없다.

학자들에 의한 학문적이며 이론적인 연구 성과를 활용하면서, 현재 살아있는 상좌부불교의 전통을 이해하고 장점을 흡수해 간다면 현재 한국의 인도학·불교학과 불교계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1600여년의 한국 불교의 전통에 객관적인 학문적 성과들이 접목되고, 우리에게 알맞는 방식으로 상좌부불교의 장점들이 흡수된다면, 불교가 현대 사회에서 현대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도움이 안되는 불교라면 누가 그 전통을 이어나가려고 할 것인가.

부록 — 各章의 보충 참고자료

2장. 일본 근대 불교학의 성립

메이지 시대의 불교에 대한 연구 저술

2.01

메이지 시대의 불교에 대한 가장 종합적인 연구서로서 『明治佛教の研究・回顧』 現代佛教特輯號 (東京, 現代佛教社, 1933)를 들 수 있다. 이 책은 총 780 쪽에 달하는 논문집으로 메이지 시대의 불교 연구를 위한 필독서이다. 특히 다카구스 준지로 박사의 「明治佛教의 大勢」(6-17), 「明治佛教에 영향을 준 서양의 불교학자」(152-161) 그리고 간단한 논문이지만 나가이 마코토 박사의 「明治佛教의 原典研究」(171-174) 등의 논문 참조.

2.02

岸本英夫 編 『明治文化史』 6 宗教 (東京, 原書房, 1979), 第三章 明治佛教史 pp.147~252에는 徳川幕府시대의 佛教, 明治維新과 廢佛毀釋, 불교도의 작성,

서구문화와의 접촉과 불교의 혁신, 「破邪顯正」운동과 불교의 부흥, 근대적 불교사상의 전개 - 새로운 불교학의 수립과 불교의 정비 시대의 순서로 메이지 시대의 불교계의 동향에 대해 기술되어 있다. 특히 근대적 불교사상의 전개 부분의 '유럽의 불교연구의 동향과 그 영향'과 '새로운 불교학의 수립' 부분이 당시의 유학 상황을 말해주고 있음.

2.03

増谷文雄 『増谷文雄著作集 12 近代の宗教的生活者』 (東京, 角川書店, 1982)에서의 「近代佛教思想史」 부분(pp.14~147)의 '근대불교사상의 전개', '구미불교학의 공헌', '근본불교주의의 수립' 등의 논문 참조.

2.04

渡邊海旭 『歐米の佛教』 (東京, 丙午出版社, 1919. [『渡邊海旭論文集』 (東京, 大東出版社, 1933 初版, 1936 再版)에 再録 pp.1~191])는 메이지 시대, 서구에서의 불교연구 상황을 종합적으로 연구 보고한 저술. 제1장 팔리성전의 연구, 제2장 梵語불교성전의 연구, 제3장 支那佛教의 연구, 제4장 西藏불교의 연구, 제5장 인도학연구상의 불교, 제6장 西域발굴의 불교, 제7장 歐洲에 있어서 불교의 감화로 구성되어 있음. 이 가운데 1.2.5장을 참조.

2.05

柏原祐泉의 「近代佛教學の形成」(『日本佛教史 近代』 東京, 吉川弘文館, pp.71~95)에는 메이지 시대의 불교학 방면의 유학과 역사적 연구법 등에 대한 설명이 개략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메이지 시대의 불교학의 선구자에 대한 소개 가운데 아네자키 마사하루(姉崎正治)에 대한 부분(pp.90~92)이 있음.

2.1 근대 불교학자들에 대한 소개 및 傳記에 관한 논저.

2.11

長崎法潤 「산스크리트의 착수」(『サンスクリット事始め』), 『佛敎學セミナー』 52, 1990. 70-86에서는 난조 분유(南條文雄)박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음.

2.12

雲井昭善 「南條文雄先生-近代佛敎學研究의 先驅者」 『佛敎學セミナー』 7, 1968. 60-70

2.13

「마음에 남는 근대의 불교자 100인<하>」(『心に残る近代の佛敎者100人<下>』) 『大法輪』 東京, 大法輪閣, 平成5年(1993)5月號 pp.120~145에 南條文雄, 高楠

順次郎, 荻原雲來, 渡邊海旭, 姉崎正治, 木村泰賢, 宇井伯壽, 長井眞琴, 山口益 등의 傳記와 업적에 대한 소개가 실려 있음.

2.14

齋藤昭俊·成瀬良徳 編著『日本佛教人名辭典』東京, 新人物往來社, 1986.

「現代佛教界人名錄」『現代佛教情報大事典』現代佛教情報研究會編, 東京, 名著普及會, 1985, pp.441~578.

2.15

増谷文雄 박사의 2.03『増谷文雄著作集 12 近代の宗教的生活者』에는 南條文雄, 木村泰賢, 渡邊海旭 등에 대해 소개되어 있음.

2.16

山折哲雄 「여원 〈佛陀〉-近代佛教研究의 功罪를 묻는다」(「やせほそった〈佛陀〉-近代佛教研究の功罪を問う」)『季刊 佛教』no.1, 東京, 法藏館, 1987.10 pp.28~57에는 기무라 다이켄(木村泰賢) 박사와 우이 하쿠쥬(宇井伯壽), 와츠지 데츠로(和辻哲郎) 박사의 緣起說에 대한 해석의 相異點을 논하면서 기무라 다이켄 박사와 우이 하쿠쥬 박사의 학문적 성향 및 傳記에 대해 서술되어 있음.

3.4 초기불교 및 팔리불교 연구의 전개

다음은 주요 기획 논문집에 수록된 초기불교 및 팔리불교에 대한 연구들에 대한 소개이다. 대부분의 저자들은 앞에서 소개한 학자들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리즈 논문집의 발간을 통해서 불교사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도모하려고 하는 것이 일본에서의 현재의 인도철학·불교학계의 단면 가운데 하나이다. 수록된 논문들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이야 지면 관계상 못하지만 주요 논문들은 고려연구 부분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講座佛教思想』(全7卷 三枝充恵 編集, 長尾雅人·中村元 監修, 東京, 理想社 1974~1982)에 수록된 초기불교 및 부파불교에 관한 논문.

第1卷『存在論 時間論』1974.

「原始佛教·アビダルマにおける存在の問題」櫻部建, pp.17~55.

「原始佛教·アビダルマにおける時間論」平川彰, pp.181~226

第2卷『認識論 論理學』1974

「原始佛教の認識論」平川彰, pp.15~54.

第3卷『倫理學 教育學』1975

「原始佛教の倫理思想」藤田宏達, pp.19~64.

第4卷『人間學 心理學』1975

「佛教における人間論」中村元 pp.19~64.

「原始佛教·アビダルマにおける心理學」水野弘元, pp.197~240.

第5卷『宗教論 眞理·價值論』1982

「緣起思想」武内義範 pp.71~140.

「印度佛教における眞理·價值論」玉城康四郎, pp.275~352

第6卷『人生觀』1974

없음

第7卷『文學論 藝術論』1975

「インド·東南アジアにおけるパーリ佛教文學思想」前田惠學, pp.19~62.

「死後の世界」奈良康明, pp.63~116.

佛教思想 全12卷(京都, 平樂寺書店, 1994年 3月 現在, 既刊 11卷, 佛教思想研究會編, 代表: 中村元) 시리즈 중의 초기불교 및 부파불교에 관한 논문.

『愛』佛教思想 1, 京都, 平樂寺書店(이하 출판사명 생략), 1975.

「『愛』の理想と實踐」中村元, pp.1~35.

「原始佛教に現われた愛の觀念」雲井昭善, pp.35~94.

「愛に對する新約聖書と原始經典」玉城康四郎, pp.341~397.

『惡』佛教思想 2, 1976.

「惡」中村元, pp.1~89.

「善惡應報の思想 - インド一般思想として - 」雲井昭善, pp.89~114.

「原始佛教における惡の觀念」藤田宏達, pp.115~156.

「社會惡」水野弘元, pp.385~407.

『因果』佛教思想 3, 1978.

「因果」中村元, pp.1~54.

「業因業果と無因無緣論」雲井昭善, pp.55~82.

「アビダルマの因果論」櫻部建, pp.125~146.

『恩』佛教思想 4, 1979.

「『恩』の思想」中村元, pp.1~56.

「原始佛教における恩の思想」雲井昭善, pp.57~86.

『苦』佛教思想 5, 1980.

「苦の問題」中村元, pp.1~94.

「原始佛教における苦の考察」玉城康四郎, 95~200.

「苦の傳統的解釋 - アビダルマ佛教를 中心으로 - 」藤田宏達, pp.201~240.

- 「時代・社會苦 - 末法と苦」 雲井昭善, pp.241~264
 『空 上』 佛教思想 6, 1981.
 「原始佛教における空の觀念」 中村元, pp.39~50.
 『空 下』 佛教思想 7, 1982.
 「原始佛教における空」 藤田宏達, pp.415~466.
 「アビダルマ佛教における「空」の語の用例」 櫻部建, pp.467~480.
 「空思想への反省」 玉城康四郎, pp.907~1015.
 『解脱』 佛教思想 8, 1982.
 「解脱の思想」 中村元, pp.1~80.
 「原始佛教における解脱」 雲井昭善, pp.81~116.
 「パーリ佛教における解脱思想」 渡邊文麿, pp.117~148.
 「阿羅漢への道 - 說一切有部の解脱」 加藤純章, pp.149~192.
 『心』 佛教思想 9, 1984.
 「心の反省」 中村元, pp.1~109.
 「原始佛教における心」 水野弘元, pp.109~144.
 「部派佛教における心」 塚本啓祥, pp.145~218.
 『死』 佛教思想 10, 1988.
 「死をいかに解するか?」 中村元, pp.1~54.
 「原始佛典に見られる死」 藤田宏達, pp.55~106.
 『信』 佛教思想 11, 1992.
 「原始佛教における信」 藤田宏達, pp.91~142.

초기불교 및 팔리불교 연구의 대한 전문적인 학술지

1. 『佛教研究』 浜松, 國際佛教徒協會編.

본지는 1970년 창간된 이래, 원시불교·팔리불교의 연구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발행되는 연간지로 1995년 3월, 제24호가 발행되었다. 편집위원은 水野弘元, 中村元, 平川彰, 早島鏡正, 雲井昭善, 前田惠學 등, 6명의 일본을 대표하는 불교학자들 가운데 원시불교 및 팔리불교 연구의 중핵을 이루어진 학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편집사무담당은 현재 영국 PTS의 일본 대표역을 맡고 있는, 모리 소토(森祖道) 교수가 맡고 있다.(본지 1994년 제23호는 모리 소토 교수로부터 직접 전해 받아 참조할 수가 있었다. 이 자리를 빌어 자료를 전해준 모리 교수에게 감사드린다)

2. 『パーリ學佛教文化學』 パーリ學佛教文化學會編, 會長 前田惠學.

본지는 1988년 창간된 연간지로 1994년 제7호까지 발행되었다. 팔리학 불교 문화 학회의 회장인 마에다 에카쿠 교수는 창간호의 「창간의 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생각하니 불교연구는 금후, 불교를 주제로 하는, 과거와 현재의 연구 대상을 다루는 제학문의 學際的 연구로 되어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불교학만이 아니라, 널리 언어학·역사학·고고학·미술 사학·사회학·문화인류학·민속학·종교학·법률학·정치학·경제학 등, 여러 분야의 연구자로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협력을 얻고 싶다……' 이와 같은 취지로 발간되는 본지에는, 일본 뿐만 아니라 세계의 팔리학자들의 투고도 눈에 띄이는 부분의 하나이어서, 팔리불교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참고해야 할 학술지의 하나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이외의 연구 성과에 대한 발표논문을 보려면, 주요 연구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나 연구기관의 정기간행물과 『印度學佛敎學研究』(東京, 印度學佛敎學會) 『日本佛敎學會年譜』(日本佛敎學會) 등과 같은 전국적인 규모의 학회지의 연구성과를 참조해야 할 것이다.

초기불교 및 팔리불교 연구를 위한 참고서

초기불교 및 팔리불교 연구를 위한 기본적인 안내서 또는 참고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佛敎學への道しるべ』 大谷大學佛敎學會編, 京都, 文榮堂, 1980.

본서의 구성을 목차를 통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第一編 インド佛敎への道しるべ

| | | |
|------------------|-------|-----|
| 第一章 原始佛敎 | 舟橋一哉 | 3 |
| 第二章 原始佛敎 - 外國の文苑 | 佐佐木現順 | 17 |
| 第三章 戒律研究 | 佐佐木教悟 | 54 |
| 第四章 アビダルマ佛敎 | 舟橋一哉 | 76 |
| 第五章 大乘經典 | 櫻部 建 | 90 |
| 第六章 中觀佛敎 | 安井廣濟 | 112 |
| 第七章 唯識佛敎 | 安井廣濟 | 136 |
| 第八章 インド佛敎史 | 佐佐木教悟 | 167 |
| 第九章 チベット文獻 | 稻葉正就 | 185 |

第二編 中國佛敎研究への道しるべ

| | | |
|--------------------|------|-----|
| 第一章 中國佛敎研究法私見 | 橫超慧日 | 215 |
| 第二章 讀解力の養成・必讀すべき經論 | 橫超慧日 | 229 |

| | | |
|------------------|-----------|----------|
| 第三章 概説書・参考書・基礎資料 | 横超慧日 | 246 |
| 第四章 學會誌と論文集 | 横超慧日 | 269 |
| 第三編 インド學研究への道しるべ | | |
| インド學散策 | 雲井昭善 | 287-315 |
| 第四編 日本佛教研究文獻要覽 | 白土わか・坂東性純 | (1)-(50) |

본서 제1편의 1,2,3,4,8장 정도가 초기불교 및 팔리불교 연구의 안내가 된다.

2. 『佛教研究入門』 平川彰編, 東京, 大藏出版, 1884.

(우리말 번역: 楊氣峰譯, 서울, 經書院, 1988)

본서의 다음 논문들이 관련있는 논문.

「總論 - 佛教研究の手引」 平川彰, pp.7~30.

본 논문은 불교연구를 위한 총괄적인 어드바이스로써 1. 불교연구의 두 가지 방법, 2. 연구 전반에 대한 개설서와 기초학, 3. 대장경, 4. 사전·문법서·색인·목록, 5. 연구의 자세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부분별로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原始佛教」 塚本啓祥, pp.33~46.

이 논문은 간략하지만 원시불교 연구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논문이다.

「俱舍論」 田中教照, pp.47~59.

「アビダルマ」 加藤純章, pp.60~74.

위의 두 논문은 주로 北傳의 아비달마에 대한 입문을 위한 논문이지만 팔리아비달마에 대해서도 조금은 다루고 있어 참고가 된다.

3. 「日本の阿毘達磨佛教研究」 釋厚觀, 『諦觀』 第72期, 臺北, 諦觀雜誌社, 1993, pp.1~53.

위의 논문은 일본에서의 아비달마불교에 대한 연구 성과를 정리한 것으로 중국어로 쓰여진 논문이다. 필자인 釋厚觀 스님은 대만에서 유학해서 현재 東京대학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阿毘達磨 및 大智度論을 연구하고 있다. 본 논문은 釋厚觀 스님에게서 직접 받아서 참고로 삼을 수 있었다. 이 자리를 빌어 스님께 감사드린다.

본 논문은 아비달마 논서에 대한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일본에서의 남북전 아비달마불교에 대한 소개를 중심으로 정리한 논문이다. 특히 北傳 아비달마에 대한 연구 성과에 대해서는 잘 정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일본의 구사학·유식학 연구현황 개관

李鍾徹

〈目次〉

| | |
|-----------------------|-------------------------|
| 1. 일본의 구사학연구 개관 | 2. 일본의 유식학 연구 개관 |
| 1.1 『俱舍論』의 原典 | 2.1 『解深密經』등 소의경전에 관한 연구 |
| 1.2 『俱舍論』의 原典의 研究 | 2.2 마이뜨레야의 五法 |
| 1.3 『俱舍論』과 阿含經 | 2.3 아상가의 七論 |
| 1.4 『俱舍論』 연구를 위한 道具서적 | 2.4 와수반두의 八論 |

일본의 구사학·유식학의 연구전통은 상당히 오래돼 에도(江戸)시대 이후의 연구업적만 다룬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분량에 이른다. 이 논문에서는 일본의 불교학계가 근대적 불교학의 흐름을 흡수하여 불교원전¹⁾ 연구에 힘쓰기 시작한 19세기말 이후의 연구성과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단지 모든 연구논문을 망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브리오그래피는 다음을 기약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충실한 원전연구로 일본의 불교학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대표적인 저서나 논문만을 소개하고자 한다.²⁾

1) '불교원전'이라 말할 때 대강 다음과 같은 여러 문헌群을 상정할 수 있다.

(가). 순수한 고전산스크리트어(Classical Sanskrit)로 쓰여진 아비다르마(阿毘達磨), 中觀, 唯識, 불교논리학 분야의 논서.

(나). 佛教梵語(Buddhist Hybrid Sanskrit)로 쓰여진 대승경전과 佛傳문학.

(다). 팔리어(Pali) 三藏.

(라). 티벳대장경, 한역대장경 등 인도의 원전을 어느 정도 복원할 수 있는 번역문헌. 이상의 범주에 들어가는 문헌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불교학의 한 분야를 학계에서는 '인도불교학'이라 부른다. 구사학·유식학은 이 가운데서 특히 (가), (라)의 영역에 속하는 문헌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지만 阿含經과 관련되는 연구 등에서는 (다)의 팔리어 문헌도 함께 다루고 있다.